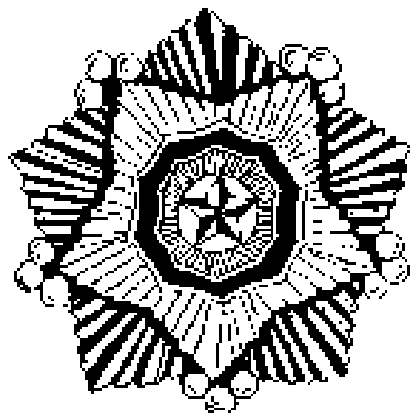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11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11호

(루계 제 757 호)

## 차 례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 .....	3
추대 .....	4
우리에게는 당이 있다! .....	5
아 만수대언덕 .....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6
길림, 그 이름은 .....	6
압록강에 부치는 시 .....	7
사회주의무릉도원 나의 고향아 .....	7
주체문학의 대강 .....	8
나는 이밤을 샌다 .....	8
김일성광장에서 .....	9
상식 .....	13
나의 희망 별하늘 .....	14
경구, 격언 .....	26
웃는 땅에서 .....	27
어머니에게 .....	28
파도의 고백 .....	29

상식.....	29
랑만.....	30
노래를 부르려 무나 .....	30
시대의 울림에 화답하는 주인공은.....	31
혁명의 총을 더 굳게 잡으시네.....	33
새로 온 실장 .....	34
칠보산아!.....	42
김상오와 시집 《나의 조국》 .....	44
주소.....	46
평양은 건설한다 .....	47
건설장의 달밤에 .....	48
그날에 사는 마음 .....	48
눈보라 사나운 밤에 .....	49
약속하노라.....	58
선군시대 참된 애국자의 형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 .....	59
조선속담 .....	60
사과풍경 .....	61
첫 사과.....	62
영원한 사랑의 집 .....	63
무릉도원에 과일향기 넘치네.....	63
기대.....	64
청춘.....	73
인생.....	73
산속의 광부도시를 찾아 .....	74
희천의 강행군길 .....	76
스타인베크와 소설 《분노의 포도》, 《진주》 .....	77
셈벤 우스만과 단편소설 《칼자국》 .....	79

"

"

#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

김 만 영

파도치라  
기쁨이여 환희여  
굽이치며 설레이라  
행복의 물결이여 영광의 대하여

온 나라에 차넘치는 격정에 받들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여  
더 높이 열리라  
쏟아져내리는 해빛이여  
이 나라 이 땅을 더 밝게 비치라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를 변함없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는 끝없는 감격  
이 가슴을 끝없이 울렁이게 하여라

진정할길 없어  
울렁이는 이 가슴 진정할길 없어  
내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우리 수령님 환한 미소가  
하늘땅 가득 차넘쳐  
누리는 더더욱 찬란히 빛나누나

삼가 수령님을 우리르니  
태양의 그 미소속에 어려와라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대표자회 주석단으로 나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어버이수령님 념원을 활짝 꽃피우시고  
우리 당의 위업을 찬란히 빛내이시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마련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전환의 문을 여시고  
주석단으로 나오시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마다에선  
수령님의 발자욱소리 승엄히 울리어라

시대를 이끌고  
력사를 이끌고  
장군님 거룩히 옮기시는

발자욱마다에서 빛발친다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수령님과 함께 혁명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오직 수령님뜻대로  
민족번영의 무궁한 세월을 안아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불변의 의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시려는  
철석의 신념

지심을 뚫고  
마침내 용암이 솟구쳤는가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일제히 높이 드는 붉은 대표증  
터치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그 순간  
붉은 대표증을 어찌  
대표들만이 높이 들었으랴  
백두의 설한봉과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이 높이 들었다

조국의 한치땅을 목숨으로 지켜선  
천리방선의 병사들이 높이 들었다  
강성대국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이 나라 천만군민이 높이 들었다  
이 땅의 선군세월이 높이 들었다

위대한 그이를 모시고 살아온 그 나날에  
우리는 심장으로 절감하였어라  
장군님 걸으신 길이 바로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이요  
장군님은 곧 조선로동당임을

위대한 그이께서  
우리 당 수위에 높이 계심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공기가 있다는것  
우리 집 창가에 해빛이 따스히 비쳐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퍼진다는것  
강산에 행복이 파도쳐 설레이한다는것

축하를 받으시라  
찬란히 빛나는 로동당시대에  
혁명의 전환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

영광을 받으시라  
천만년 미래의 하늘가에  
우리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여

21세기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여  
심장으로 추켜들었던 붉은 대표증  
우리는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천년을 만년을 살며 투쟁하려니

향도의 손길이 펼친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그토록 기다려온 날  
그토록 소망된 행복  
하늘에 땅에 넘치도록  
심장으로 터치는 환희여 영광이여

세월의 한끝까지 받들고싶어  
인민이 한맘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우리 당의 총비서 **김정일**동지!  
우러를수록 북받치는 크나큰 기쁨은  
자랑높은 추억으로 더욱 빛나

우리 당 총비서로 그이 계시여  
조국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민족최강의 국력이 억년에 뻗친 땅  
세월의 눈비도 모진 광풍도  
우리의 강성대국행군로는 가로막지 못했거니

해와 달을 들끓이며  
강행군의 신들메를 더욱 조이신  
그이 헌신의 자욱따라  
두메라 벌방이라 그림처럼 일떠서는  
선경의 거리와 마을들  
이 나라 강하마다 기적같이 치솟는  
무수한 언제들

주체의 위성이 날르는 하늘아래  
금수강산 아름답게 수놓으며 물들이며  
구름처럼 피어나는 비날론숨이여  
폭포치는 주체철의 장쾌한 불보라여

내 나라 내 조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눈부신 위용으로 일어서리라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환희가 파도치는 내 나라 강산에  
수령님의 다정한 음성이 울려퍼진다  
—로동당시대는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더 번영할것입니다

아, 만수대언덕에 태양이 빛난다  
조국의 번영이 천추만대에 이어진것이 기쁘시여  
우리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우리 당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하신다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향도의 당  
영원한 영원한 로동당시대를 축복하신다

## 추                      때

김 남 호

파도치는 대계도간석지의 황금의 벼바다여...

우리 장군님 한평생 걸으시는  
열화같은 애국애민의 그 자욱  
만나주신 천만병사 용사가 되고  
품어안으신 천만인민 애국자되여  
이 땅우에 주렁지우는 천만복

더욱 푸르러지는 산밭이 말한다  
더욱 기쁨져가는 들이 노래한다  
더욱 환해지는 인민의 모습이 웨친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높이 더 충직하게  
**김정일**동지를 받들리라!

진정  
어버이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심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박은  
절대불변의 신뢰!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

들으라 강성대국 산울림마냥  
강산을 떨치는 이 환호성을  
인민의 내 나라를 더욱 빛내줄  
우리의 푸른 하늘 더 푸르게 펼쳐줄  
인민의 숙원 한몸에 지니신 그이 우러러  
**김일성**조선이 터치는 무상의 감격이다  
수령복을 타고난 민족의 끝없는 영광이다

# 우리에겐 당이 있다!

## 리 연 회

한없는 승엄함이 흐르는  
당대표자회 주석단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붉은 대표증들이 오르는 순간

나의 가슴을 터치며  
웨치고싶은 한마디  
—나에겐 당이 있다!  
우리에겐 장군님이 계신다!

내 어릴적  
어머니 품에 안겨 자랄 때  
그 품이 온 세상인듯싶어  
나는 자랑스럽게 불러보곤 하였다  
—나에겐 엄마가 있다

다 자라 어머니 품을 떠나서  
나는 청년돌격대원이 되었다  
붉은 기발과 함께  
돌기돌기 산악처럼 오르는 언제 우에  
진한 땀으로 입당청원서를 새기며  
내 안긴 크나큰 품

어이 잊을수 있으랴  
믿음깊이 나를 바라보던  
세포당원들앞에  
진정할길 없던 내 가슴의 벅차오름이여  
어머니의 손길인듯  
붉은 기폭이 이 몸을 감싸안아줄 때

마음속엔 울리고있었다  
어릴적 목소리 아닌

## 가 사

# 아 만 수 대 언 덕

## 정 은 아

낮에도 밤에도 인민의 마음  
그리움에 파도치는 만수대언덕  
한평생 주신 사랑 정녕 못 잊어  
고마움에 목메여 찾아오는 언덕이여

온 세상 모든 꽃 여기 다 피어  
사계절 꽃향기가 넘치는 언덕

조선로동당원의 목소리가  
—나에겐 당이 있다!

내 가슴에 산악처럼 자리잡은  
크나큰 궁지  
당이여 그대 안겨준 붉은 당원증을 지녀  
폭풍에도 그 나래 꺾일줄 모르는 수리개마냥  
천만시련 웃으며 헤쳐넘지 않았던가  
래일을 향해 신심높이 달려가는것 아니던가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진  
붉은 기폭의 자락을 당원증으로 간직한  
그대의 아들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승엄히 붉은 대표증을 드는 이 순간

어찌 대회장만이라  
주체의 붉은 쇠물이 끓는 용해장에서  
주체의 비날론이 쏟아지는 공도의 하늘아래서  
주체의 비료로 오탁을 익히는 풍요한 대지에서  
메아리쳐 울려오는 소리  
—우리에겐 당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이 계신다!

아, 위대한 우리 당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러러 뜨거운 환희의 가슴들  
궁지와 자부로 뉘뛰는 이 심장  
온 누리를 향해 웨치여라  
—우리에겐 당이 있다!  
우리에겐 위대한 장군님이 계신다!

인민의 념원이 물결쳐오는 곳  
인류가 우러러 찾아오는 언덕이여

강성대국 향하여 질풍처가자  
수령님 손들어 가리키시네  
장군님 받들어 대를 이어갈  
충정의 맹세안고 찾아오는 언덕이여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길림에서 3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일생에서 길림은 참으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할수 있다.

이 길림에서 나는 과학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리해하게 되었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슬픔과 분노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찌기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수난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의무감을 짊어놓았다.

길림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드립없는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었다.》

## 길 림 , 그 이 름 은

김 진 주

길림!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사무치는 그리움과 깊은 추억을 불러오는 곳  
귀중한 조국산천처럼 마음가까이에 자리잡은 곳

불어오는 바람결에도

수령님숨결 어려있고

미풍에 하느적이는 아름다운 꽃잎에도

수령님미소 비껴있어

장군님마음속에 떠난적 없는 고장

그 하많은 사연

그 하많은 이야기를 다 나누실듯

수령님 혁명활동 력력히 새겨져있는

길림으로 그 자욱 찍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마음은 뜨거운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한번 꼭 가보겠다 하시던

수령님 그 마음 그 소원을 안으시고

한자욱 또 한자욱

깊은 추억속에 걷고 또 걸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모습은

절세의 애국자의 모습이였어라

위대한 충정의 모습이였어라

그 어디 가시여도

그 무엇을 하시여도

오직 수령님만을 먼저 생각하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 다 바치시는

장군님의 열렬한 그리움은

동북땅 길림에도

소중히 새겨졌나니

진정

길림, 그 력사의 땅은

조국땅 멀리 이국에 있어도

우리 장군님 이어가시는 수령님력사속에

조종친선의 상징으로 영원히 새겨져있으리



# 압록강에 부치는 시

황 성 하

금빛해살을 물결우에 고이 품고  
반짝이며 뒤채이며  
용용히 굽이치는 너 압록강아  
기슭에 선 이 마음 수없이 두드리며  
그 무슨 속삭임에 끝없이 겨웠느냐

두 나라 정을 더 뜨겁게 이으시려  
우리 장군님 불원천리 다녀가신 자욱  
그 자욱 물결우에 새겨안고  
길길이 솟구치며 걱정애 넘쳤구나

강을 건너 지척인 동북의 산야  
투사들이 흘린 피 꽃으로 피어나고  
혈전의 자욱 력력한 땅  
그 땅에 꼭 한번 가보시겠다면  
우리 수령님의 념원안고  
압록강을 넘으신 우리 장군님

광활한 동북의 풀과 공기 마시며  
나라를 찾는 광복의 길에서  
중국혁명을 도우신  
우리 수령님의 그 성업  
두 나라 수령이 굳게 잡은 손으로

가 사

온 세상에 소리높이 보여주셨나니  
  
아 우리 장군님  
수령님 쌓으신 그 업적  
수령님 한생애 념원하신 그 뜻  
그것이 너무도 고귀하시여  
압록강 푸른 물결 수없이 넘나드시며  
조종친선의 무지개 더 령통하게 엮으셨나니

그때문이여라  
불어오는 강바람에 나무잎 날려도  
형제나라에서 보내는 정과 같고  
후더운 두손이 맞잡은 물결우에  
별들이 다투어 내리는것은...

물은 말이 없다 누가 말했던가  
압록강 력사의 강아  
너의 물결우에 위인의 자욱 떠올린  
너의 환희애 넘친 웨침소리  
나는 듣는다  
큰뜻으로 굳게 이은 조종친선은  
너처럼 너처럼 영원하다고

# 사회주의무릉도원 나의 고향아

조 영 일

푸르른 대동강 감도는 기슭에  
그림같은 과원이 아득히 펼쳐졌네  
장군님 마음속에 안고가신 내 고향은  
열매속에 향기속에 젊어지는 고향이라오  
아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맺는  
사회주의무릉도원 나의 고향아

백학이 내렸는가 추녀높은 마을엔  
과일향기 넘치니 행복애 가슴젖네  
장군님 이사집을 풀어놓고 살고싶다신

궁궐같은 새집마을 우리 사는 고향이라오  
아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맺는  
사회주의무릉도원 나의 고향아

인민이 오랜 세월 그려본 리상향  
선군시대 자랑으로 이 땅에 빛뿌리네  
백과열매 향기속에 만복이 무르익는  
사회주의선경마을 이 세상에 으뜸일세  
아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맺는  
사회주의무릉도원 나의 고향아



## 주 제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문학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작가가 창작한 문학작품만으로는 문학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선구자이며 믿음직한 작가후비이다.》  
《문학통신원들은 오늘의 벽찬 현실을 직접 창조하고있는 생활의 주인공이며 낡은 창작경향에 물들지 않은 신진창작력량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현실생활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것을 대담하게 들고나올수 있다.》

## 나 는 이 밤 을 샌 다

김 명 철

창을 열어젖히니  
저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못별들은  
나를 반겨 웃는듯  
고진강쪽에서 싱그럽게 불어오는  
들바람조차 그지없이 달구나

마음갈아서는  
우리 집 우리 거리 정든이들과 함께  
어디든 끝없이 걷고만싶은 지금  
북받치는 걱정을 녹쫓힐수가 없어  
내 한껏 그러안고 속삭이는 밤이여!—

어찌 알았으랴, 바로 오늘  
여기 락원땅에 또 오신 장군님  
자신께서 스물여섯해전에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 여덟명 당원들을 불러주실줄이야

이제는 나이가 지나  
종업원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홍남에 보내야 할 대형산소분리기  
그 심장부를 맡아해내느라  
정말 수고들을 많이 했다고

이 여덟명 당원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라고  
바로 이런 당원들이 있어  
우리 당이 강해지고 조국이 번영한다고  
분에 넘치게 치하해주신 그이

우리들을  
자신의 곁에 세우시여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해갈  
귀중한 사랑까지 안겨주시었나니

아, 정녕 우리가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으랴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주신 장군님  
그 크나큰 은덕에 보답을 하자고  
조금이나마 예를 써왔을뿐

하지만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  
자신께서 베푸시는 하늘같은 그 사랑  
바치시는 로고는 다 잊으시는분  
그저 마음뿐인 우리 락원사람들을  
영광의 절정우에 올려세워주시나니

너무도 가슴벅찬 행복에 겨워  
두볼을 적시며 줄줄이 흐르는것을  
씻을념도 없이 창가에 서서  
나는 지금 별을 향해 마음의 깃을 편다  
들바람을 마시며 가슴을 뽐인다

나라의 령도자를 잘 만나  
우리처럼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이 떠받들리는 이 좋은 땅에서  
심장을 애국열로 더 불태우고저  
나는 샌다 이밤을 지새운다!

장 시

## 김 일 성 광 장 에 서

김 형 준

내 오늘 붓을 들어  
확신에 넘쳐 노래하노라  
이 땅에 반드시 오고야말  
강성대국의 그날 온 나라 인민이  
울고웃을 광경을 그려보며  
내 환희에 넘칠 **김일성**광장을 노래하노라

우리 얼마나 열망했던가  
그 열망이 꽃피난 2012년이여  
우리 얼마나 즐기치게 달려왔던가  
애국과 헌신의 2012년이여  
이 땅에 천만리상이 꽃피난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린 2012년이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자들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과  
조선로동당 총비서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환호 올리며 들어서는 **김일성**광장

한전선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한 나날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된 사람들이여  
낯선이 한사람도 없는 승리자의 광장  
오지 못한이 한사람도 없는 삶의 광장

통성이 무엇에 더 필요되랴  
가슴에 꽃송이들  
강성대국건설대전 전승메달을 대신하거니  
함흥과 회천 강선과 성장...  
미곡과 동봉...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아버이장군님께 기쁨드린 사랑을  
기쁨의 눈물 가슴의 혼장이 말해주는  
오, 승리의 광장 **김일성**광장이여

×

그러만 보아도 가슴벅찬  
그날이 오늘 이 시간인듯  
눈앞에 펼쳐지는 그날의 광장이여  
4월의 봄향기에 젖은  
행복의 밀물인가 꽃바다의 파도인가  
광장으로 노래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모습

행복이 뿜이냐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 행복은 우리  
...

너희들 그 노래의 참뜻 다 알기나 하느냐  
너희들 자욱자욱 꽃잎 밟고 오는 그 길이  
우리 장군님 낮이나 밤이나 걸으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철령의 얼음길이  
행복한 그 길로 열려졌음을

너희들 어찌 다 알랴  
그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찻던가를  
행복을 공기처럼 숨쉬고  
사랑을 해빛처럼 받으며 자란 너희들  
아직은 다 몰라도 좋다  
철이 들어 알면 더 깊이  
더 오래 기억되는 법

어머니의 젖맛은  
돌이 되면 물리고 잊어도  
한생토록 물리지 않고 잊지 못할  
콩우유 간식을 때맞춰 먹고 자란것을  
타고난 복으로 아는 너희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너희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자신들의 평생은 너희들을 위한 평생이신듯  
너희들을 금옥처럼 아끼시였거늘  
너희들은 강성대국의 영원한 왕이 되리

마치 노래당이 춤당이 행복당이 굴러오듯  
뽕박질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아  
내 너희들에게 말하여주마  
행복이 무엇인가 그 누가 물으면  
이렇게 소리높이 대답하여라  
행복은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 품  
행복은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품  
이 말은 행복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다  
이 말은 조선이 찾은 력사의 진리이다

×

어데서 울려오는 천둥소리인가  
어데서 번쩍이는 번개의 섬광인가  
지축을 울리며 들어서는 병사들의 발걸음소리  
번개를 날리며 들어서는 혼장의 금물결

아 천만대적도 짓차던 발걸음  
총탄도 뚫지 못할 철옹성가슴들이  
금지높이 들어서는 **김일성**광장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일당백강군으로 자라난 불패의 대오  
**김일성**광장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대오우에 나뭇기는 군기들  
그 군기의 붉은 하늘우에 성좌마냥 빛나는  
오 원수벌 찬란한 최고사령관기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모두 맡아나선 영광의 대오  
이 땅의 평화도 무궁번영도  
그대들 있어 담보되기에

우리 장군님 손들어 축복하실 때  
그이를 우러러 터치는 조선의 신념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하늘땅에 넘치는 조선의 맹세여

그 모습 그려보는 내 눈앞에 어려온다  
꽃피는 4월의 봄날  
이깁술 설레던 안도의 봄언덕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상  
전승의 열병광장에서  
전승을 축하하시던 수령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이시여라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얼마나 추억이 많으셨으랴  
불패의 혁명강군 키워오시던 간고한 나날...  
칠령과 오성산 초도의 배길과 안변의 물길줄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눈물겨운 화폭들과 귀에 쟁쟁한  
그들의 목소리도 오늘 들으시리

우리 장군님 그들의 모습 추억하시리  
미제의 간첩비행기 단방에 쏘떨군 병사  
적후에서 단신으로 원쑤대적과 싸워  
장군님품에 안긴 애어린 병사들  
대덕산의 일당백초소의 병사들  
감나무중대 들꽃중대 녀병사들  
그대들은 이 땅의 만복의 창조자이며 수호자  
강성대국 기둥이며 대들보  
우리 장군님 품어키운 불패의 혁명무력

온 나라가 따라배우는 정신은  
그대들이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  
온 나라 인민이 따라부르는 노래는  
그대들이 선창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그대들이 가는 길은 사생결단의 길  
그대들을 따라가는 길은 화창한 봄날

여기 승리의 광장으로 향한 길은  
얼마나 간고하였던가  
총대로 강성대국리정표를 세우고  
총대로 열어온 길에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한  
선군혁명동지의 값높은 삶을 빛내온 그대들

어서 들어서시라  
군가에 발을 맞추어 보무당당히  
그대들은 우리 장군님 키운 무적필승강군  
그대들은 우리 인민의 장한 아들딸  
어제도 오늘도 그대들 노래는 변함없구나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그렇다 조국은 곧 장군님이시거늘!...

×

가슴에 넘치는 환희여 기쁨이여  
서리발 넘치는 조선의 기상 안고  
광장에 들어서시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  
가슴에 훈장은 오늘에 제멋이구나

몰라보게 변했구나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잘 먹이지 못하여 제일 가슴아프다 하신 세대  
오늘은 거인의 모습 떨치는 너희들을 보니  
눈물난다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의 그 나날 우리 장군님  
자강도 이름없는 길가집  
싸늘한 부엌에 들어서시여  
가마에 골숨한 강냉이죽을 보시며  
가슴속에 피눈물 떨구실 때

—아버지장군님!  
우리 집에 쌀이 많습시다  
제가 죽을 먹구싶다고 하여  
엄마가 쑤어준 죽입니다...  
하여 우리 장군님 끝내 참으시던  
걱정의 눈물 터뜨리게 한 그날의 소녀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장군님의 아픔이 되신줄 모르던 소녀  
철이 들어 그것이  
장군님의 아픔이 된줄 알았을 때  
용약 총잡고 초소에 섰던  
자강땅 그날의 어린 소녀가

이제는 강계미인이 되어 들어서는 광장

지축을 뿡뿡 울리며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발걸음 더 크게 더 높이 울려라  
땅이 꺼진들 무슨 대수랴  
우리는 우주에 이보다 더 큰  
우리의 행성도 건설할  
무진막강한 배짱과 담력있거니

움직이는 성새인가  
위훈많은 방패인가  
장군님 품어키우신 진주보석들의 거세찬 흐름  
훈장과 메달이 눈부신 가슴가슴은  
희천과 원산 안변과 삼수...  
산악같은 발전소를 안고오는 불의 가슴  
주체철용광로를 안고오는 철의 가슴  
주체숨 비날론을 안고오는 비단가슴  
온 나라 농장벌을 안고오는 비료가슴

광장에 울리는 너희들의 발걸음은  
이 땅우에 만풍년의 생명수  
수천만리 물길을 이끌어온 걸음  
예지로 불타는 너희들의 눈빛은  
인공지구위성 하늘높이 떠올린 탐구자의 눈빛  
너희들의 모습은 위훈의 력사  
너희들의 행진은 력사의 대행진

너희들이 바라고바라던 그날이어서  
너희들 꿈에도 들어서던 강성대국광장이어서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이 늦어진다고  
그 길에서 아버지장군님 기다리신다고  
돌과 흙짐을 이고지고 달리던 그 나날

그 나날의 땀젖은 작업복도  
백번 우르내도 천년을 퇴색치 않을  
돌격대의 붉은 기발도  
모지라진 함마도 정대도 맞들이도  
강성대국건설대전  
투쟁의 증거물로 빛을 뿌리려니

오, 너희들만 광장에 왔다고 생각지 말라  
리수복영웅도 조군실영웅도...  
길영조영웅도 김광철영웅도...  
너희들과 함께 들어서는 광장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생은  
장군님품속에서 영생하거늘  
그대들의 상봉 력사가 지켜보리

×

궁지높이 들어서시라 로병들이여!  
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세대

이 땅에 천리마를 불러온 세대  
우리 공화국의 산 력사로 사랑과 존경받는 세대  
혁명과 건설의 나날 낮과 밤을 모르며 살아  
그 나이에 백년을 더 산 불굴의 세대들  
락동강 불모래 털지 않은 군복과 군화차림으로  
승리의 광장에 들어서시라

그 군화 그 군복차림으로  
전후 재더미를 헤치던 나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 하신  
수령님과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가 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로병들이여

장군님따라 주체시대를 빛내가던  
보람찬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청춘시절을 전투복속에 흘려보낸 세대들  
수령! 그 품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혁명! 그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삼으며  
고생! 그것을 래일의 락으로 여기며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고생도 많았던 세대들  
끝날같은 이 나라 젊은이들 보며  
—아 고생끝에 락이 온다더니!...  
감개무량히 젊은이들을 앞세우고 궁지높이 들어  
서시라

오늘을 위해  
청춘도 행복도 서슴없이 바친 그대들을  
승리의 광장은 기다리거니  
인민대학습당 높은 처마아래 시계가  
강성대국 새 력사를 만태엽하고  
《김일성장군의 노래》장중한 선율로  
사회주의강성대국 조선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 시각부터  
우리들은 강성대국의 첫 공민이 되리

×

춤바다 꽃바다 펼치며 들어서는  
내 조국의 녀성들이여  
어제날 기쁨도 고생도 많았던 우리의 녀성들  
울밀에 봉선화는 아득한 옛날  
그대들은 이 나라의 자랑

그대들을 불러 우리 장군님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녀성혁명가  
최고사령부작식대원이라 하시였거니  
이보다 더 높은 칭호 무엇이라

궁지높이 들어서시라  
속깊고 인정많은 우리 녀성들이여

이 광장에 남편과 자식들을 세우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나날 풀죽을 끓이면서도  
신념의 일편단심 변함없던 여성들이여

쌀독에 쌀이 넘치는 집  
방안에 행복이 넘쳐나는 집  
주름많은 그 손이 무슨 흠이라  
우리 장군님 다 아시는 귀한 손  
나라의 딸딸 맡으며느리의 후더분한 손

하지만 녀인들이여  
그것만은 잊지 말고 간직하시라  
모든것이 남아서 남을 생각했던가  
모든것이 흔해서 맘도 컸던가  
피로움도 모자람도 그 마음속깊이에 심고  
오늘의 이날을 위해 가꾸고 꽃피워온  
외유내강의 귀한 꽃씨앗  
생활이 흥할수록 더 깊이 심고 가꿔야 함을

그 나날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그대들을 떠난 행복과 기쁨은 없으리  
건설자남편따라 탄부애인따라  
정은 고향과 부모를 떠나 살면서도  
강성대국문폐 빛나는 큰집 처마아래  
자신들의 행복한 요람이 있음을  
심장속 깊이 간직한 여성들

그대들의 남편과 애인들이  
강줄기 막아 산악같은 언제를 쌓았다면  
그 언제에 설레이는 산중 바다는  
그대들이 남편과 애인위해 바친 사랑의 바다  
그대들의 남편과 애인들이 안아올린  
간석지벌에 설레이는 풍요한 황금이삭은  
그대들의 남편과 애인들이  
그대들에게 안겨주는 사랑과 감사의 다발

참으로 녀인들은 사랑과 정의 무한한 호수  
헌신을 천품으로 여기고  
명예와 보수에는 인연이 없어  
낳은 자식 열이면 모두를 키워  
인민군대로 보내는것을 최대의 락으로 삼기에  
그대들의 제일행복은 군인의 안해  
그대들의 제일자랑은 후방가족어머니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때도 그저 한마디  
—너희들은 오늘부터 장군님의 군대  
나라의 아들딸임을 잊지 말아라...  
한생 이날 이 말을 위해 살아온듯  
이 말밖에 다른 말은 모르는듯  
아 이런 녀인들의 심혼이 빛나는 조국이어

풍작이룬 벌과 공장 출근길...  
화려한 옷차림과 교정의 글소리...

화목한 이웃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그대들의 마음 닿지 않은것 어디 있으랴  
그래서 우리 《우리 집 사람》노래부르며  
광장의 높은 자리에 그대들을 맞이하노라

×

내 강성대국 그날의 그밤을 그려본다  
평양의 밤  
광장의 밤  
마치 밤이 없는 나라 여기에 있고  
밤을 모르는 사람들 이 나라에 사는듯  
춤을 추며 노래부르며 밤을 즐기는  
조선의 밤 환희의 밤이어

이 땅의 이런 행복한 밤을 위해  
우리 낮도 밤도 없이 일해오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날의 이 밤을 위해  
우리는 혁명의 백야속에 살았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생각하며  
우리 장군님 걸으신 선군장정의 수억만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다 말해주거니

오 가슴뜨거운 추억을 안고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라  
우리의 노래는 혁명의 숨결  
우리의 춤가락은 건설의 물동  
억세게 틀어잡은 손과 손들은  
비날론폭포 주체칠폭포 주체비료폭포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운 근로의 손이다

마음껏 노래부르고 춤을 추어라  
항일의 진격의 나팔수  
혁명군가를 불러주는 광장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반만년력사가  
금빛대문 열고 나와 그대들과 상봉하는 광장

밤하늘의 축포에 어려오누나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항일의 녀투사의 모습도  
항일의 전장에서 추켜든  
수령결사옹위의 나팔  
오늘도 내리지 않은 7련대의 모습도

항일의 혈전만리 피어린 나날의 선렬들  
어찌 우리결을 떠났다 하라  
보라 손에 손잡고 돌고도는 료무속에  
항일혁명선렬들 모습 보이누나  
전화의 불비속에서 위훈떨친  
유명무명 영웅들 모습도 보이누나

오 수령님따라 장군님따라 천만리길에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바쳐온 길은  
강성대국의 **김일성**광장으로 잇닿은 길이였거니  
그 길에서 누가 우리결을 떠났단 말인가  
그 길에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친이  
모두 찾아와 이 행복 이 기쁨 마음껏 누리는  
강성대국 **김일성**광장이여

축포여 밤하늘의 축포여  
너는 밤하늘에 새겨진 황홀경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 빛나는 력사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위업의 빛발  
인류가 영원히 이고살 하늘가에  
낮이나 밤이나 지지 않는 불멸의 은하거니

가자 조국이여 인민이여  
태양의 미소 환히 지으신 우리 수령님  
만족의 미소 환히 지으신 우리 장군님  
어서 오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광장  
어서 오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광장  
강성대국 2012년 경축광장  
그날의 **김일성**광장으로 어서 가자!

x

내 강성대국 그날의 **김일성**광장  
그날이 오늘 이 시각인듯  
확신에 넘쳐 노래한 시인  
그러나 이 행복 천대로 이어지고  
이 기쁨 만년에 닿아어도  
그것만을 순간도 잊지 말자

인민을 위해 이 땅에 오신분  
인민을 위해 태양이 되신분  
헌신과 사랑이 천품이 되셨기에  
인민의 마음속에 삶의 좌표 정하시고  
인민의 행복에 삶의 표대 세우신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천만로고

이민위천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제와 오늘 래일의 조선의 력사가 되고

애민헌신의 장군님사랑이  
이 나라의 영원한 사랑이 된  
위대한 애국 애민 애족의 력사를 떠난  
사회주의강성대국 조선이 없거늘  
어찌 순간인들 그 위업 잇을수 있으랴

잊지 말자 그리고 또 간직하자  
주체철쇠물이 바다를 이루고  
비날론비단이 강토를 뒤덮고  
산과 들에 오곡백과 설레는 세상  
모든것이 흥하고 부러움없어도  
몸에 땀 총기름내  
손바닥에 깊이 박인 총못  
그것이 가서지고 뿔혀지면  
우리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거니

바라고바라던  
강성대국의 그날이어서  
일할수록 흥겨운 일터에서 일하여도  
우리 부르는 《강성부흥아리랑》노래와 함께  
강성대국 지켜갈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을 지켜가자

시인은 언제나 래일에 사는것  
오늘의 이 노래 이어  
또다시 시작될 강성대국 그날의 나의 노래는  
그 얼마나 환희에 넘칠것인가  
허나 가슴젖는 시인의 마음이어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  
강성대국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또다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걷고계시려니

오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여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에 발걸음 맞추자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이 시각도 초강도강행군길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2012년 강성대국 그날을 앞당겨오자  
**김일성**민족의 긍지높이  
**김일성**광장에서 우리 만나자!

## 상 식

### 기억력과 감기

일반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기억  
력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뼈마디가 쭈시는것은 감기  
비루스가 중추신경을 자극하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수와 체내기관

들사이의 지령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기억  
력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감기때 머리아픔이 지속되는것을 그냥 놔두면  
기억력이 감퇴될수 있다. 따라서 감기라도 소홀  
히 대하지 말고 제때에 치료받아야 한다.



# 나의 희망 별하늘

김 경 일  
그림 김 광 석

## 1

산협에 서린 은빛의 안개발을 헤치며 뿔차는 어 느덧 동해선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못 잇을 그 누 군가를 목매여 부르는듯 한 맑고도 은은한 기 적소리...

푸른 물결에 산뜻이 미역을 감은 아침해가 멀리 동쪽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수평선우에 등실 떠오르고있었다.

신혁은 싱그러운 해풍이 불어드는 차창에 얼굴 을 맡기고 꿈결에도 그리웠던 고향의 향취를 마 음껏 마셨다. 유년시절의 발자취가 곳곳에 어 려있 는 마을이며 거리거리들, 청춘의 러명기에 아름 지 게 쌓아올렸던 모험찬 계획들과 애초에 다는 이 루어질수 없었던 크고작은 꿈이 안개처럼 내려앉 은 바다가의 하얀 모래불이며 푸른 솔숲의 갈 래많은 오솔길들...

그가 다니던 공예품공장도 솔숲이 우거진 그 바 다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신혁은 마음의 목소리로 청을 다해 웨쳤다.

(그리운 반장동지! 잊을수 없는 나의 동무들! 제가 왔습니다. 작업반의 막내였던 신혁이가 왔습 니다!)

공장을 추억할 때면 제일선참 석남반장의 모습 이 떠오른다. 온 나라에 알려진 유능한 공예사였 다. 오래전에 그가 창작한 나무조각 《목도품》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바지저고리를 입은 꿈이 호방한 너털웃음을 웃으며 묵직하게 목도를 메고있다. 한 바구니엔 팔뚝같은 잉어가 가득 담기고 다른 바구니엔 갖 가지 과일과 남새가 넘쳐난다. 저고리고름은 바람 에 흩날리고 바지가랭이는 옛날 조선농민들처럼 무릎까지 걷어올렸다. 허리춤엔 호미가 었비듬히

질러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적인 향취가 넘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박물관에 전시해도 손색이 없 겠다고 치하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전통적인 민족공예의 대 를 굳건히 이어가고있는것이 장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말씀을 받아안은 석남 반장은 온 심혼을 다 바쳐 많은 기능공들을 키워 냈다.

그중에서도 그의 총애를 제일 극진히 받은 수제 자가 바로 신혁이였다.

그가 공장을 떠나 보람찬 군사복무를 마치고 미 술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여러해가 걸렸다. 지금 옛 공장의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배치받아오는 신혁의 마음은 하늘을 날듯 부풀었다.

(반장동지는 어떻게 지내고계실가. 헤어질 때 때를 쓰며 울던 옥진이는?)

석남반장이 그리울 때면 여불없이 그의 외동딸 옥 진이의 생기발랄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이 떠오른다.

석남은 옥진이를 장차 공예사로 키워 자기의 대 를 물려주려는 꿈을 품고있었다. 그래서 공예의 기초인 미술공부를 신혁에게 일임했었다.

그러나 신혁은 언제 한번 옥진이의 그림숙제를 제대로 받아내본적이 없었다.

소녀는 갈데없는 사내버지기였다. 방학철엔 해 종일 뛰놀다가 작업반실에 참새처럼 포르륵 날아 드는것을 보면 시내에는 없는 도꼬마리씨며 가막 사리풀이 치마말기에 잔뜩 붙어있군 했다. 머리결 은 빗을 대본 흔적도 없이 만초마냥 뒤엉키고 까 못까못 주근깨가 박힌 얼굴은 별발에 그슬려 늘 가무잡잡해보였다.

그래도 신혁은 친오빠처럼 따르는 옥진이가 귀 업기만 했다. 언제나 생기롭게 깜박이는 오목진



눈이며 도도룩한 앵두빛입술의 숨찬 지저귀임... 어느 여름날 전에없이 풀죽은 모습으로 옥진이 작업반에 들어섰다.

조각에 여념없는 신혁의 뒤전에서 한참이나 발끝을 허비던 그가 문득 절망적인 속삭임으로 물었다.

《신혁오빠... 나 진짜 뭉게 생겼나?》

잠시 어안이 병병해졌던 신혁은 그만에야 폭소를 터뜨렸다.

지꽃은 사내애들이 끝내 옥진이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헤집어놓은것이 분명했다. 분결같이 뽀얗고 말쑥한 체포래 소녀애들에 대한 은근한 부러움과 질투를 남몰래 품고 이따금 버들피리 불듯 한숨을 내쉬던 옥진이었던것이다.

몇번 코물을 들이키던 옥진이가 슬프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뒤늦게 실책을 깨달은 신혁이 급기야 소리쳤다.

《우리 옥진이가 어디 뭉게 생겨!》

마침 뼈람에 사과 몇알이 있어 쥐여주며 달래보았으나 허사였다.

《참 옥진아, 처녀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닮는데. 이 사과 좀 봐, 얼마나 곱구 탐스럽나.》

이것은 신혁이 얼결에 꾸며낸 말이었는데 얼추 던진 돌이 우연히 굴뚝에 명중하듯 쏙하니 옥진이의 귀속을 파고든 모양이었다.

그는 차츰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싸쥔 손가락잡으로 빠끔히 신혁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별안간 쨍싸게 사과를 나누어채더니 언제 울었느냐싶게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사박사박 먹어치웠다.

그때부터 옥진은 때없이 날아들어 《오빠야, 나 사과.》 하며 졸라대곤 하였다.

그런데 옥진의 생활에 점차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사달은 신혁이 휴식참에 보던 민화묶음책에서 났다. 흥심없이 도깨비 기와장 번지듯 후룩후룩 책장을 뒤적거리던 옥진이 별안간 책에 심취된것이다.

그림그리기와는 달리 독서열은 한번 일자 불길마냥 타번졌다. 해가 바뀌어도 그 열기는 좀체로 꺼질줄 몰랐다. 검질긴 성화에 못이겨서라기보다 새롭게 달라진 옥진이가 너무도 신기하고 대견해 신혁이 구해다준 책만 해도 아마 키를 넘을것이다.

드디어 이상효과가 나타났다. 처음엔 자의대로 문학소조에 가입하는것으로 아버지며 신혁을 놀래우더니 얼마후엔 학교적인 글짓기경연에서 단연 1등을, 다음달에는 시적으로 진행한 경연의 시와 산문부문에서 모두 1등을 하는 놀라운 일을 빚어냈다. 심사교원들과 전문가들은 오랜만에 보기 드문 문학신동이 나왔다고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엔 실망하고 어이없어하던 석남반장도 그제

야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느 하루 퇴근길에 석남이 옥진의 어깨를 감싸 쥐고 걸으며 은근히 자랑기가 엿보이는 어조로 신혁에게 말하였다.

《네 보기에도 우리 옥진이가 많이 달라졌지? 팬잖아, 애꾸러기인줄로만 알았더니 그런 천성이 있을줄은 몰랐거던. 허...》

신혁은 어쩐지 옥진이의 경우가 자기와 신통히도 비슷하게 여겨졌다.

신혁의 아버지는 판록있는 유화전문화가였다. 그도 외아들인 신혁에게 한생의 꿈을 걸고 그림공부를 시켜오고있었다. 중학교 미술선생도 신혁에겐 짝이 있다며 열성을 기울여 그를 가르쳤다. 그런데 신혁은 그림그리기보다 진흙빛기나 립체모형만들기와 같은 장난에 더 열중하곤 했다. 그림은 어쩐지 따분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일생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면 어쩐지 마음이 싹뚱해지곤 했다.

지금은 헌칠하고 균형잡힌 체격이지만 중학교졸업당시에 키가 작아 인민군대에 입대할수가 없어 그는 당분간 사회에서 직업을 택해야 했다. 시로동파에서 그를 공예품공장에 배치한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필연이라고 할지. ...

그의 남다른 재능의 싹은 조각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익히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점차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키지 않는 그림을 배울 때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열정과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석남반장은 조형감각이 뛰어난 그를 손안의 구슬처럼 귀해하고 아껴주고 이끌어주었다.

한해두해 보람차게 흐르는 나날에 그의 몸과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마침내 신혁은 조각칼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수 없을만큼 여기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가슴뿌듯한 자부심속에서 3년세월이 물결같이 지나갔다. ...

차마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꿈이었으면! 유년시절 잠결에 가위눌렀다가 소스라쳐 깨어나던 때와 같이 허망한 꿈이었으면!...

사무친 그리움과 기대를 안고 찾아온 석남반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몸이었다. 몇해전 년로보장나이가 지나서도 공장에 나와 공예사들을 키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던 그가 급기야 쓰러졌다고 한다. 이미 때늦은 난치의 병이었다는것이다.

한작업반에서 형제처럼 화목했던 정희가 신혁을 불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돌아온걸 반장아저씨가 보았으면...》

신혁은 비어있는 석남반장의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추억속에 누구보다 소중했던 사람...

그가 없는 공예품공장을 언제 한번 상상해보지 못했던 신혁은 망연자실하여 한동안 주위를 잊고 묵묵히 서있었다. ...

수첩을 든 한 처녀가 작업반에 들어서다말고 주춤 문가에 멈춰서는 바람에 신혁은 뒤엎킨 생각에서 벗어났다. 어딘지 낮아보이는데 지나친 심리적부담으로 하여 인차 알아볼수가 없었다.

빛같이 선명한 처녀의 눈에 반신반의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신혁의 누이별 나이인 정희가 젖은 눈굽을 훔치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못 알아보겠니?... 옥진이지 않니. 지금 우리 반장이야. ...》

신혁은 한순간 얼퍼름해졌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사람의 모습이 몇번이고 변한다지만 처녀에게선 그 옛날의 가무잡잡하던 흔적이란 씻은듯, 부신듯 찾아볼길이 없었다. 땀시나게 어깨너머로 흘러내린 탐스러운 머리태, 상아처럼 희고 반듯한 이마, 상큼한 코날... 눈매도 달라졌다. 호심처럼 깊어보이는 두눈에선 남다른 사색과 상념의 푸른 물결이 고요히 출렁이고있었다.

신혁은 이끌리듯 다가갔다. 여전히 산란한 마음의 빛을 숨기지 못한채 처녀가 이윽히 신혁을 지켜보고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오빠처럼 따르던 소녀시절의 생신하고 청량한 불꽃은 찾아볼수 없었으나 신혁의 마음은 하냥 부풀어올랐다.

《정말 옥진이가 맞아?... 나 신혁이요!...》

처녀는 붓끝처럼 속눈썹이 휘어진 눈가에 애써 미소를 떠올리며 나직이 말했다.

《뜻밖이에요. ... 몰라볼번 했어요. ...》

신혁은 뚫어지게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옥진이, 일이 이렇게 될줄은... 힘껏 달음쳐오나라고 했는데...》

처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미소가 사라졌다. 고개를 돌린 처녀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입속말로 나직이 뇌었다.

《되젠 빨랐군요. ...》

말뜻은 아무래도 좋았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너무도 귀에 익고 너무도 서먹한 목소리였다. 행복한 시절의 추억속에 살아숨쉬던 열정의 소녀는 가뭇없이 사라졌어도 신혁은 다시 돌아올길 없는 소중한 사람의 체취가 부지불식간에 느껴지는 그 목소리를 한없이 듣고싶었다.

정희가 다가와 나무람하듯 말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 반장부터 기분을 좀 내렴. 아이때 보군 처음인데 지내 어른스럽게 구니까 신혁이가 몸돌바를 모르지 않니.》

처녀는 쓸쓸히 웃었다.

《제가 뭐 어쨌어요?》

그리고는 신혁을 에돌아 작업대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늘 석남반장이 앉곤 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옥진의 모습에 자꾸만 옛 반장의 얼굴이 겹쳐져 신혁은 괴롭게 두눈을 감아버렸다. ...

중년의 낯선 지배인은 신혁에게 기술준비실열쇠를 넘겨주며 한시름 놓은듯이 말했다.

《손잡고 일해봅시다. 애는 쓰는데 현재 공장형편이 시원칠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전하는 문화적기호를 우리가 제때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소. ...》

비어있던 기술준비실에 들어온 신혁은 열어젖힌 창가에 기대여서서 갈피없는 고뇌에 잠겨들었다. 눈부신 석양은 창문으로 엿비듬히 비껴들어 하얀 벽에 무늬고운 색깔로 아롱지고 봄저녁의 명주바람은 상긋한 해초내와 함께 산들산들 불어들며 코끝을 간지럽히건만 신혁의 마음은 서글펐다.

청춘시절의 첫 기슭에서 그가 겪은 가지가지의 소중한 사연들은 하나와 같이 석남반장과 얽혀진 것이었다. 저멀리 흘러간 그 시절의 버들피리소리는 마음 몽글하고 짜릿한 음향으로 또다시 추억의 숲속에 스며든다. 아직은 조각과 공예의 미묘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다는 알수 없었던 애젊은 시절...

신혁은 나무조각 《고기 문 곰》의 마지막 털질감작업을 끝내가고있었다.

먼지같이 미세한 칼밥을 후후 불어내고나서 성공에 대한 확신과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며 새 완성품을 석남에게 내밀었다.

석남은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곰은 잉어를 로획한 기쁨에 넘쳐있어. 목덜미털은 약동의 기운으로 부풀어야 하구 잉어는 살아서 푸들쩍거려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뻗뻗하구 무표정해? 동물조각에선 기본이 운동감이란걸 몰라?》

재빨리 속사철을 끄당겨 석남은 물살을 거슬러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큰 입으로 덥석 물어챈 곰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보였다. 그리고는 신혁이가 깎은 곰의 입에 물린 잉어를 큰 조각칼로 단번에 몽칭 베어버렸다.

신혁은 망가진 제품을 아깝게 바라보았다.

《난 견본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석남이 날카로운 어조로 그의 말을 무질렀다.

《낚은 견본은 무시해! 넌 모방단계가 지났다. 모든걸 창조적으로 해라.》

같은 조각이라고 해도 나무조각은 진흙조각과 일련의 차이가 있다.

진흙조각은 떼여내고 붙이면서 재가공할수 있으나 나무공예는 단 한번의 실수도 허용치 않는다. 일단 칼로 베여내면 다시는 붙일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목각공예사는 전반적구도에서 세부에 이르기까지를 통일적으로 표상하는 보다 뛰어난 립체감각을 가져야 하며 매 조각칼의 묘리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있게 칼을 댈수 있는것이다.

석남의 엄격한 요구와 부단한 반복훈련으로 신혁은 신비한 조각의 묘술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갔었다. ...

어느새 창밖엔 검푸른 안개마냥 어둠이 내려앉았다. 유난히 투명해보이는 저녁하늘에서 아직은 희미한 애기별들이 소리없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반짝 빛났다가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깨어나 더 밝은 빛을 내려고 피타게 모지름을 쓰는듯 한 별들의 씩씩한 반짝임을 신혁은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어느날 저녁 퇴근길에 나란히 바다기슭에 서서 석남반장과 별 많은 하늘을 바라보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별하늘 멀리에서 은은한 채광과 함께 흘러내리는련상의 흐름에 실려와 신혁의 귀전을 울리는 웅글은 목소리...

《저 밝은 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난 이 세상 어디서나 다 보인다는 점에서 별이 참 좋아. 인간의 삶을 별에 비기는것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진짜로 별처럼 산다는게 쉽질 않거든. 만사람이 다 보도록 빛을 뿜는다는게...》

눈곱이 달아올랐다. 가슴속 심연에서 뜨거운 불뭉치가 불끈 치밀어올랐다.

(왜 가셨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공장을 떠나지 않겠다면 약속은 어떻게 하고 왜 벌써 가셨어요!... 저에게 기울여주신 그 사심없는 마음에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온넋을 바친 그 무수한 낮과 밤들에 자랑과 긍지를 가득가득 채워 돌려드리고싶었는데...) ...

신혁의 절절한 마음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기울이며 먼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깊은 명상에 잠겨 말없이 반짝이고있었다. ...

## 2

아침 첫시간 신혁은 기술준비실을 지나쳐 목각작업반의 현장에 남면저 들어섰다. 작업대우엔 전날 깎던 제품들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긴 코로 나무열매를 휘감아따는 코끼리며 쿵쿵 절구를 찧는 달토끼며...

그는 하나하나 주의깊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비례와 골격, 세부묘사와 칼자리... 오랜 공예사들과 무기능공들의 기술적차이가 너무도 현저했다.

옥진의 자리에 이른 신혁은 잠시 망설이던 끝에 조심히 의자에 앉았다.

앞에는 미처 눈도 뜨지 못한 미완성고양이가 외로고개를 틀고있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곁에 앉은 자기를 날마다 지켜보고 가르쳐주던 석남반장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 신혁은 또다시 가슴이 찢어졌다.

어떻게 옥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희망하던 대학은? 새싹같이 여린 심장으로 감히 하늘높은줄 모르고 뿔어올리던 문학의 꿈은?... 그와 헤어지던 때의 일이 새록새록 가슴에 마쳐온다.

...신혁이 공장에 온지 수년만에 뜻밖에도 아버지가 평양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공장에선 신혁의 미술대학 입학문제가 논의되었다.

신혁에게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어느새 소식을 들은 옥진이가 한쪽어깨에 걸친 책가방을 탈썩거리며 학교에서 곧바로 달려왔다. 이젠 제법 소녀티가 가셔지는 옥진이었다.

《신혁오빠! 여길 떠난다는 소문 뭐나요?》

신혁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채 짐짓 고개를 기웃거렸다.

《글쎄... 그야 떠도는 소문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오빠 그저 아무때나 통답... 남은 속상해죽겠는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갈가봐 속상하겠지.》

옥진은 어이없는 헛웃음을 쳤다.

《아유, 기특해. 어떻게 신통히 딱 알아맞춘답?》

공예사들모두가 즐겁게 웃음을 터쳤다. 정희가 시까슬렀다.

《옥진이까지 섭섭해할줄 몰랐는데. 맨날 오빠 속태우구 짱짱 대답질만 했지 않니.》

옥진은 아이답지 않게 얼굴에 홍조를 떠올렸다.

《누, 누가 섭섭하데요? 약속한 문예참고서 안 구해주구 갈가봐 그러지.》

《걱정말아, 옥진이보담두 조각칼과 헤어지기 싫어 못 가겠단다.》

신혁은 긍정하듯 옥진이를 향해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대학입학도 몇년간 드린데다 오래지 않아 집마저 이사를 갈판이니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는것이였다.

사실 아버지는 평소에 신혁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다심히 보살폈었다. 외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다소 들뜬 아들의 그 어떤 주장에도 병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의 견해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신혁의 설복은 바위에 날린 화살모양 부서지고 습관되지 않은 하소연은 미처 가닿지도 못한채 제풀에 곤두박질쳤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석남반장이 기회를 내여 신혁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한두해만 제가 신혁이를 더 데리고있으면 안되

했습니까? 이젠 손에 기름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신중한 낯빛으로 대답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하지만 일생 공예를 시킨다는건 어렵지...》  
 《미술로서는 앞으로 신혁이가 절대로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각에선 완전히 환상적입니다. 오래지 않아 당당히 첫자리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도 안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알릴가말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탁합니다. 제 립장도 고려해주십시오. 전 우리 신혁일 미술가로 키울걸 꿈꾸어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공예때문에 포기한다는건 아무래도...》  
 신혁은 확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말을! 그 공예에 났을 바치고 사는 사람 앞에서...  
 아버지도 자신이 지나쳤다는것을 알아차린듯 얼굴빛을 흐리며 안경을 벗어 말없이 닦았다. 얼핏 석남반장을 바라본 신혁은 찢기는듯 마음이 아팠다. 하얗게 얼굴빛이 질려 창밖의 먼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고있는데 파르르 떨리는 그의 입가엔 이지러진 미소의 한가닥이 연하게 비껴있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보이고나서 그는 떠나갔다.  
 현관에서 그를 따라잡은 신혁은 푹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뇌었다.  
 《미안해요, 반장동지...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  
 석남반장은 혼연히 웃으며 신혁의 머리를 가볍게 튕겼다.  
 《용서는 무슨... 우리 신혁이의 아버지인데...》  
 불현듯 신혁의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엇이든 이름할수 없는 충동에 겨워 신혁은 석남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가거라. 난 너를 믿는다.》  
 신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반장동지, 전 군복을 입겠습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도 대학엔 갈수 있지 않나요. ...》  
 석남은 이윽히 신혁의 어깨를 어루싸다듬었다.  
 《장하다, 신혁아. 정말 용해. ... 그래야 하구말구.》  
 《기다려주세요. 언제든지 꼭 다시 돌아오겠어요.》  
 오래지 않아 정말로 떠나갈 시각이 왔다.  
 신혁의 결심을 미처 알수 없었던 옥진이만은 마감까지 신혁의 애를 태웠다.  
 《오빠야, 꼭 가야 되나? 우리 아버지 어제 밤에 한잠두 못 잤어. ...》  
 《미안하다. 옥진아, 잘 있어라. ...》  
 《오빠야... 내가 이제부터 오빠말 잘 듣구... 대답질두 안하면 안 가지?...》

신혁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너 자꾸 이럴래?... 아무래도 갈 길이야. 가먼 편지할게, 응?》  
 그러자 옥진이는 눈물을 머금고 부르짖었다.  
 《편지하지 말어! 안 간다고 약속하구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지두 않나? 나보다두 오빠밖에 모르는데...》  
 끝내 옥진은 두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떠나갔던 고향이었고 정든 일터였다. 다시 돌아온 지금 신혁은 뜻밖의 좌절과 상실감에 자기를 다잡기가 몹시도 힘들었다. ...  
 문득 탁우에 작업반장수첩이 놓여지는 바람에 신혁은 질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어느결에 옥진이가 다가와 착잡하고 지친듯 한 눈빛으로 말없이 내려다보고있었다. 신혁은 무겁게 자리를 일었다.  
 《옥진이, 반장동지를 어디에 모셨는지 묘소에 함께 가줄수 없겠소?...》  
 한참 창밖에 눈길을 주고있던 옥진이 왜서인지 서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미안해요. ...》  
 그들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이 났다. 공예사들이 하나 둘 작업장에 들어섰던것이다. 신혁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이 지나 관리성원들과 작업반장들의 사업총화에서는 미달된 지표별계획과 제품의 질체고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격한 목소리로 논쟁을 벌리기까지 했다. 모임이 끝날무렵 침묵을 지키던 신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저는 생산부진의 기본원인이 견본에 있다고 봅니다. 견본수를 대폭 늘이되 낡은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이 견본이 우리에게겐 종자입니다. 농사에서 종자개량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혁신해야 합니다.》  
 신혁은 옥진의 아연한 눈빛이 살같이 날아와 자기의 몸에 박히는것을 뚜렷이 감촉했다.  
 《종자개량이라...》  
 지배인의 미심쩍은 목소리였다.  
 《지금 기술력량으로 가능할가요? 혹시 실장동무에겐 어떤 안이라도...》  
 《낡고 뒤떨어진 지표들은 미련없이 버려야 합니다. 지금 공장은 지나치게 동물공예에만 집착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기울였다.  
 《우리는 판상용공예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생산에도 났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된바람이 불고있습니다. 공예도 시대의 벽찬 흐름을 외면할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즐겨쓰이는 필수공예가 급속히 발전하고있습니다.》  
 별안간 지배인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나

게 책상을 쳤다.

《옳소! 정말 바로 말했소. 어쩔소, 동무들! 이런 실장동무와 함께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끝나 신혁이 기술준비실에 들어와앉기 바쁘게 가벼운 문기척소리가 뒤따랐다. 뜻밖에도 옥진이였다. 처녀의 표정은 여전히 산산했다.

한참이나 바재이던 옥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실장동지, 이자 참모부에 지표갱신을 제기 하던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신혁은 잠시 옥진의 침착한 거동을 일별했다.

《일부 지표들은 새 세기의 미학적요구에 뒤떨 어졌다고 봤소.》

옥진의 얼굴빛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그 견본들은 거의다 아버지가 깎은 창조물들 이에요. 그거야 실장동지가 제일 잘 아시지 않나 요.》

신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옥진의 눈가에 아연함과 실망의 불꽃이 동시에 확 타올랐다.

《그걸 알면서도!... 스승을 깎아내린만큼 제 값 은 오른다는건가요?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단 말을 듣고싶어요?...》

목은 상처를 헤집는 짜릿한 아픔이 지나갔다. 난생처음 당해보는 가혹한 타격에 심장은 툭툭 흥 벽을 치고 피기가 가셔진 얼굴엔 차거운 경련이 일었다.

옥진은 한번 솟구친 걱정을 이내 삭이지 못하고 다시금 부르짖었다.

《내가 조각칼을 잡고있는 한!... 쉽게는 안될거 예요. ...》

흰 갈기를 떨치며 끈두셨던 마음의 격량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신혁은 아버지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 《장검을 비껴든》 옛 장난꾸러기소녀의 어엿한 모습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애써 평소의 안정을 되찾은 신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옥진이, 낡은것을 고집하는게 아버지를 지켜드 리는걸까?... 아버지가 견본을 어떻게 갱신하군 했 는지, 공예에서도 세계적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고심겨운 낮과 밤을 보냈는지 옥진인 아마 다는 모를거요. ...)

신혁은 묵묵히 다가가 옥진의 티 한점없이 말쑥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싱긋 웃어버렸다.

《정말 상상밖이요. 사람의 걸모양과 속마음이 이렇게 뒤바뀌다니...》

웃음을 거둔 신혁이 느닷없이 옥진의 한쪽팔목을 거머잡았다.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옥진이 흠칫 몸을 떨었다. 숨가쁘게 나직이 부르짖었다.

《이, 이건 뭐예요. 이 손 놓아요!...》

들든듯만듯 신혁은 말없이 거머쥔 그의 손에 힘을 주며 벽쪽으로 이끌어갔다. 벽장앞에 이르러서야 손목을 놓아주고는 장문을 열었다.

홀연 옥진이의 눈에 뜨인것은 알알이 붉은 사과들이였다. 상긋한 사과향기가 찰나에 폐부깊이 스며들었다.

옥진은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그랬건만 탐스러운 사과알들은 재롱치듯 그냥 눈앞을 맴돌았다. 분명 먼곳에서부터 옥진이 자기를 주려고 때아닌 계절에 구해왔을 저 사과... 아득한 옛날에 사라져 버렸던 누군가의 정찬 목소리가 세월의 장막을 뚫고 파스한 바람처럼 날려온다.

《옥진아, 받아. 힘들게 구해온거야. 맛있게 먹어야 돼.》

《야, 사과! 우리 신혁오빠 제일!...》

옥진은 편뜻 놀라 눈을 떴다. 머리를 흔들며 달콤한 환영을 털어버렸다.

어느새 분노는 사그라들고 안개비내린 덤불마냥 마음은 서글피 젖어든다.

옥진은 자꾸만 흠어지는 생각을 다잡아쥐며 자신없는 어조로 뇌였다.

《진 사과라면 별루... 실장동지한테 이런걸 받을 명분도 없구요.》

신혁의 입가에 어설픈 미소가 떠올랐다.

《걱정마오. 나도 권할 생각은 없으니까. 다만 상기시켜주자는거지. 제 모습이 무엇덕분에 변했는지. 이제 정말 옥진이에게 사과가 필요없을것 같구만.》

그리고는 혼연히 벽장문을 닫아버렸다.

옥진은 무안하고 분했다. 한편 즐거웠던 시절의 애뜻한 추억이 영영 어두운 벽장속에 갇히워버린듯싶어 짜릿하게 가슴이 아파났다. 만단사연이 얹힌 눈빛으로 피곳 신혁을 치며본 옥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 3

신혁은 매 공예사들의 제품들을 사진기로 반복 촬영하였다.

밤마다 그 사진자료를 컴퓨터에 빨아들이고 최신프로그램으로 3차원공간에서 동화상으로 재현시켰다. 대부분 골격의 비례가 맞지 않는 동물들은 우습강스럽게 절뚝거렸다.

그 화면편집물을 보여주자 공예사들은 허리를 접고 웃어댔다. 그리고는 이내 심각해졌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줄곧 병신동물들을 만들어왔던것이다.

까마득히 잊혀졌던 기술학습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신혁에게 목각작업반이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당당히 제발로 걸어갈 때까지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당적분공을 주었다.

일단 그가 사업에 착수하자 신혁을 오래전부터 잘 안다고 자처하던 사람들마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신혁이었던것이다.

제품의 사소한 흠집까지도 순간에 포착해내는 날카로운 눈초리, 때로는 종일 말 한마디 없고 때로는 등골이 서늘하게 튀어나오는 질책...

그 옛날의 명랑하고 살뜰했던 미소년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두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다.

월말전투를 결속하는 날이었다. 신혁은 옥진이와 함께 반원들의 완성품을 하나하나 검사했다. 거의 모든 공예사들이 가차없이 지적을 당했다. 왕년엔 신혁을 가르쳤던 오랜 기능공들조차 예외로 되지 않았다.

《자세히 보십시오. 털질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감칼날에 미세한 흠집이 있을겁니다. 칼을 갈고 다시 한꺼풀 벗겨내십시오.》

《병옥동무, 삼각칼을 용도에 맞게 쓰지 못했소. 그러구 이게 무슨 칼버릇이요? 여기, 여기! 왜 팍팍 죽여주지 못해? 이 부분 원형칼질 다시 하오.》

병옥이란 처녀가 어리광부리듯 변명했다.

《실장동지, 오늘따라 손목에 힘이 안 갑니다.》

그 말에 말없이 신혁의 뒤를 따르던 옥진이 제가 창피를 당하기나 한듯 얼굴을 붉혔다. 지나치려다가 다시 병옥에게로 돌아서서 손을 내밀며 소리죽여 말했다.

《거울 내놔, 힘 안 가는 손목으로 어떻게 시간마다 거울을 보니?》

입이 한발이나 나온 병옥이가 마지못해 거울을 꺼내 바쳤다.

긴장했던 반원들이 숨죽여 웃음을 터뜨렸다.

신혁의 《회진》은 계속되었다. 이번엔 멧쟁이총각 호철이가 걸려들었다.

《동문 칼을 잡은지 얼마요?》

《저, 이제 3년...》

금시 3일전에 칼을 잡은듯 한 말투이다. 신혁의 공장년한도 3년이였다. 그 3년의 하루하루를 신혁은 어떻게 맞고보냈던가. ...

《3년이면 서당개도 풍월을 짓는댔소. 아직도 썩어서 얼룩진 소재를 쓰오?》

《난 미술처리때 죽여주려구...》

《착색은 지난 세기의 유물이요. 이제부턴 미술처리없이 나무의 원색과 자연무늬를 그대로 살려야 하오.》

신혁은 군말없이 문제의 제품을 부산물더미에 던져버리고 제일 어린 처녀에게 다가갔다. 잠간 제품을 살펴본 신혁이 조용히 말했다.

《원손잡이로구만. 손을 보자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뺐지?》

처녀는 가뜩이나 쌍꺼풀진 눈을 애기사슴처럼 크게 떴다.

《작업중에 무슨 허튼 생각을 했소?》

《아까 엉터리옛말 듣다가... 난 안 들을려구 했는데...》

처녀는 제깍에 쑥스러운듯 작업탁에 얼굴을 박으며 픽 웃어버렸다.

누군가가 나이와 성별에 대한 아무 고려도 없이 욕담이 섞인 결측한 옛말로 한바탕 작업장을 웃겼을것이다. 신혁은 혐의자를 찾듯 잠시 작업장을 일별했다.

《무기능공들이 칼을 쥐고 잡담에 정신을 팔면 손가락의 피가 하나도 남지 않을겁니다. 반장동무, 작업규률을 일신해야겠습니다. 무질서한 잡담속에서 어떻게 창작이 되고 제품의 질이 올라가겠습니까.》

신혁의 제의로 소실된 견본복구와 새 견본확장을 위한 단기창작조가 무어졌다. 신혁이 조장으로, 옥진이 부조장으로 임명되고 여기에 가장 유능한 기능공들이 망라되었다. 신혁은 째짤이 옛견본들의 형태를 새롭게 발전시켜 도안을 뜨기도 하고 칼을 들고 깎기도 했다. 준비실책상엔 며칠어간에 도안지가 무드기 쌓였다. 완성된 차례로 콤퓨터에서 립체모형화하였다.

견본중에서 제일 큰 《목도품》이 신혁의 손에서 닻새만에 거의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에 찬 눈길로 신혁의 남다른 칼솜씨를 바라보았다. 수십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조각칼들이 신혁의 손끝에서 번개처럼 엇바뀌며 신비한 마술을 부리는 모양은 공예사들의 눈뿌리를 한껏 뽑았다. 첫 공정에선 머리칼도 선뜩 베어내는 예리하고 넓은 칼로 푹푹 깎아던지는 칼밥이 잠간새에 더미를 이루고 쌓인다. 그러나 섬세하고 세부적인 마지막질감작업때엔 바늘끝같은 칼날로 하루종일 섬없이 깎아낸 칼밥이라야 한 줌도 되나마나했다.

첫 완성품이 나오자 모두들 승벽심이 생겼다. 한쪽에선 날개편 독수리의 체모가 잡혀가고 누구는 숲덤불을 헤치고 나오는 호랑이와 땀흘려 씨름질하고...

차라리 칼을 잡고 독수리나 범과 한바탕 씨름질하는것이 신혁에게겐 훨씬 마음편할것만 같았다. 웅친 마음에 세월의 이끼마저 덮여 원래의 모습을 가려보기 어려운 옥진이와의 심리적인 마찰은 한번두번 웃으며 넘겼어도 역시 신혁에게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벌써 여러번 의견이 대립되었다.

오늘도 준비실에서 내려보낸 몇몇 도안들에 옥진이 불만을 보였다.

《실장동지, 검사기술문건의 설계도면을 지내 무시하는게 아닙니까? 아무리 창작이라도 규정 이란게 있지 않나요.》

신혁은 랭정히 잘라뻘었다.

《확신이 없으면 칼을 들지 마오.》

옥진이 물끄러미 신혁을 지켜보다가 담담한 어조로 대꾸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칼을 멈추지 말라, 전 이렇게 배웠는데요.》

신혁은 밤잠을 설치 피가 진 눈을 쪼프리고 잠시 옥진을 바라보았다.

《그야 창작품에 한해서겠지. 설마 흔치 않게 마음착한 나한테 칼질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었을가?》

뜻밖에도 옥진이 정성답아 그린듯이 선명하고 부드러운 입가에 방긋이 웃음을 머금었다.

《흔치 않게 착해서 정말 좋겠어요. ...》

그리고는 이내 새침한 표정으로 웃음기를 지웠으나 신혁에게는 그 맑은 미소가 장마철 짙은 구름을 뚫고 와닿은 한가닥의 연연한 해빛이었다.

어느날 정희가 기술준비실에 들렀다. 컴퓨터화면의 도안을 한참이나 눈여겨보던 정희가 마침내 감탄과 부러움에 젖은 한숨을 나직이 내뿜었다.

《야— 신기하구나. 신혁동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줄은... 하긴 뭐 그때부터 달랐지.》

신혁은 열적게 웃었다.

《내가 실장이 될줄은 정말... 함께 어울려 기술을 배우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누구한테나 자기 수준에 알맞는 자리가 있는 거지 뭐. 젊은 공예사들이 능력있는 새 실장이 왔다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공장에 실력으로 정희누이를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목각에 취미 없던 옥진이가 저만큼 자란 것도 정희누이가 곁에 있는 덕분이지요.》

정희는 추억이 비낀 눈빛으로 봄별이 재글거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 옥진이가 마음고생 많았단다. 기술을 높이겠다고 밤낮없이 아글타글 할 땐 눈물이 다 나더구나. ...》

소중했던 그 무엇을 잃은 때처럼 신혁은 또다시 아쉽고 허전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임의의 사물현상에 대해 즉시에 생큼한 즉흥시를 읊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꽃잎같은 웃음을 떨기떨기 피워주던 옥진이...

정희가 싱그레 미소를 지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옥진이가 곁을 안 준다구 너까지 그러지 말어. 그한테두 매운 소릴 좀 했어. 무슨 한이 맺힌 원썩나구. 아이들두 아니구 다 큰 어른들이 그제 뭐니. 먼저 리해할진 리해하구 저야 할 땐 좀 저주렴.》

신혁은 가슴후련히 웃어보이며 처녀시절부터 수십년세월 조각칼을 잡아온 정희의 굳은살 배긴 손을 꼭 쥐었다.

《알았어요. 정희누이, 명심하구 이제부터 잘해볼게요.》

정희는 친누나와도 같은 정겨운 눈매로 신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연도 많았던 나날들이 흘러 마침내 견본전투가 완결되었다.

온 작업장은 환희로 들끓었다. 작업탁우에 짝들어찬 60여점의 크고작은 새 견본제품들... 옥진이며 정희를 비롯한 녀공예사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배인이 신혁의 손을 으스스리게 틀어잡았다.

《수고했습니다. 큰일을 해냈습니다.》

늦은 저녁 신혁이 미심결에 작업장을 들어다보니 모두 퇴근한 방에 옥진이만이 외롭게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반장동무, 너무 늦었구만.》

옥진은 등에 달지 않게 혼자소리처럼 뇌였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새 도안에 맞추기가...》

두사람은 난생처음 나란히 바다기슭의 어둡서린 거리를 걸었다.

봄저녁의 산산한 바람, 까닭없이 마음 울렁이게 하는 파도소리, 저 멀리로 뻗어나간 해상유보도끝에서 반짝이는 등대섬의 애뜻한 불빛...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먼저 서먹한 침묵을 깨친 옥진의 말이였다.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지요?...》

그들은 석조란간결에 걸음을 멈추고 어둡속에 사라지는 멀리 수평선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실장동지가 떠나간 다음 아버지 무척 그리워하셨어요. 그저 칭찬뿐이셨지요. 한번은 듣다못해 제가 소리쳤어요. <세상에서 신혁오빠만 제일 이나? 난 잘하는게 하나도 없나?> ... 아버지 말없이 웃으시더군요. ...》

어데선가 해풍에 날려오는 밤물새의 정답고도 구슬픈 울음소리...

《아버진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집착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나봐요. 의식이 혼미한 순간에 친자식도 아닌 신혁이란 이름을 찾으실줄은!... 전 그때 실장동지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옥진은 쓸쓸한 미소와 비난이 뒤섞인 눈빛으로 히끗 신혁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힘껏 달음쳐서 겨우 10년만에야 돌아왔지요. ...》

신혁은 끝없이 부서지며 출렁이는 달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엔 지나간 나날들의 잊지 못할 사연들



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보람찼던 군사복무, 미술대학 공예학부에서의 뜻깊은 학창시절...

복무의 나날 신혁은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펼쳐 전인민군적인 미술축전에 나무조각품들을 출품하여 여러차례 당선되었으며 병실과 세목장을 비롯한 부속건물들을 표준설계에 기초하면서도 가장 편리하고 쓸모있게 설계시공하여 부대가 오중첩7련대칭호를 쟁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온 부대 지휘관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떠받들려 온 그 나날 신혁은 자기가 꿈꾸어온 희망이 결코 부질없는것이 아니었음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그때까지도 자기의 희망과 아버지의 요구사이에서 좌왕우왕하던 신혁은 마침내 자기 인생의 목표를 확신성있게 결정지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고싶은 길을 가자,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러나 미술대학 추천을 받고 처음 집에 들어서던 신혁은 몰라보게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도 가슴이 미여져와 그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이미전에 자기가 유화를 단념했다는것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연해하고 실망하실까. ...

신혁은 상봉의 기쁨과 죄스러움이 뒤엉킨 착잡한 심정으로 부모님들에게 제대병사의 첫 인사를 올렸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신혁의 어깨며 머리를 그냥 쓰다듬기만 하던 아버지가 갈린 목소리로 나직이 뇌었다.

《우리 조각가... 돌아왔구나. 인민군축전에 출품된 네 작품들을 내 다 봤다. 장하다. 우리 신혁이 정말 용해. ... 오늘에 이르고보니 너의 옛 작업반장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그를 찾아가 내 쪽 용서를 비마.》

신혁은 끝내 참지 못하고 유화구념새가 체취처럼 습배인 아버지의 후령후령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마침내 아버지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결심을 지지해준것이다.

소연히 드실레이는 파도를 쓰다듬는듯 한 신혁의 목소리가 담담히 울렸다.

《...처음엔 믿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소식을 전할 엄두조차 낼수 없었소. 그후엔... 큰사람이 되어 돌아가 놀래우고싶었소. 철없는 객기였지. ...》

옥진은 줄곧 말없이 귀기울이였다.

신혁은 갈린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난 단 하루도 반장동지랑 헤어져본적이 없었소. 초소에서 별많은 하늘을 바라볼 때에도, 밤을 밝힌 대학창가에서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타는 새벽하늘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은 무의식중에 다같이 검푸른 하늘을 올려

다보았다.

드넓은 하늘가에 보드랍게 옥돌을 바수어 뿌린듯 찬란히 빛나는 별무리...

《이 세상 어디서나 다 보이는 별처럼 산다는게 쉽지 않아. 만사람이 다 보도록 빛을 뿜는다는게...》

그때는 레사롭게 들었던 석남반장의 말이 언제부터인가 때없이 신혁의 귀전에 쟁쟁히 메아리쳐왔었다. 그의 말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모두가 사회앞에, 어머니조국앞에 지닌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자기 말은 부문에서 하나하나의 빛나는 별이 된다면 우리의 오늘과 래일은 얼마나 더 기쁘지고 아름다와질것인가.

하많은 사연과 채 말하지 못한 가슴속 이야기를 담아시고 뜻깊은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

#### 4

며칠이 지나서였다. 이미 옥진이와 약속한대로 새롭게 달라진 월계획분담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작업반현판에 들어서던 신혁은 느닷없이 울려나오는 누군가의 석침한 목소리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에도 현상모집에 참가할수 없단 말이지. ... 대관절 문학으로의 길에 무엇이 발목을 잡는가. ... 여러 선생들이 옥진이를 위해 밤을 밝히구 열정을 기울였지. 언제인가는 거목으로 자랄 남다른 싹이었길래 정성을 바친건데 참 섭섭하오.》

뒤미처 죄스러움에 겨운 옥진이의 목소리가 나직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 아버지의 생전에 실망만을 끼쳐드렸어요. 뒤늦게나마 공예의 첫자리에 올라 아버지앞에 자랑스럽구 땀땀한 딸이 되고싶어요. 문학이야말로 꿈에도 가고싶은 길이지만... 꼭 하나를 포기해야만 다른 하나를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겁니다. ...》

《그래서였구만. ... 옥진인 자기가 아버지만 한 공예기술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하나?》

《저도 그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끝까지 해보렵니다.》

신혁은 꿈속을 헤매이다가 홀연 눈을 뜬 기분이였다. 모든 사연이 대번에 선명해졌다. 결국 옥진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가슴 아프면서도 문학을 포기한것이였다. 그런데 옥진의 그 처사가 옳은것일까?! 공예를 하면서도 문학을 할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 공예를 더 잘하기 위해서 문학을 해야 하지 않을까. ... 그것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아닐까. ...

다음날로 신혁은 문학통신원들과의 사업을 주관

하는 해당 기관에 찾아가 많은 사연을 알게 되었다. 지난 몇년간 옥진이가 출판물들에 발표한 작품들도 놀라움과 감탄속에 빠짐없이 읽어보았다. 모르는 소견에도 옥진이에겐 확실히 재능이 있었다. 시작품들은 시줄마다 참신한 서정과 불꽃같은 열정이 피가 뛰듯 맥맥히 흘러넘쳤으며 산문들은 글줄마다 시대의 주인공들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소리가 폭포처럼 장쾌하게 울려나오고있었다.

신혁은 저녁빛이 짙어가는 바다기슭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지금 옥진은 분명 잘못 생각하고있다. 옥진의 아버지가 바란것은 오늘의 옥진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헛되이 묻어두는것은 옥진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 순수 의무감만으로는 먼길을 갈수 없고 그 길에서 성공할수도 없다. 옥진이가 지닌 재능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옥진을 위하는 길이고 그의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다. ...

신혁의 마음속 고충을 전혀 알수 없었던 옥진이 다음날 저녁 퇴근길에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느닷없이 말했다.

《전 어쩐지 이상해요. 거기선 지금까지 한번도 제 실력을 두고는 이렇다저렇다 평가를 안해주셨지요? 제 수준이 아직 멀었나봐요.》

신혁은 장난하다 들킨 총각애마냥 남몰래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옛날 소묘훈련조차 싫어하던 때에 비하면야 대단하다고 봐야지.》

옥진은 애잔한 한숨을 호 내그었다.

《실은 저에게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작품이 있어요. 여러명의 남녀인물을 형상한 널뛰기교예 군상이예요. 내 손으로 꼭 완성하고싶어요. ... 그런데 인물조각엔 아직 자신이 없어요. ...》

석남반장이 유고작품을 남겼다는 말을 처음 들은 신혁은 저으기 놀랐다.

아버지의 마지막작품을 놓고 남몰래 애태우고 결심을 굳히는 옥진이의 모습에 신혁은 마음이 뭉클했다.

스승의 닢이 깃들고 마지막숨결이 배인 그 작품을 자기도 보고싶었다. 하염없이 보고 어루쓸며 마음속에 쌓인 하많은 이야기들을 터놓고싶었다.

하지만 옥진이가 그 작품을 제힘으로 완성할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하는것이 지금 당장 신혁에게는 별로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너무도 재기가 뚜렷해보이던 옥진의 글작품들의 청신하고 주옥같은 글줄들이 펼쳐져 꼬리치며 무지개빛으로 떠돌고있었던것이다.

옥진을 집앞에까지 배래워주거나서 다시 바다가로 나온 신혁은 오래도록 기슭을 거닐었다. 순간의 정

적도 없이 솟음치며 비말을 뿌리는 파도마냥 건잡기 어려운 상념의 물결이 마음의 기슭을 때렸다.

과연 재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천부적으로 타고나는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니다. 재능이란 사회와 집단의 헌신적노력의 열매가 아닐가? 그것은 개인의것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이 베풀어준 가장 값있고 소중한 사랑이고 믿음이 아닐가?...

그 재능을 묻어둔다는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리유로도 용납될수 없다. 결코 재능은 한가정의 테두리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사회공동의 재부인 재능은 마땅히 전사회적령역에서 줄기차게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옥진인?... 가정에선 효녀일지 몰라도 그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은것일가?...

신혁은 곤혹스럽고 다잡기 어려운 마음의 번뇌를 안고 끝없이 뒤채이는 바다 멀리 하늘가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이밤에도 별들은 쉽없이 온몸을 태우며 고요히 반짝이고있었다.

## 5

얼핏 보기에는 언제나 다름없이 평온한듯 해도 요즘 공예사들은 누구라없이 초조한 흥분에 들떠있었다. 당창건기념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공예사들의 창작경기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공장안에 떠돌았던것이다.

신혁은 이 문제를 옥진이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그의 발기로 론의가 시작된것이지만 아직은 당위원회와 참모부에서 신중히 토론중이었던것이다. 당면한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는지도 잘 따져봐야 했다.

사실 오랜 기능공들이라 해도 창작적능력은 대체로 미약한것이 상례이다. 일정한 기간 한정된 지표에 한해서만 기계적으로 꾸준히 손에 익히다 보니 자연 독창적인 안목이 흐려지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제품의 참신성을 줄먹고 아직은 파악이 부족한 다채로운 실생활용도의 공예제품개발에 결정적인 장애를 놓고있다고 신혁은 확신했다.

며칠 지나 마침내 결정되었다. 즉시 경기심사위원회가 조직되고 신혁은 경기요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종업원총회에서 발표하였다.

이제 몇달 남지 않은 당창건기념일까지 3차례 걸쳐 창작경기를 진행한다.

매 경기에서는 사상예술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작품들만이 당선될수 있으며 당선작품들은 전국축전에 출품되고 중요하게는 국가건본등록을 받게 된다. 첫 공정으로 모든 지망자들이 기발하고 독창적인 도안과 설계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참가자격을 얻을수 있었다.

공예사들은 새로운 희망과 열의로 가슴들먹이였다. ...

드바쁜 나날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신혁이도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날마다 들어오는 창작도안들을 하나하나 검토수정하고 립체설계가 완성되는 차례로 공예사들을 창작에 진입시켜야 했다. 누구에게도 통시간은 차례지지 않았다. 그날 생산과제를 끝내야 창작시간을 얻을수 있었다.

신혁이가 저녁늦게까지 준비실을 뜨지 못하고 컴퓨터와 씨름하고있는데 옥진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바쁨니까?》

저으기 해쓱해진 얼굴빛이었다. 신혁은 말없는 미소로 반겨맞았다.

옥진은 발뼘발뼘 다가와 조심히 책상에 기대어섰다.

《저, 실장동지한테 긴요한 부탁이 있어서요.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들어보구 가능하면 들어주지.》

옥진은 고개를 돌리며 피 하고 웃어버렸다.

《들어보구가 아니예요. 조건없이 꼭 들어줘야 해요. ... 사실 전 이번 창작경기에 꼭 당선되고 싶어요. 도와주지요?...》

신혁은 놀라게 옥진이를 바라보았다.

《한다하는 목각작업반장이 그런걸 고민하다니.》

《어쩐지 예감이 이상해요. 자꾸만 자신심이 허물어져요. ... 이번 결과를 보고 전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꼭 1등에 당선되고싶어요. 그저 딱 막혔을 때 조금씩만 틈이주면...》

신혁은 별스레 가냘퍼보이는 옥진이의 어깨를 가슴아프게 웅시했다.

내색하진 않아도 저 연약한 어깨우에 아버지의 크나큰 소원과 희망을 모두 신자니 그동안 얼마나 힘겨웠으랴.

《그럼 약속했어요.》

신혁의 영문모를 침묵에 지친 옥진이 제잡담 끝을 맺고는 미소를 남기며 돌아섰다. 문가로 향하던 옥진이 문득 다시 몸을 돌리고 나직이 불렀다.

《신혁오빠!...》

신혁은 찰나에 심장을 찢리거나 한듯 찌릿한 아픔에 몸을 떨었다.

옥진은 자기도 쑥스러워 입을 가리고 소리없이 웃었다.

《불러보고싶었어요. ... 생각나세요? 아버지대신 오빠가 회초리로 내 손바닥을 때리던 일, 내가 울면서 오빠의 손등을 꼬집어 퍼렇게 멍들게 했던 일... 참 잊혀지지 않는 시절이에요.》

너무도 청순하고 애뽕보이는 옥진의 모습을 신혁은 마음저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정말 잊을수 없는 시절이요. 그때의 옥진이가 나에겐 더 좋았는데...》

무슨 말로든 피로움에 지쳤을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싶었다.

놀라게 신혁을 지켜보며 귀를 기울이던 옥진의 두눈이 점차 커졌다.

마침내 옥진은 목을 뒤로 젖히며 막혔던 물목을 터치듯 긴 숨을 내뿜었다.

《호... 그러니 오빠 제가 가없다는 뜻이지요? 제가 포기한 희망이 아쉽구... 글썽 요즘 눈빛이 좀 별나다 했어요. 사람이 싫은 일을 억지로야 어떻게 해요. 또 한다고 해도 끝까지 가내기나 하겠어요?》

《?!...》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데 의무감 하나 때문일까요?... 전 아버지의 한생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택한 길도 자랑스럽구요. 설사 의무감때문이라 해도 마지막까지 후회없이 웃으면서 갈거예요.》

신혁은 갈래많은 오솔길어구에서 지나온 길도, 가야 할 길도 잃어버린셈이 되고말았다. 한참이나 어리둥절해있던 그는 가카스로 제 말끝을 따라잡았다.

《그러니 옥진인 공예를 위해서 문학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더 하지 말자요. 지금 저에게 걱정스러운건 제 공예실력이...》

퇴근시간도 퍼그나 지났다. 미처 불도 켜지 못한 방안엔 한동안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었다. 이윽해서야 신혁이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꼭 문학을 포기해야만 공예를 할수 있다는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

옥진은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며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일을 하면서 문학을 할수도 있어요. 다만 제 능력에는 너무 부칠뿐이에요. 공예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데도 잘 안되지 않나요.》

《난 이해할수가 없소. 옥진이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한건 바로...》

옥진은 성급히 다가와 손으로 신혁의 입을 가리웠다.

《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로 오빠를 미워했을까요? 아버지가 친자식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한 때는 있었어요. 이젠 그 나날들마저 부끄러워요. 신혁오빠가 이렇게 돌아온게 고맙구...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공예사로 자란게 정말 고마워요. ...》

불시에 옥진이 한손으로 눈언저리를 가리웠다.

신혁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으랴. ...

점차 공예사들의 손에서는 갖가지 재기가 엿보이는 창작품들이 하나, 둘 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정희는 군사놀이하는 유치원꼬마의 동심적인 형상을, 원철은 무쇠주먹을 틀어진 태권도선수의 특징을 뽑아내느라 모지름을 쓰고있다.

성호는 푸른 바다우를 날으는 갈매기를 조형적으로 형상하고 병옥이는 엄지가 새끼들을 거느린 무리품을 창작하고...

이채로운것은 여러 신입로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쓰이는 갖가지 일용품들을 공예적으로 착상하고 실천에 옮기는것이였다.

자개박이사물함이며 기기묘묘하게 부각장식한 옷걸이, 그림액자, 가래나무며 다름나무를 비롯한 특수용재로 된 일식의 안마치료도구들...

신혁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한 그들에게 특별히 많은 품을 들였다.

창작경기로 무기능공들의 예술적안목과 창작기량이 훨씬 뛰어오르게 될것이 분명했다. 모두가 흥에 뜨고 손바람이 났다. 칼을 잡은 손마다 피멍이 들고 아프게 굳은살이 배졌지만 한사람도 쉽게 칼을 놓을념을 안했다.

이 나날 신혁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완강하게 창작에 열중하고있는 옥진이를 때없이 지켜보며 은근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이번엔 작업반장은 경기참가대상이 아니였었다. 그런데도 옥진은 월계회수행을 위한 조직사업과 지도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여가에 자진하여 경기에 참가하고있었다.

잡도리가 만만치 않았다. 처녀과학자의 사색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제일먼저 뽑아낸데 이어 지금은 대치를 박차며 네굽을 안고 뛰어오르는 말을 형상하고있었다. 동물조각에서 말의 조형적형상은 그중 까다롭고 난도높은것으로 알려져있다. 류달리 룬곽이 뚜렷한 골격구조와 조밀하게 분포된 근육질들을 방불하게 재현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격렬하게 운동하는 순간의 형상은 몇배나 더 어려운것이다.

가끔 곁에 앉아 말의 복잡한 골격과 근육구조에 대해 의견을 주면서도 신혁은 그의 피타는 탐구심과 열정에 내심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무슨 결심인가를 새롭게 다진것이 분명했다.

이번 결과를 놓고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었지. 그게 대체 무엇일가. 다는 알수없어도 자기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인것만은 틀림없다. 공예에 대한 확신을 완벽하게 가다듬고 파편이나마 남아있는 문학에 대한 미련을 영영 털어

버리려는것인지도 모른다. 짐작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신혁의 마음은 또다시 서글퍼졌다. ...

여러날이 흘러 마침내 1차 창작경기를 심사하는 날이 다가왔다.

회의실에 준비한 전시대에 창작품들이 주련이 세워져있고 그앞엔 제목과 이름을 밝힌 명찰이 놓였다. 심사성원들인 지배인, 책임기사와 신혁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품평하였다.

공예사들이 불안과 기대, 초조와 희망을 안고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는 작업반실로 신혁이 들어섰다. 잠시 무엇인가를 바재이는데 하던 신혁이 마침내 당선작품의 제목과 당선자들의 이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리정희의 《선군동이》, 박원철의 《민족의 기상》, 홍성호의 《갈매기》...

한명한명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의 탄성과 박수갈채가 떠나갈듯 장내를 울렸다. 열렬한 축하와 고무격려의 말끝에 신혁이 마감으로 모를 박아 당부했다.

《아직 필수공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래일부터 매일 30분씩 공예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대한 컴퓨터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차경기에선 인민생활에 실지 도움이 되는 이 부분 작품에 한해서만 경쟁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공예사들은 저오기 긴장된 흥분을 안고 그의 말을 새겨들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진정하지 못하고 떠들썩거렸다.

문득 사람들의 시선이 고개를 숙이고 그린듯이 앉아있는 옥진에게 쏠렸다. 불시에 기쁨의 파도가 잦아들었다. 뒤늦게야 그들은 작업반장인 옥진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것이다.

당선자들은 마치 죄라도 지은듯 송구한 빛을 가무리지 못했다.

옥진은 작업탁의 한곳을 지그시 응시하고있었다. 점차 그의 입가에 쓰디쓴 미소가 맺혔다. 자리에서 일어난 옥진이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신혁은 문가에선 옥진을 놀라는 빛도 없이 묵묵히 맞이했다.

옥진은 초점없는 눈길로 신혁의 어깨너머를 더듬으며 짓눌린 목소리로 간신히 뇌였다.

《말해줘요. 이걸 바랬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걸 알고있었지요? 내가 간절히 부탁할 때 코웃음을 쳤잖군요. ... 약속이라든 안했으면!》

신혁은 무겁게 대답했다.

《난 당선을 약속하지는 않았소.》

옥진의 입술이 눈에 뜨이게 떨리기 시작했다. 타는듯 한 처녀의 속삭임...

《전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

는 왜 자꾸 내 가슴에 칼질을 해요? 영영 가버릴 것이지 왜 돌아왔어요!...》

신혁의 낮빛이 하얗게 질렸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옥진에게 다가선 신혁이 파랗게 겨누듯 한 날카로운 눈초리를 그의 얼굴에 박았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해? 한 경기의 승패에 인생을 걸거나 한듯이.》

파고드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옥진이 숨찬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

《알만하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무시하고 끝내 문학을 버린다는거지. 그게 바로 중대한 결단이겠지.》

노여운 빛이 사무친 두눈을 곧추 뜨며 옥진이 열차게 시까들었다.

《엉뚱한 짐작으로 신통히 알아맞추기는 예나 지금이나 꼭 같군요! 내가 같길은 내 스스로가 정해요. 누가 실장동지더러 지행이가 돼달래요?》

《그만해!》

신혁의 부르짖음소리가 옥진을 무릎 놀래웠다.

《동문 그렇게도 자기를 모르겠소? 동무가 문학을 했기때문에 그 문학적인 감각으로 공예도 더 잘할수 있게 된거라고는 생각 못하겠는가 말ियो. 자, 이걸 보라구!》

신혁은 방금 발표한 당선자명단이 적힌 문건을 집어들어 옥진의 눈가까이에 던지듯 펼쳐보였다.

《아버지뒤편 내가 있구 작업반 전체가 있소. 그러니 옥진이, 이젠 마음놓아도 될거요.》

정말로 명단의 첫 머리에 옥진의 이름과 함께 당선된 두 작품의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있었다.

인물조각 《최첨단을 향하여》

동물조각 《백두의 준마》

옥진은 아예 할 말을 잊고 망연히 서있었다.

급기야 옥진의 눈가에 핑그르 눈물이 고여올랐다. 방울방울 흘러내린 눈물은 노을빛으로 붉게 물든 그의 두볼을 하얗게 적셨다.

불현듯 옥진은 맥없이 걸음을 내짚어 쓰러지듯

신혁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흐느끼며 목메여 속삭였다.

《미워요, 정말 오빠가 미워요. 어쩔... 이날을 위해 전 너무도 모지름을 써왔어요. 이젠 됐어요. 전 할수 있어요, 공예도 문학도...》

신혁은 깜짝 놀라 옥진의 어깨를 쥐어흔들었다.

《그게 정말이요? 내가 잘못 들은건 아니겠지!》

옥진은 고개를 쳐들어 하늘빛처럼 맑고 그윽한 그 눈빛으로 이윽히 신혁을 바라보았다.

《오빠 덕분이에요. 신혁오빠가 곁에 있어줘서 공예는 제 일생에 제일 어려운 고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 그만한 언덕도 넘어서지 못하면 문학이라는 더 높은 준령은 어떻게 뚫아올수 있겠어요. 이젠 확신이 생겨요. 다시는 주춤거리지 않겠어요. ...》

신혁은 숏볼마냥 새 희망이 타오르는 옥진이의 젖은 눈빛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오래전 헤어지던 마당에서 석남반장이 뜻깊게 하던 말이 생각났다.

...신혁이, 너는 공예의 별이 되구 우리 옥진인 문학의 별이 되구... 너희들이 별처럼 밝게 빛을 뿌리게 되면 우리의 하늘두, 우리의 땅두 그만큼 더 밝아질게다. ...

석남반장은 그때 벌써 밝게 빛날 딸의 앞길을 사랑과 믿음으로 축복해주었던것이다. 신혁은 가슴뜨거운 감회에 잠겨 말했다.

《옥진이, 아버지질 생각해서 우리 일을 더 잘하자구. 자기의 있는 힘과 열정, 재능을 조국을 위해 다 바쳐가자구.》

옥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누리엔 포근한 저녁어스름이 깃을 접고 소리없이 내려앉았다.

신혁과 옥진은 마음과 마음을 활짝 열고 별빛이 내리는 창가에 다가섰다.

아, 저 하늘 별무리! 하나하나가 내 조국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삶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태워가는 이 나라 사람들의 빛나는 눈빛같고 열정의 마음같은 저 하늘의 찬연한 별무리!...

## 경구, 격언

## 지식

- 지식은 사람이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이다
- 지식 그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 지식은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
-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학식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평리한 것은 아니다
- 산의 미는 나무요 나라의 재부는 학자이다
- 소경이 감춘것은 눈쁜 사람도 못 찾는다

◦ 어릴 때의 지식이 다 자란 다음의 재능으로 된다

- 지식은 날마다 늘구지 않으면 준다
- 지식은 불처럼 이웃으로 옮겨간다
- 지식있는 사람은 내눈을 가진다
- 지식은 일숨씨를 낳는 길잡이
- 지식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 웃는 땅에서

박 경 철

나는 제목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있었다, 손에는 펜을 쥐고.

그러자 얼마전에 찾았던 대계도간석지풍경이 방불하게 눈에 어려온다.

바다가지대의 풍치에 어울리게 잘 꾸려진 다사구와 여러 간석지농장마을들 그리고 눈썹리 아득히 펼쳐진 논벌과 수십리 날바다를 가로지른 억센 제방 등 드넓은 간석지풍경. 그우에 덧쌓여 내가 만나보았던 여기 창조자들과 농장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사람이며 자연이며가 온통 웃는 형상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수십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거대한 제방뚝을 철썩철썩 들이치는 파도의 모양새도 늠늠늠 웃는것만 같고 소금밭에 가면 하얀 소금꽃이 눈부시게 피여 웃는것 같다.

그렇다, 나는 대계도에서 웃는 땅, 웃는 사람들을 보았다.

대계도땅 가는 곳마다에서 보게 되는 이 고장 사람들의 밝은 웃음, 행복의 웃음...

왜 그렇지 않으랴.

지난 7월 것처럼 어렵고 방대하던 대계도간석지 건설을 승리적으로 끝냄으로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어머니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으니 이 세상의 기쁨중에 그이를 가까이 모시는것처럼 가장 큰 기쁨이 또 어디 있던가.

대계도간석지가 완공됨으로써 오랜 세월 행성의 인력으로 생기던 밀물과 썰물이 영원히 흐름을 멈추었고 웅근 한개 군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기름진 옥토가 생겨났으며 그중 3천여정보는 벌써 개간되어 벼이삭 파도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으니 그들의 기쁨은 땅우에 차넘치고 하늘끝에 닿을 만도 한것이였다. 정녕 사람들이 웃으니 땅도 웃는가.

제방이며 논벌이며 거기에 한껏 어우러진 탐스런 벼이삭들마저 날바다를 향해 하하하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는듯싶은 오, 승리의 땅, 행복의 땅 대계도간석지여!

하지만 내가 웃는 땅의 참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달은것은 이곳 태생인 한 녀인을 만나본 후였다.

그로 말하면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부업지

를 가꾸는 평범한 녀인이였다. 그의 남편은 오랜 기간 장식공으로 일하며 대계도간석지 제방을 만년대제로 완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을뿐아니라 오늘은 확산간석지 2계단공사에 참가하여 새로운 로력적위훈을 떨쳐가고있었다.

녀인은 남편이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피땀으로 제방을 막아 얻어낸 땅에서 한알의 쌀이라도 더 내기 위해 아글타글 일하여 해마다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고 올해에도 땅이 꺼지게 알찬 이삭들을 무르익혀놓았다.

내가 여러 녀인들과 어울려 기쁨에 넘쳐 무거운 벼대들을 연방 베어놓히고있는 그를 만나 얼굴만이 아니라 온몸이 그대로 웃음을 내뿜는것 같다고 통소리를 하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이렇게 응대하는것이였다.

《정말 요즘은 매일매일이 막 명절날같아 웃음이 절로 난답니다. 허나 우리 간석지사람들의 기쁨은 단순히 제방을 막아내고 기름진 옥토를 얻어낸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랍니다.》

녀인은 잠시 말을 끊고 지난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쁨에 넘쳐 서계시던 3호방조제쪽을 경건히 바라보고나서 절절한 어조로 계속 잇는것이였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실현한다는것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변함없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할뿐아니라 수령님의 구상을 이 땅우에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는것이다, 이제는 대계도간석지를 완공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참으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답니다. 전 그날 것처럼 기뻐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면서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을 두고 형언할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아안게 되었답니다.》

순간 녀인의 말은 나의 가슴속에도 열렬한 공감의 메아리를 불러일으키며 온몸을 승엄한 격정에 휩싸이게 하는것이였다.

그렇다, 대계도간석지완공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이처럼 바라시고 온 심혈을 기울여오신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의 하나였다.

일찌기 항일전의 그 나날에 벌써 서해안의 간석지를 막아 조국땅을 넓히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고 가려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승

리한 패일을 내다보시고 간석지조사단까지 파견해주신 우리 수령님.

전후에는 몸소 배를 타시고 풍랑사나운 압록강 하류를 돌아보시며 대계도간석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이 나라 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수령님의 유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실천하는것을 필생의 목적으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하던 고난의 그 나날에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수많은 기계수단과 건설자재들도 보내주시는 등 공사가 중단없이 진척되도록 온갖 은정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바다바람 사나운 이곳에 친히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며 그들을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창조으로 힘있게 불러주시였다.

그러시기도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여 세상에 있는 높은 칭호란 칭호, 영예란 영예는 모두 안겨주시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로서의 커다란 웃음꽃을 피워주신 우리 장군님!

자신의 모든 불면불휴의 심혈과 고생은 다 잊으시고 환히 웃으시던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충정스러운것이며 우리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장군님의 그 위대한 기쁨은 성강의 주체철, 2.8의 주체습, 남흥의 주체비료포포들에도 어려있고 날에 날마다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개가 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도 해빛처럼 어려있나니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 따라 아버지수령님의 리상과 념원을 백프로 하나하나 이룩해가고있는 기적의 땅, 승리의땅 조선이 그대로 웃는 나라, 웃는 조국이 아니던가.

진정 조선은 웃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우리 러모시고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가고있는 한없는 기쁨이며 승리자의 환희이고 희열이거니.

그렇다! 우리 인민은 이 기쁨속에 온 세계가 보란듯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세기에 세기를 이어가며 영원토록 승리자의 웃음을 웃으리라!

## 어머님께

리 신 환

어머니

파도처럼 넘치는 이 사랑을  
고향쪽 하늘가에 그득 실으며  
전합니다 이 아들의 소식을

어머니도 들으셨겠지요

우리가 건설한

대계도간석지를 찾아오시어  
우릴 불러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라 치하해주신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을

다사도에서 가차도, 대계도로  
아득히 뻗은 제방 바라보시며  
조국의 대지가 넓어졌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만면에 환히 기쁨을 담으시던 장군님

그 기쁨에 적으나마 보탬을 했고  
그이 아시는 건설의 위훈자가 됐어요  
돌격대배낭 메고 집 떠날 땐 당당터니  
제구실 못해서 소식조차 없는게다  
어머니 그리도 걱정하시던 이 아들이

그러니 자랑안고 보아주세요  
광란하는 날바다를 척— 막아선  
만년제방의 그 장식 하나하나를  
다름아닌 이 아들이 아낌없이 쏟고 다진  
후더운 피와 땀의 방울방울로

조국을 받드는 억센 팔독인양  
백리로 내뻗친 튼튼한 제방  
날바다를 길들인 정복자의 기상인양  
췌— 흥치며 설레는 저 파도...

이게 바로 제 모습중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제 소식중의 소식이 아니겠어요  
키워준 모교가 기대하였고  
고향의 벗들이 당부하였고  
어머니 또한 바라고바란

하거늘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장군님 손들어 가리키신 저 한끝  
그이께서 더 기쁘게 보아주실  
췌— 뻗어간 간석지제방  
아 그속에 굳건한 이 아들의 모습을



# 파도의 고백

박 정 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저 백사장의 모래를 보라  
그것도 태고적엔 산악이며 바위  
허나 파도 나의 주먹앞에 모래로 된것!

그 무엇이 나의 힘 당하랴  
집채같은 함선도 고기배도  
나의 갈기우에선 한갓 가랑잎  
내 한번 치솟으면 절벽도 섬도  
자개돌마냥 물속에 잠겨 자취도 없다

그러나 여기엔 있었구나  
때없이 성격사납게 갈개던  
나의 갈기를 거머쥐고  
섬과 섬을 뛰어넘으며  
나의 허리를 가로지른 대계도간석지제방

처음엔 동막이 장난갈아  
얕כות은 심술부러  
투석배를 뒤집어놓기도 했노라  
함형부재들을 들어 바다가운데로 옮겨가고  
쌓아가는 제방을 허물어보기도 했노라

나의 힘이 모자라면

달의 인력의 힘까지 빌려가며  
수천수억년의 내 기상 내 성격  
절대로 꺾이지 않으려고 기승쳤건만  
불가능을 모르는 간석지건설자들  
육탄이 되어 격렬히 나와 맞섰노라

큰돌묵음식투석에  
한결음한결음 밀려나고  
륙상최그물돌자루투석  
력사에 없는 새 공법에 휘부려져  
조선의 기슭에서 대양으로 밀려났노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그 글발은 불패의 산악으로 치솟아  
나의 갈기를 통쾌하게 틀어잡았노라  
새땅을 결사로 떠올린 건설자들의  
위대한 정신력은 만리대양도 가로지르려니

내 지금 인간이 길들인 새 모습  
사랑받는 파도되어 노래하노라 이야기하노라  
조선은 결심하면 하는 나라  
머지않아 또다시 펼쳐질 조선의 새 대지  
조선의 새 해안선을 보거니  
조선의 결심에 나의 운명을 맡기노라

상 식

## 교통 신호

교통신호는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보장하는 데 쓰이는 신호를 말한다.

교통신호는 모든 사람과 운수수단의 안전한 통행과 운행을 보장한다.

교통신호는 보통 철도신호, 도로신호, 선박신호, 항공신호 등으로 나눌수 있다. 여기서 신호에 쓰이는 기호와 신호방법은 운수형태에 따라 다르다.

교통신호에는 빛신호, 표식신호, 소리신호 등이 있다.

빛은 처음에 철도신호로 도입되었고 1868년 경에는 도로신호로 쓰이었다. 그때 도로신호로 쓰인 빛은 야간통행을 위한 가스등잔불이었다. 전기적인 빛이 교통신호로 쓰이기 시작한것은 1918년 경인데 이때 신호시설은 붉은색과 푸른색신호등이었다. 노란색신호등시설은 1929년경에 보충되었다.

빛신호는 1929년경에 진눈길에 처음 쓰이었다.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빛신호는 보통 3가지 색으로 사람들의 통행과 운수수단들의 운행을 조절지휘하는데 쓰이고있다.

신호내용은 빛의 색깔에 의하여 구분된다. 여기

서 《첫》신호는 언제나 잘 가려볼수 있는 붉은색, 《통과》신호는 붉은색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푸른색, 《주의》신호는 노란색이다. 《통과》신호에는 사람의 모양을 그리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통신호에서도 자동화가 도입되었다.

특히 철도 및 도로교통신호는 거의 자동화되었다. 교통신호에는 이외에 《특별주의》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노란색등과 붉은색등을 엇바꾸어 켜는것이다.

표식신호는 그 내용에 따라 지시, 금지, 주의, 예고, 안내신호로 나눈다.

교통신호에는 소리신호도 있는데 이는 빛신호나 표식신호보다 먼저 쓰이기 시작하였다.

1909년 빠리에서 있는 국제과학토론회에서 교통신호문제가 처음 토론된데 이어 정기적으로 진행된 교통신호에 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이 보충되고 완성되었다.

모든 사람들과 운수수단들은 교통신호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이 요구하는 규정과 규칙들을 엄격히 지키는것이 필요하다.

# 광 만

## 박 인 파

여기선 모든것이  
바다를 밀어내는 격전장  
여기선 철의 선단들이  
포화를 포화를 퍼부을듯 요동치고  
팔쪽에 튀어오른 힘줄마냥  
팽팽한 쇠바줄이 바람에 운다

방금 제대배낭 풀어놓은 이 몸에선  
아직 고지의 송진내 풍긴다  
내 간석지건설에 익숙치 못해도  
마음속엔 위훈의 날개 솟는다

보이는 모든것 정다워라  
군복자락에 날아드는 바람  
어쩌면 이리도 후더운가  
바다의 입김인가

언제인가 표창휴가로 고향에 온 날  
고향의 언덕길을 걸을 때  
소리치며 달려오던 동창들같이  
앞다투며 나뒤편 오는  
흰 갈매기의 정다운 날개여

아득한 저 수평선  
파도속에 가물거리는 하나의 점은 고기배인가  
아니 그것은 섬

검푸른 바다에 동쪽을 쌓으며  
우리가 닿아야 할 지점

저기 와—  
파도가 파도를 차며 내닫는 소리  
마치 장난세찬 아이와도 같아라  
뛰노는 파도는

그러면 나는 간다  
달려가 덩석 바다와 맞붙어 씨름을 한다  
바다의 허리를 틀어잡아라  
바다를 배지기 떠나  
철의 선단 앞으로 쇠바줄 당겨라

나는 밀려가는 파도를 바라보며  
통쾌하게 웃으며 다시금 소리친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웅대한 설계도를  
가슴에 받아안고 달려온 제대병사

바다여  
우리는 너를 계속 공격 또 공격하리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까지  
이제 새로 태어날 새땅우에  
금나락 물결치는 별을 그리며...

## 노 래 를 부 르 려 무 나

## 박 상 민

노래를 부르려무나  
싸락눈같은 하얀 비료  
푸른 벌에 푹푹히 뿌려가는  
송학벌의 종달새들아

이런 날 이런 때  
노래를 부르려무나  
《강성부흥아리랑》을  
향순아 멋지게 넘기려무나

온다온다 하길래  
이렇게 빨리 울줄 알았더니  
우리 교장 남홍에서 비료가 폭포치며 쏟아지니

남홍비료 아리랑노래는 없다더나

이런 날 이런 때 노래가 없으면 될 말이나  
벼포기의 속삭임도 가려듣고  
꿈에서도 땅의 하소연 들어보았다는 향순아

오늘같은 날 부르는게 진짜 노래지  
장군님 보내주신 남홍의 주체비료  
드넓은 송학벌에 뿌려주는 오늘엔  
왜 그리 뜨거운 눈물로 비료를 적시며  
좌—좌—  
비료가 부르는 노래만 듣는거냐

## 시대의 울림에 화답하는 주인공은...

강 철 국

들려온다, 삶과 투쟁의 메아리가, 시대를 진감하는 창조와 변혁의 울림이...

어데서 들려오는것일까. 혁신의 불꽃이 튀는 저기 희천일까, 위훈의 파도가 철썩이는 대계도간석지일까. ...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대의 울림에 또 누군가 화답한다. 누구일까. 시대가 부르는 소리,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는 목소리들을 나는 《조선문학》(2010년 5호)에서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가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창작하였는가 하는것은 곧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작품을 보면 창작가의 사상적높이와 심장의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동자들이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제품을 보라.> 고 하는것처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도 창작가들이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작품을 보라.> 고 하여야 합니다.》

### 주인공은 누구인가

《조선문학》잡지 5호를 펼쳤을 때 나에게 첫인상을 강하게 준 작품은 단편소설 《높은 령 저너머》(김홍익)이다.

첫시작부터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형식으로 이야기를 엮은 소설은 우리 시대의 전형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주인공의 성격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높은 령 저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기어이 넘어가야 할 높은 령 저너머를 힘들다고 주저앉아 쳐다만 보지 말라, 동무나 나나 우리모두가 시대앞에, 조국앞에 자기가 맡은 짐을 한그램도 덜지 말고 힘껏 짊어지고 어서빨리 넘어가서 우리의 손으로 조국의 미래이고 찬란한 이상인 강성대국이라는 큰집을 일떠세워야 한다. 이것이 작품이 밝힌 시대의 목소리이다.

독자된 소감을 그대로 말한다면 장거리운전사라는 직업적특성을 리용한 소설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자유분방하게 펼쳐지고있다. 물론 장거리차운전사의 시점에서 씌여진 소설이어서 그런지 장거리차를 탄것만 같은 지루감이 느껴지는 부족점도 있지만 이야기는 마감까지 생활의 논리를 따라 흘러가고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듣는 손님-독자들에게 흥미와 기대를 주는 주인공 창수가 있기때문이다.

그전에 매부가 자기에게 탐사대마을의 휘황한 래일이라고 자랑하던 그 전망도가 20년이 지난 오

늘까지도 먼 래일의 전망도로 남아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두고 대오의 앞채를 메고 그 전망도를 현실로 꽃피워가는 창수.

그는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심장속에 간직하고 온몸으로 체현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오직 앞으로 내달리는 새 세대 일군이다. 그는 진정 자기 하나의 향락이나 그 누구의 체면을 생각하기 전에 시대앞에, 조국앞에 지닌 세대의 의무를 다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안고 쓰러졌다가도 억척같이 일어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육탄용사이다.

전세대가 20세기의 기적을 창조하면서 울린 영웅적위훈의 울림에 화답하는 21세기의 기적의 창조자-선군시대 주인공의 모습이 있어 독자들은 익백의 이야기를 두귀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듣고 있다.

그렇다. 소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시대의 미학적리상을 체현한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너무도 감동적인것이어서 손님-독자는 운전사의 서툰 이야기솜씨를 조금도 탓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그러면 시대의 전형인 주인공-그는 누구인가. 그는 작가자신이다. 자신의 미학적리상을 주인공의 성격을 통해 시대적높이에서 보여주기 위해 작가는 로상에서 들은 운전사의 이야기라는 새로운 예술적형식을 탐구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독자들 누구나 반할수 있는 주인공은 작가자신을 의미한다.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시대가 경탄하는 아름다운것이어야 작품의 주인공이 만사람을 감동시킬수 있다.

작가여, 다시한번 더 분발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울리시는 강성대국전설의 메아리에 심장으로 화답하는 천만군민의 모습을 더 진실하게, 더 완벽하게 그리는 시대의 나팔수, 문단의 주인이 되라.

### 주인공이 아름다운것은...

복이 많은 녀인의 이야기일까, 복이 박한 녀인의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을 앞세우며 두번째로 본 단편소설 《〈박복〉한 녀인의 이야기》(김은희)는 나로 하여금 혹시 주인공 선경이 작가의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아마 복이 없는 녀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다복한 녀인의 이야기로 끝났다고 할수 있는 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너무도 진실해서 이런 생각까지 든것 같다.

지금도 귀전에는 해방전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참새떼를 쫓는 조발파수군으로 소년시절을 보내야 했던 선경이 너무 일찌기 부모와 같던 남편까지 잃자 복없는 녀자라고 동정하던 소꿉동무 순금의 고백이 들려온다.

(내 동무 선경이! 나는 너의 오랜 친구지. 너의 생활의 전반부분이 내 눈앞에서 흘러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거야. 남편을 잃고 연구차로 고향에 내려온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난 마음속깊이 널 동정했어. ... 하지만 그 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널 몰라보게 흠뻑 키가 크게 만들었지. 난 정말 생각이 좁은 농촌아낙네였어. ...)

우리 당에서 안겨주고 시대가 주는 복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창조하고 빛내이는가에 따라 더 커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금을 보며 나는 복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들이 생활에서 흔히 하는 복을 타고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행복을 누려보고 싶은 소원이 절절하던 나머지 나온 말일 것이다.

해방전에는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제 자식을 다 거느리고 제집을 쓰고사는 사람이면 그만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라잃은 망국노의 처지에서 이것은 바랄수 없는 복이었다. 소설의 주인공 선경이 역시 부모복이 없는 불쌍한 소녀였다. 또 그의 어머니 역시 언제한번 단란한 가정생활의 기쁨도 누려보지 못하고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맛보지 못한 복없는 녀인이었다. 그래서 순금은 부모복이 없으면 남편복도 없다는 옛말대로 세 아이를 데리고 홀몸이 된 선경을 더욱 동정한 것이다.

그러나 선경은 복없는 녀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인 수령복을 받아안고 자기의 복받은 삶을 활짝 꽃피운 복이 넘치는 녀인이 되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아시는 녀성과학자—공화국의 기계공학박사, 녀성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재산중에 이보다 더 큰 재산은 없는 것이다.

하다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선경이 이런 복받은 녀인으로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작가는 우리 인민만이 누리는 민족의 최대행복인 수령복을 심오히 보여줄수 있도록 선경의 형상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창조하고있다.

당의 농촌기술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해나가는 남편의 뜻을 끝까지 이어가는 녀인의 형상, 여기에 순직한 남편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안겨주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세 자식을 다 말아키워주는 당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형상의 깊이가 있다.

보답은 인간의 고상한 미덕중의 하나이다. 선경을 당의 사랑을 받아안고 행복만을 누리는 녀인으로 그려다면 그의 형상이 이처럼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고마움에 눈물만 흘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구호만을 남먼저 부르짖는 선창자가 아니라 실력과 헌신으로 보답해나가는 참된 인간, 동정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행복의 창조자로 보람찬 투쟁과 창조의 길에 나선 시대의 주인공을 그런데 비록 1980년대의 녀성과학자형상이지만 최첨단돌파전에 나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시대의 메아리를 울리는 비결이 있다.

마치도 자기의 가정사를 말해주듯이 녀성특유의 심리체합이 비껴 담담하고 세심한 정서적인 필치로 전세대 애국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준 작가의 경험을 두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싶다.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높을수록 작품의 주인공이 더 아름다워지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산인간의 형상으로 재현되자면 생활에 발붙이고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이런 깊은 사색이 원형인 어문학자를 작품의 주인공인 기계공학자—선경으로 재형상하게 하였다고.

그렇다.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을 시대적높이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수 있는 산인간의 성격과 생활은 멀리 있지 않다. 자기자신의 생활속에 있다.

## 청춘은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은 세번째 단편소설 《내 마음속의 언제》(김경일)를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이다.

어떻게 아름다워야 하는가.

중대장 홍성광은 말한다.

《...우리 시대 처녀들은 모든것이 아름다워야 하오. 마음도 얼굴도 외모도...》

당의 부름따라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해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미학적리상이 이 말속에 다 담겨져있다.

비록 처녀의 손에 어울리지 않는 정대와 함마를 잡고 온몸에 먼지를 들쓰며 일해도, 비발처럼 흐르는 땀에 얼굴의 화장은 지워져도 매일, 매 순간 자신을 시대의 꽃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이 말속에 투쟁속에 더 억세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시대 청춘의 지향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우리가 벌리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본질이 있다.

더욱 아름다워질 조국의 패일을 마중가는 우리 시대 청춘은 무엇으로 아름다워지는가.

사상과 정신, 신념으로 아름다워진다.

그러나 소대장 신철규에게는 청춘의 마음도, 얼굴과 외모도 아름답게 단장해주는 신념이 없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부터 소대원들의 힘을 믿지 못했고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면 남에게 기대를 걸거나 손쉽게 할 방도만 찾았다. 그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소대에 감염되자 성광은 단호히 소대장을 해임시킨다.

오늘 우리 시대는 철규처럼 요령주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으로 일하는, 말과 실천이 똑같은 사람,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사상과 의지, 신념의 강자를 요구한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성광은 신철규를 해임시킨다.

신철규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이 있다. 각오와 결심을 한다고 하여, 욕망을 앞세운다고 하여 그것이 곧 실천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인 형처럼 시대의 청년영웅이 되려고 결심한 신철규가 전진하는 대오의 락오자로 된것은 주관적욕망만 앞세웠지 자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청춘의 힘이 샘처럼 솟아넘치는것은 불타는 정

# 혁명의 총을 더 굳게 잡으시네

심 복 실

복스러운 첫눈이 내리는 파발리에서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  
품속에 권총을 틀어쥐신채로  
탄생일을 맞으시네

그리운 고향집은 사립문을 열어놓고  
너무도 오랜 세월 기다렸건만  
선생님은 영원히  
파발리 파발리를 못 뜨시여라

흔하디 흔한 제고장 들쭉도  
제것으로 못 따던 사람들  
왜놈들 등쌀에 지지리도 억눌려  
멍들고 쪼들린 가슴가슴에  
투쟁의 우뢰를 울려주신분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들어  
조국땅에 첫 총성을 울리신 때부터  
온 누리에 불는 불로  
영원한 투쟁의 불을 지피주시며  
영생의 언덕에 높이도 서계셨나니

선생님앞에 백다섯해의 세월만 쌓였던가  
제땅 찾고 지켜낸 승리자의 기쁨  
나날이 꽃피나는 사회주의선경자랑  
온 나라에 넘쳐나는 행복의 웃음이  
여기에 모이고 쌓여져있거니

어디든 가보고싶으셨으리

작황좋은 황수등판 들쭉맛도 보아주고  
새로 꾸린 공장에 쏟아지는 제품도 만져보시며  
강성대국리상존을 끝없이 견고싶으신  
김형권동지의 간절한 마음이어

넘쳐나는 기쁨에 행복에  
사람들은 선생님을 이끌건만  
총을 놓지를 못하시네  
혁명의 총을 더 굳게 잡으시며  
원썬들을 처단하던 그날에서 못 떠나시네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행복도  
민족의 대경사도 총을 쏜 가슴으로  
벽차도록 맞이하신 김형권동지  
수뇌부옹위전의 그 맹세 드림 있으랴

들로 갈라진 땅  
못다 죽인 원썬을 그냥 두고서야  
잠시라도 놓을수도 식힐수도 없는 총이어서  
오늘도 래일도 그 모습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 한모습이시리

파발리의 총성을  
영원히 안고살 맹세  
이 나라의 수천만의 가슴마다에  
한발 또 한발의 총탄으로 채워주시며  
아 선생님은 백다섯번째  
11월의 뜨거운 눈을 맞으시여라

열이 있기때문이며 래일에 대한 략관이 있기때문이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낳는 비판을 모르는 략만도 래일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모래불에 떨어진 물방울에 불과하다. 하기에 홍성광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신념과 의지의 언젠부터 쌓는것이다.

람만이 없는 청춘은 시들어버린 꽃이다.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꽃이 아름다울수 없다. 하다면 일이 어렵다고 자기를 가꿀줄 모르는 청춘에게서 그 무슨 기적이나 위훈을 바라며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겠는가. 하기에 성광은 화장을 하지 않은 녀대원은 작업에 참가시키지 않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남을 쳐다보는 신철규는 해임시켰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며 대원들을 자신들도 알지 못한 기적의 힘을 창조하게 하는 홍성광의 드놀지 않는 신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강성대국의 승리를 굳게 믿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의 드놀지 않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강의한 의지를 낳고 래일에 대한 략관을 낳으며 사랑을 낳는다.

우리 시대 청춘들은 이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해가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마음도 얼굴도 외모도 더 아름다와진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로 성장하는 정혜나 신철규와 같은 개성적인 인물형상이 우리 시대 아름다운 청춘송가로 안겨올수 있도록 시대의 미학적리상을 구현한 주인공을 두고 우리는 말할수 있다.

청춘은 아름다와야 한다, 마음도 얼굴도 외모도. 그러자면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모든 측면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것이 되여야 한다.

오늘의 벽찬 현실속에서 수많은 배출되는 시대의 영웅들을 우리 문단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자면 그를 그리는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이 시대를 대표하는 완벽한것이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늘 말하듯이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과 미학관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할 때 맺어지는 열매이다.

작가들이여, 더 활짝 나래를 펼쳐 우리의 소설 문단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노래로 장식하는 창작의 능수, 문단의 쟁쟁한 주인이 되자.

시대의 울림에 화답하는 주인공은 작가의 사상 미학적리상을 완벽하게, 진실하게 체현한 현실의 산인간임을 명심하자.



# 새로운 실장

최 정 옥

로천분광산 설계실 실장으로 새로 임명되어온 최현성은 30대의 젊은 사람이다.

보통키에 보통체격의 준수한 사람이지만 형식적으로 불깃불깃한 그의 얼굴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영채도는 두눈에는 첫 교단에 나선 교육자의 모습과도 같은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빛이 력력했다.

평상시 말은 극히 적었지만 이따금 여담삼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공부문은 물론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별로 막히는게 있는것 같지 않았다.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척 과묵한 사람으로서의 독한 표상을 안겨주는것은 우리의 1분1초는 언제나 새것을 지향하는 사색과 탐구의 창조로 이어지는 귀중한 시간으로 되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에 있는듯싶었다.

도대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영 가늠할수 없는것이 새 실장이였다.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것이 새 실장이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였다.

얼핏 보면 그는 생활이 없고 정서가 메말라 보였지만 며칠전 설계실뒤마당이 번번한것이 불맛이 없다며 어디선가 다래나무 두그루를 떠다가 마당 한귀퉁이에 나란히 심어놓아 사람들을 감탄케 했다.

인원이래야 매년이면 60이 당장인 박원명기사까지 포함하여 겨우 6명밖에 안되는 소수의 기술집단.

그래서인지 지금껏 대체로 고요만이 흐르던 설계실에 보이지 않는 열풍이 조용히 불기 시작했다.

아직도 젊은 시절의 쾌활한 성미가 다분히 남아있는 박기사는 이렇게 혀를 찼다.

《새 젊은 실장과 발을 맞춘다는게 험치 않겠군. 늙은 참새가 젊은 황새의 걸음을 꽤 따라갈수 있을까? 허허.》

그런가하면 설계실의 정숙을 늘 따분해하던 처녀 리은옥은 불우물을 지으며 도담한 자기 성미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새 실장동지의 요구성이 대단하지요? 가물에 단비라더니 요즘은 막 일에서 성수가 나는게 집에 퇴근하기가 싫을 정도라니까요, 호호.》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 자꾸만 만들어내고싶어하는 욕심스럽고 분주한 새 실장의 사업에서의 지나친 요구성이 창혁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혹시 일부 신입일군들이 그러하듯 새 실장도 자기의 톡톡치 않은 인격과 사업상실력을 시작부터 소리쳐 시위하자는 의도는 아닌지?!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내성적인 성격의 창혁은 보름이라는 짧은 나날에 피상적인 느낌을 통하여 한 인간의 전모를 서쁘르게 규정한다는것은 너무도 경솔한 처사이라고 자신부터 꾸짖곤 했다.

도면을 맡아들고 실장방으로 들어갔던 박기사는 혼탁된 감정들이 뒤섞인 미묘한 웃음을 입가에 떠올리며 설계실에 들어섰다.

은옥은 딸기씨같은 주근깨가 연하게 널려있는 눈가에 미소를 띄우며 생신한 청으로 물었다.

《합격됐겠지요?》

박기사는 허거프게 웃으며 채머리를 흔들었다.

《통과는 되었는데 내자신이 부결을 해야 할것

같다. 도면을 보니 구체적이고 섬세한것이랑 다 좋은데 어쩐지 보수주의냄새가 슬그머니 풍긴다는 거요. 말하자면 최첨단으로 내달리는 시대의 요구에 발을 맞추려는 노력의 흔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지.》

《어마나! 합격이면 그만이지 스스로 부결을 놓겠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은옥은 박기사의 말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듯 쌍까풀진 두눈을 울퉁하니 떴다.

도면을 펼쳐든 박기사는 《한방망이 되게 얻어맞은것 같은게 머리가 얼얼하군.》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뒤따라 실장방에 들어가 박기사와 엇비슷한 평을 받고 나온 두 기사들도 말없이 웃으며 도면들을 꺼들었다.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간 전 실장은 기사들의 도면에 좀처럼 불합격딱지를 붙이지 않았다.

혹시 결점이 보이는 경우에도 제쪽에서 미안해하며 론점의 번두리만 조심조심 어루만지듯 하여 의견을 받는 사람이 도리어 송구스러워지곤 했다.

허나 새 실장은 도면이 들어오는 족족 스쳐넘길 수 있는 미세한 점선까지 확대하여 해부한 다음 가차없이 혹평을 하고있었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실력시위인가?

묵묵히 자기 도면에만 눈길을 주고있던 창혁은 은근히 부아가 솟구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오랜 기술자이고 공로있는 박기사의 도면에 보수주의라는 감투를 씌워놓고 일장 혼시까지 한 새 실장의 사업태도를 잘된것이라고 볼수 없었다.

자그마한 설계실에서 그 어떤 직위와 명예도 바람이 없이 광산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묵묵히 헌신하고있는,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젊은 기사들모두가 존경해야 할 박기사에 대한 실장의 태도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것이라고 창혁은 생각하였다.

실장방에 들어갈 차례인 창혁은 까닭없이 마음이 뒤숭숭했으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도면을 말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올해 들어 서른여섯살인 그는 총명하고 기민할 뿐아니라 젊은 나이치고는 지나치리만큼 치밀하고 타산이 밝았으며 일단 얘기를 시작하면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았다.

그의 설계는 매번 바늘틈만 한 틈도 없는 표준설계로 평가되어있었다.

언젠가 설계실의 한 기사가 (갓 신혼살림을 편 제대군인이었다.) 집사정으로 조금 일찍 퇴근하는것을 본 창혁은 《남자가 가정일에 파묻히게 되면 큰일을 못하지.》라고 말해서 당사자를 무안케 하였었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오직 사업 하나만을

위해 뛰고뛰어야 한다는것이 창혁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지론이었다.

창혁의 잔등에는 펍 오래전에 벌써 《일을 칠 사람》이라는 별칭이 나붙었다. 창혁도 그것을 알고있었으나 불쾌하기는커녕 어느 정도 만족하게까지 생각하고있었다.

창혁이 실장방에 들어서니 컴퓨터가 놓인 책상에 마주앉아 마우스를 손에 잡은채로 외국문기술서적과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진 설계도면을 번갈아들여다보던 실장은 사색의 흔적이 질게 어려있는 눈길을 들었다.

그리고는 총혈진 두눈주위를 가볍게 누르며 자리를 권하고나서 조금 서두르는듯 한 어조로 말하였다.

《매일 제기되는 설비부속품도면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과제도 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학습을 하자니 힘이 들겁니다, 시간이 모자라고…

오동무의 기술혁신과제는 〈새 박토처리콘베아선로설계〉지요? 어디 봅시다.》

창혁의 도면을 받아든 실장은 형형하게 불타는 눈으로 도면을 들여다보더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개를 들었다.

《대체로는 의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새로 뽑을 박토처리콘베아선로는 선명하게 안겨오는데 새 박토처리구역은 불투명한것입니다.》

실장이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있다고 생각한 창혁은 도면에 눈길을 준채 딱딱한 설명조로 말하였다.

《도면제목이 말해주는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새 콘베아선로도면입니다.

부연한다면 새 박토처리구역으로 선정된 이 골짜기는 몇년동안 박토를 퍼부어도 될만큼 골짜기가 넓고 길게 패여있습니다. 그건 도면상에서 능히 표상을 가질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입가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흘렀으나 영채도는 눈은 다소 매워지였다.

《표상이라— 그러니 오동문 선로에만 관심을 두고 박토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전 상례대로 새 콘베아선로가 끝나는 위치에서 박토처리구역면적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로를 통해 수많은 박토가 운반되어 쏟아지게 될 박토처리구역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책이었으나 창혁은 꿈만해하였다.

잡판목이나 돌바위같은것들이 산만하게 널려있는 골짜기에 무슨 금은보화가 들어있는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떼지어 밀려다니는것도 아닌데 거기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니 어떤 관심을 어떻게



게 돌린단 말인가.

창혁이 현실조건과는 엄청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실장의 논리를 반박하려는 순간 그는 《여직껏 동무의 그 상례가 별일 없었다고 해도 오늘의 시점에서 엄밀히 검토해보고 사소하게라도 불합리하다면 대담하게 깨야 합니다.

낡지 않는 새것이란 없습니다. 어제의것을 깨야 보다 발전적인 오늘의 새것이 창조되는 법입니다.

아무튼 점심시간을 리용해서 그 골짜기에 함께 가봅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실장의 결론적인 말에는 창혁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결단성과 확고성이 확연히 풍기었다.

창혁이 설계실에 들어오니 박기사가 제일먼저 반색했다.

《오동무야 합격됐을테지?》

창혁은 씩스름히 웃었다.

《불합격도 아주 강한 불합격입니다.》

《어마? 통담이지요?》

은옥은 정교하게 선이 그어진 매력있는 동그란 눈을 살그니 치뜨며 웃었다.

《은옥인 내가 통을 하는걸 본적 있소?》

창혁은 분명 순편치 않은 어조로 말했으나 은옥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듯 생글생글 웃더니 사도한 도면들을 안고 날새처럼 빠르게 실장방으로 들어갔다.

얼마후 은옥은 곱게 패여있는 볼우물에 웃음을 활짝 피우고 경쾌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박기사가 또 선수를 걸었다.

《하, 우리 은옥인 칭찬을 받은 모양이다?!》

은옥은 살래살래 고개를 휘저었다.

《칭찬은 무슨?!... 이제부턴 저도 도면이나 옮겨쓰는 사도작업에만 만족 말고 기사동지들처럼 기술혁신과제를 맡으라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글썽 <동문 뭐 보라매는 조롱에서 못 키우고 산천어는 어항에서 못 키운다면서 조용한 설계실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한단데... 누가 동무에게 랑만적인 생활을 쟁반에다 척 받쳐서 가져다줄것 같은가? 동무자신이 창조해야 한단 말이요.> 이러더군요, 호호호...》

은옥이 실장의 목소리를 방불하게 흉내내는데 모두들 꼭 거울속의 실장을 보는듯 하여 유쾌하게 웃었다.

모두가 칭찬은 고사하고 비판이나 충고를 받았건만 무엇때문인지 명절을 맞은 아이들처럼 수뿃 기쁨에 싸여있었다.

리유인즉 깊이 생각해볼것도 없었다.

누구라없이 실장의 질책에서 어제가 옛날이며 오늘의 자만은 래일의 담보만을 안아온다는 약동하는 현실감과 함께 몸은 비록 외진 산골에 있어도 정신은 세계를 향해 내달리자는 말없는 호소를

읽은것이였다.

옳게 깨달은 인간은 기쁘게 반성한다고 한다.

창혁은 어느 정도 이들과 비슷한 심리를 느끼기는 했으나 왜선지 설통한 감정이 앞섰다.

결모양부터 현장기술자라기보다 배우나 외교관같은 인상을 주는 실장에게는 확실히 구체적인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 결맞이 있었다. 물론 실장의 말은 다 옳다. 하지만 옳다고 하여 다 현실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때문인것이다. 그래서 리론과 실천간의 차이라는 말도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창혁은 실장이 심한 자기 주관에 빠져있다고 생각했다.

우둘투둘한 돌발길을 걷고 골짜기로 내리쫓린 가파로운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니 날은 별로 따스하지도 않건만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그처럼 야단스럽게 울려오던 채굴설비들의 각이한 동음소리는 꿀벌의 나래소리처럼 아련풋하게 들려왔다. 그대신 얼마전해야 겨울의 얼음장을 깨 곳이 밀어제긴 내가의 생신한 물소리와 다람쥐같은 작은 짐승들이 바스락대는 소리, 이름모를 못새들이 겨끔내기로 지르는 노래소리가 더 크게 울리었다.

언제 꺾어들었는지 풀대갈기도 하고 나무가지갈기도 한것을 휘휘 두르며 거침없이 앞서나가던 현성실장은 문득 한쪽무릎을 굽혀 풀밭우에 앉더니 무엇인가를 주어들었다.

령신환처럼 동굴동굴하고 희뿌옇게 색이 바랜것이 산토끼의 배설물 같았다.

자기의 손바닥우에 놓인 짐승의 배설물과 창혁의 설통한 표정을 번갈아보던 실장은 한알을 골라 손끝으로 비벼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다.

잠시후 실장은 손바닥을 마주 비벼 털며 웃었다.

《분명 염소배설물ियो. 산토끼배설물은 냄새가 삼삼하단 말이요. 이렇게 하기로. 나는 등너머쪽을 돌아보고 올테니 동무는 여기 골짜기를 다시한번 살펴보시오.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박토를 쏘아부어도 해될것이 없겠는가 하는겁니다.》

하나마나한 일이였으나 예까지 온 이상 굳이 비틀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헌데... 등너머에까지 가볼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야 우리 군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더 가봐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여기까지 나을 염소가 있을리 없는데 이렇게 나졌으니 이젠 분명 다른 어디선가 온 손님의것이 아닌가 하는거요!》

말을 마친 실장은 신발을 벗더니 침범침범 개울을 건너갔다.

창혁은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지금껏 명백하게 타산되고 계획된 일만을 실행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준칙으로 여겨온 자기가 똑똑한 목적도 없이 눈먼 송아지 워낭소리 따라오듯 무턱 실장을 따라온것이 허거퍼났다. 하지만 좋은실든 실장의 걸음에 박자를 맞추어야 했다.

창혁은 풀숲의 여기저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강기슭을 훑어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예견했던바 그대로 특별하게 눈에 걸리는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한초한초 귀중한 시간이 멋없이 흘러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널찍한 돌 하나를 골라 그우에 앉아 상념에 잠겨있는 창혁의 귀가에는 지난해 도적인 년간기술 혁신과제총화모임이 있던 다음날 자기를 따로 불러 축하해주던 과학원 부원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창혁동무라고 했지요? 축하합니다. 우리 과학원에서는 동무의 기술혁신성과를 두고 칭찬들이 대단합니다. ...

창혁동무! 계속 분발해주시오. ...》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창혁은 등뒤에서 끝안의 고요를 흔들며 청청하게 울려오는 현실실장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내 희한한것을 가져왔소.》

창혁은 별로 반가울만 한 일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내키지 않는 걸음에 조금 속도를 주며 실장걸음으로 다가갔다.

풀판위에 퍼터앉은 실장은 하얀 염소젖이 그득들어찬 비닐병을 꺼내놓았다.

《여기서 두리쫘 내려가니 아나나다를가 지난해에 새로 생겼다는 축산분조가 있더군요.

아직 염소마리수는 그리 많지 않던데...

광산에서 왔다니까 거기 처녀들은 무엇때문에 자기들에게 왔는지 알고고도 하지 않고 무척 반가와하면서 자꾸 염소젖을 권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동무도 한번 맛보십시오.》

웃음기가 철철 흐르던 실장의 얼굴에는 점차 신중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아쉬운대로... 동무의 도면을 포기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박토를 쏟게 되면 미세화기는 하겠지만 화약성분이 배여있는 돌가루는 저 골짜기너머까지 날아갈겁니다. 그런데다 그 처녀들의 염소들도 여기까지 넘나들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실거란 말입니다.》

《?!...》

《동무도 알겠지만 염소는 화약성분이 들어있는 물이나 풀을 먹으면 배앓이를 하게 되요. 심한 경우에는 죽을수도 있소.》

《그러니 얼마 안되는 염소들을 위해서 또 있을

지 없을지 아직은 뚜렷하게 확인하기 힘든 염소들의 병을 방지하기 위해 콘베이션로를 변경시키자는겁니까?》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선로를 돌려서 새 축산분조를 흥하게 하는것이 경제적이겠는가, 아니면 선로를 그대로 건설하여 그 처녀들이 품들여 조성해놓은 기름진 풀판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것이 리롭겠는가? 이것은 실리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량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난 이것이 우리 군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책임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있는 린점군의 일이기때문에 더구나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로 찬성할수 없습니다.》

실장의 입에서는 바로 오늘 아침에 들었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재현되었다.

창혁은 할말이 아주 없지 않았으나 일이 이쯤되면 실장의 결심을 변경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느니라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키었다.

그는 맞은편 산기슭쪽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어디선가 두마리의 꿩이 날아와 자연이 신비스러운 재주로 꾸며놓은 천연의 화원속에 내려앉았다. 지난 겨우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비둔하리만큼 피동피동하게 살이 오른 꿩들은 울긋불긋한 깃털을 번쩍거리며 자못 거만한 걸음으로 꽃숲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자그마한 짐승이 튀어나와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너무도 화려한 봄꽃들의 모습에 그만 시기심이 알각 동했는지 힘찬 날개짓으로 꽃가지들을 후려치며 소란스레 날아올랐다. 그러자 산중턱 벼랑턱에 쪼그리고 모여앉아 빨간 눈알을 반짝거리며 기회를 노리던 산비둘기들이 이제야 자기들에게 꽃밭구경차례가 온것이 무등 기쁜듯 구구구— 청고운 소리를 뿌리며 꽃밭속으로 줄줄이 곤두박치었다.

실장은 사뭇 정찬 어조로 뇌이였다.

《우리 둘이서만 구경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풍경이구만요.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버력으로 물어버린다는것도 아깝고 또 이 지대에만 류달리 많은 약초들을 덮어버린다는것도 아쉬운 일인데...

어떻습니까? 동무생각엔...》

창혁은 이 순간 자기가 조타를 틀어잡은 생활의 배, 지금껏 설계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함선이라고 확신했던 그 배의 어느 구석엔가 실금같은것이 나있지 않을가 하는 가벼운 의혹을 느끼었다. 하지만 즐기치게 내달리는 자기의 배에서 있을지말지한 그 실금을 기어코 찾아보고싶은 의욕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명확히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는 그 실금을 고집스럽게 가리켜보이는 실장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싶었다.

별로 큰 일이 생길것 같지도 않은 린점군의 축

산분조일을 더 중시하는것이 과연 옳고 정확한 처사이겠는가. 물론 아름다운 자연도 귀중하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기술자다. 서정에 현혹되어 명상적인 사색을 펼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날 실장은 저녁모임에서 수백마리의 염소를 한꺼번에 매장할번 한듯이 (분명 창혁에게는 거의 그렇게 들리었다.) 엄엄하게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창혁이 응당하게 그리고 대답하게 새도면을 결심했다고 부언하였다.

총화를 마친 실장은 새 소식을 알려주겠다며 방금전까지 엄숙해있던 사람같지 않게 웃음을 지었다.

《이번에 기업소에서는 뜻깊은 올해 첫 분기계획을 넘쳐수행한 전체 종업원들을 축하하는 예술소조공연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실에서도 2개 종목을 맡은것만큼 모두가 합심해서 한번 잘해보시다.

훈련은 오늘 저녁부터 퇴근후 한시간씩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실장이 사업일지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은옥이 제일먼저 환성을 울리고 나이에 비해 퍼그나 랑만적인 박기사가 벌써부터 코노래를 부르며 벽 한쪽에 걸려있는 복을 집어들었다.

실장은 아침사업조직이 끝나자 7호굴착기작업구역으로 나갔다.

창혁은 지체없이 제도판에 마주앉아 새 설계에 달라붙었다. 박토처리구역을 다시 설정한 도면이었다.

부결된 설계도면으로 너무도 많은 정력과 시간을 잃은 창혁은 손에 불이 달려가지고 부지런히 점을 찍고 선을 그어나갔다.

...며칠전, 그러니 실장과 함께 현지확인을 갔다온 다음날이었다.

실장은 제쪽에서 먼저 새로 정한 박토처리구역에 나가보자고 하였다.

창혁은 자기의 일을 도와나서는 실장이 고맙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시시콜콜이 따라나서며 간섭하는 품이 자기 실력을 미덥지 않아하는 것만 같아 속이 몹시 좋지 않았다.

허나 창혁은 실장이 누구보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인것만은 부인할수가 없었다.

실안의 설계원들의 기술혁신과제를 수시로 건진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어야 했으며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도면들은 거의 혼자 떠메고 설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손에서 컴퓨터마우스와 책을 놓지 않고있었다.

오늘 아침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실장방으로 들어가니 현성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끄덕끄덕 고개

짓을 하며 즐기고있었다. 처음보는 실장의 실책이었으나 그 모습앞에서 사람들은 웃기는커녕 그의 입술귀에 콩알처럼 불거져오른 물집을 여겨보며 더운 침을 삼키었다.

헌데 실장은 제 먼저 새 박토처리구역에 가보자는것이 아닌가.

창혁은 혼자서도 능히 현지답사를 깐깐히 할수 있다고 뻔대고싶었으나 왜서인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결국 창혁은 실장과 함께 새 박토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골안에 가게 되었다.

얼핏 보아도 여기에는 설핀 잠판목들이 떠엄떠엄 널려있을뿐 이렇다하게 눈에 걸리는것은 없었다.

하지만 실장은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것처럼 좌우를 왔다갔다하며 살펴보더니 《골짜기폭이 너무 좁은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배로 늘이면 박토처리량은 지금보다 3배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금시 박토가 차넘치고... 그때 가서 골짜기를 잡아늘쿨수는 없는게고...》라고 말하였다.

...그날로부터 거의 한주일가까이 지나갔다.

창혁은 매일 맡겨진 도면에 골몰하면서도 실장의 조언대로 박토처리량과 박토처리구역용적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런데 그 방안은 오늘까지도 신통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무엇때문인지 실장방에 유심히 귀를 주고있던 박기사가 배가 불룩한 구력을 량손에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이어 창너머 다래나무쪽에서 박기사와 실장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이보라구, 집사람이 이걸 전해달라구 하면서 놓고 갔네. 아침에 실장동무가 부탁한건데 줌 늦었다면서...》

창혁은 창너머로 눈길을 돌리었다.

《그런데 이걸 뭐가?》

의아해하는 박기사의 말에 실장이 언뜻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창혁은 열결에 고개를 돌리며 시계를 쳐다보았다. 오늘 아침 딸 수향이가 평양견학을 떠난다는 생각이 피곳 떠올랐으나 설계생각으로 이내 머리속에서 사라져버렸다.

한참후 설계실로 들어선 박기사가 손짓으로 은옥이를 불러내갔다.

이어 실장이 자기 방으로 창혁을 불렀다.

창혁의 새 도면을 손가락으로 요소요소 짚어내려가며 까근히 훑어보던 현성실장은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특별

한 수가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골안에 박토가 다 차면 그우에 선로를 연장해서 뽑고 다음 골짜기로 박토를 넘기는것이 유일한 출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은 어딘가 표표해보이는 창혁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니… 2~3년후에는 또 다른 골짜기를 침범해야 한다는 소리데… 그건 안될 말입니다.》

실장의 끝을 모르는 요구성에 창혁은 그만에야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실장동지의 요구는 거의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전 콘베이션로를 설계할 과업을 맡았습니다. 박토처리구역의 확장하는것은 저의 설계에서 근본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혁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숨만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했다.

한동안 묵묵해있던 실장은 다소 부드러운 어조로 화제를 돌리었다.

《동무도 그렇겠지만 나도 가끔 자신을 두고 번민에 잠기곤 합니다. 정말이지 목표는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신을 느낄 때면 괴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욕망과 능력간에 차이가 있다면 본의는 어떻든 그 사람은 분명 말공부쟁이, 걸멋쟁이가 아닐까요?

우리 피차 높이 세운 목표를 탓하지 맙시다. 아니, 목표는 부단히 높이 세우면서 그 실행을 위해 더욱 분발합시다.》

창혁은 실장의 충고가 백번 옳다는것을 뼈아프게 인정하였으나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실장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제목으로 해설모임을 조직하였다. 창혁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두번째설계에 대한 보충적인 요구성으로 이해되었다.

저녁총화모임이 있는 후 회관에서는 래일 진행하게 될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습이 있었다.

실장이 부른 독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다.

이날 저녁 창혁은 어느날과 다름없이 식사를 마치고나서 책상우에 설계도면을 펴놓았다.

그는 안해가 곁에 다가와서는것도 모르고 사색을 몰아가고있었다.

《수항이가 오늘 아침차로 떠나갔어요. 인민반에서랑 실사람들이 평양견학을 떠나는 딸애를 모두 축하해주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쩌면 잘갔다오라는 말 한마디없이…》

창혁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참, 미안하게 됐소. 그런데 실사람들도 왔었다는건 무슨 소리요?》

《은옥동무가 하는 말이 실장동지집에서 우리 수항이 도중식사까지 다 준비해서 가져왔다는거예요, 당신이 설계때문에 잠이 없을거라고 하면서…》

창혁은 그제서야 오늘 아침 박기사와 실장이 주고받던 말들과 은옥이가 조용히 설계실문을 나서던 일들이 깨도가 되었다.

안해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라!

창혁은 안해의 두손을 말없이 짹 움켜잡았다.

이튿날 아침 창혁은 안해가 씌워주는 비옷을 입고 일찌기 집을 나섰다.

쏟아지는 비발속을 걸어 설계실에 들어선 창혁은 비물에 젖은 얼굴을 닦을념도 않고 창가에 가섰다.

차거운 비방울들이 드세찬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치며 이제 겨우 새 토양에 익숙되어가는 다래나무의 무수한 가지들을 한데 껴잡아 흔드는가 하면 운무같은것이 뽕양게 서린 창유리를 금시 부서낼것처럼 다다다다 야단스럽게 두드러댔다.

창혁은 박토구역을 확장하는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시대는 최첨단을 돌라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내가 이쯤한 난관앞에서 불가능이라는 표쪽을 쳐든것은 확실히 부끄러운 일이다.

자연이 빚어놓은 골짜기를 인간의 두뇌로 확장하자면 실장이 말한것처럼 지금까지 답습해온 사고방식이나 각도에서 혁신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 우리가 쏟아붓는 박토를 폐석으로 그냥 내버리지 말고 생산물로 전환시킬수는 없을까?!

사색의 수레가 어떤 정점같은데를 향하여 치솟아오르는 순간 짜릉짜릉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송수화기를 드니 성미가 기름불같이 팔팔한 기사장의 빠른 말소리가 쿵뽕뽕이 쏟아져나왔다.

《실장동무가 안 들어왔소?》

《예, 아직.》

《이거 문제구만! 벌써 건설돌격대가 조직되어 지대정리에 달라붙었는데 아직까지 파쇄장도면이 나오지 않으니 이러다간 정말 말타고 버선 깎는다는 소리가 나겠구만, 영?—》

불현듯 어제 있던 일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실장은 창혁의 책상우에 자기의 파쇄장도면을 펴놓으며 말하였다.

《오동무! 한가지라도 결함을 잡아내겠다는 심정으로 내 도면을 봐주오. …》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으나 그속에는 자그마한 통기도 없었다. 폐절삼아 마주 웃고난 창혁은 실장의 도면에 눈길을 모았다. 뻥뻥한 집도자의 시선으로 도면을 훑어보던 창혁은 저도 모르게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명백하면서도 시원시원한 형태에서부터 벌써 현대감이 물씬물씬 풍기었다. 아무리 따져보아야 완

성이란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었다.

창혁의 견해를 들은 실장은 불만의 의미가 어린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동무한테서만은 좋은 의견을 꼭 들을줄 알았는데… 정말 최상의 수준이라는 표현과 내 도면을 나란히 놓고볼 때 그렇게도 할말이 없을수 있겠소?... 다시 한번 뽕족하게 봐주오.》

칭찬을 해놓고도 난처한 립장에 빠진 창혁은 창가로 시선을 돌리었다.

언제나 화려한 꽃을 피워보지 못했던만 실망은커녕 소리없이 정력적으로 솟구쳐오르는 싱싱한 선인장화분이 여느때없이 의미깊게 안겨왔다. …

실장은 얼마든지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 있는 도면을 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을가? 요구성을 높이는것도 한계가 있지. 한데 아침 첫시간에 현장에 나간 실장동무는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가?

두루 망설이며 서있던 창혁은 갑자기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듯 벽에 걸려있는 파란 비웃을 벗겨들었다.

폭우속으로 뛰어들었다.

창살처럼 내리쬐히는 비발에 젖어 기름칠이라도 한것처럼 반들거리는 돌맹이에 미끄러져 비틀거리기도 하며 반달음을 놓았다.

림시로 세워놓은 천막안에서 실장이 부재직장장과 함께 어디론가 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창혁의 심장은 대번에 후두둑 뛰었다.

부재! 그렇지, 내가 찾고져 했던… 아니, 어렵풋하게 잡아쥔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창혁은 더 깊이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다시 폭우속으로 뛰어들었다.

새 박토처리구역으로 마냥 달리던 창혁은 무릎걸음을 멈추었다. 저쯤 아래에서 차거운 비에 흠뻑 젖은 실장과 부재직장장이 서로 부축하며 이쪽으로 올라오는 모양이 눈에 띄운것이였다.

반가운 생각이 동하기 전에 창혁은 감동인지 원망인지 알수 없는것이 가슴속에 짝 솟구쳐올랐다.

《실장동지, 여긴 뭐 저와 함께 오면 안되는 곳입니까? 혼자 이러시면 전 뭐가 되는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모든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동무와 토론하려 했었는데.》

실장은 창혁의 짜증이 배인 소리를 혼연하게 웃으며 받아넘기였다.

남달리 룡담을 즐기는데다 사람이 좀 싱겁기까지 한 부재직장장이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제야 믿음직한 지원부대가 도착했군. 어서 동무네 실장인가 하는 이 떼군을 인계받소. 난 몇 모르고 따라나섰다가 위생병노릇만 실컷 했소, 하하하.》

실장은 물속에서 방금 나오기라도 한듯 온몸이 흠뻑 젖어있었다. 이마우에 마구 헝클어져내린 머리칼, 벌겋게 익은 얼굴, 퍼렇게 언 입술… 그래가지고도 실장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그냥 웃으면서 골짜기어구를 가리켜보였다.

《바로 저기에 파쇄기를 얹히면 어떨것 같소? 박토가 쏟아져내리는 족족 파쇄장에 날라다가 짹 짹 때리면 말이요, 그렇게 되면 주먹만 한것은 건설용골재로 쓰고 돌가루는 ब्ल록를 찍는데 쓰면 될게 아니겠소.

지형이 대체로 평평하니 생산한 부재를 뽑는 일도 그다지 품들일것이 없단 말이요.

그래 얼마나 멋있소? 채광장에서 암만이고 박토를 쏟아부어도 그게 줄줄이 골재나 ब्ल록가 되어 현재 광산에 일떠서고있는 중소형발전소건설과 주택건설에 꼭 리용되겠으니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등지털어 볼때는 격이 아니겠소?》

비는 여전히 억수로 쏟아져내리고있었으나 창혁의 열떠름해진 머리속에서 환희라는 형체없는 새가 세차게 나래를 퍼덕거리였다.

다음순간 그 어떤 죄의식이 불쑥 갈마들었다.

이 땅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실리있는 새것을 창조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온몸을 불길처럼 태우는 인간, 그는 인민군대지휘관처럼 설계실이라는 별로 소문을 낸적 없는 고요한 소부대를 앞장에서 힘차게 이끌어나가는 능력있는 일꾼이였다.

두손으로 세면하듯 얼굴을 내리쬐는 현성실장은 창혁이의 등을 가볍게 떠밀며 반동조로 말하였다.

《부재직장장동무가 우리 일때문에 수고가 많았는데 빨리 가서 무엇이든 준비를 좀 하시오. 그러지 않다가 큰 변이 날것 같소. 하하하.》

창혁은 걸음을 다그쳤다. 폭우는 섰다. 폭우는 뜨거웠다.

아까부터 회관앞마당에서 서성거리고있던 창혁은 다시한번 드넓은 도로를 바라보고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니 실장동진 종시 오지 않는구나!)

…오늘 아침, 창혁이 완성한 도면은 기술과의 높은 평가를 받았을뿐아니라 지체없이 실현시키기로 했다.

기사장을 찾아간 창혁은 《이번 도면은 저 하나의 창안품이 아닙니다. … 오늘 저녁 혁신자축하모임에도 웅당 실장동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들이쳤다.

기사장은 무슨 심각한 생각을 더듬는듯 하더니 헉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소. 내 대형차를 대고 끌어서라도 동무네 실장을 회관무대에 세워놓을테니 걱정 짹 놓소.》

헌데 훨씬 위력할줄 알았던 기사장의 그 대형차도 효력을 내지 못하였다.

…얼마후 창혁은 꽃다발을 한아름에 안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서는 봄날의 생기가 자글자글한 별들이 서로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며 반짝이고있었다.

눈에 익은 설계실건물을 띄여보는 순간 창혁은 스르시 걸음을 멈추었다.

만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은 자기와 지금도 설계실에 남아 기사들의 도면을 훌륭히 완성하기 위해 골몰하고있을 실장동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비껴올랐다.

최첨단을 돌파할 만만한 야심을 품고 컴퓨터의 마우스를 여념없이 누르고있는지도 몰랐다.

이날 저녁 사람들은 뒤마당의 다래나무주위에 ㄷ자로 박아놓은 나무의자에 앉아있었다.

실장은 다래나무가지를 가볍게 휘어잡으며 걱정적인 어조로 계속하였다.

《…동무들도 모두 보았겠지만 오늘 신문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어느 한 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멋쟁이라고,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치하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멋쟁이! 얼마나 과분한 평가이고 매혹적인 치하입니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훌륭한 창조물을 보실 때마다 이처럼 값높은 치하와 평가를 안겨주십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동무들에게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렬히 호소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해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장군님께서 우리 광산을 찾아 주시는 영광의 그날 멋쟁이라고 치하하시며 기뻐하실수 있게 최상최대의것으로 완성하자고 말입니다.》

창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다래나무앞에 서있는 실장을 바라보았다.

실장의 불गत한 얼굴에는 고상한 정신적인 미와 지성적인 품위가 기품있게 어울려드는데 그의 몸에서는 용솟음치는 젊음과 불붙는 열정이 뚝뚝 내 끼치고있었다.

그래! 실장은 우리 실에 배치되어온 첫날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는 창조물들을 위해 사람들의 도면을 가차없이 부정하였다.

그러고보면 실장은 지성과 인격도 엄격한 성미마저도 매력있는 인간이다.

언제나 장군님께로 달리는 숭고한 정신세계!

품들어 사귀고싶은 인간이다. 어깨걸고 달리

고싶은 사람이다.

실장이 창혁에게로 다가오며 말했다.

《오동무! 축하합니다.

혹시 다른데 가도 여기 설계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잠시 당황했던 창혁이 웨치듯 말하였다.

《가지 않겠습니다.

전… 이 설계실을 떠나지 않겠단 말입니다.》

《창혁동무!》

실장의 마음은 개운했다.

창혁의 도면이 현실적으로 은을 냈고 박기사가 맡은 과제도 훌륭히 완성됐다. 그리고 여직껏 사도작업으로 만족해하던 은옥이도 대담하게 기술혁신과제를 떠메고 나선것이다.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데… 하, 거 신통히도 오늘이 제 생일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무얼 좀 싸주던데 함께 들면서 기쁨을 나눌시다.》

실장은 웃음기를 머금은채 돌로 만든 탁우에 음식을 꺼내놓았다.

실장은 여기 설계실에 온지 두달도 안되는 사이 오늘까지 벌써 세번째로 자기의 《생일》을 선포하는것이였다. 지나간 두번의 《생일》도 매번 설계실안의 사업성과와 결부되어있었다.

은옥이 갑자기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없이 웃으며 다른 손으로 구력을 올려놓았다.

박기사는 느릿느릿 가방을 들어올리며 천연스럽게 둘러댔다.

《음력으로 따져보니 내 생일도 오늘이더군. 신통하단 말이야.》

창혁은 다시금 그들먹해지는 심정으로 아무말없이 안해의 성의가 깃든 음식을 꺼내놓았다.

무슨 위험한 폭발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이다병을 꺼내들던 박기사는 창혁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그러니 창혁기사도 오늘이 생일인 모양이구만. …》

《예, 그래서 오늘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마당청소라는걸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썽 안해가 눈물이 다 글썽해지며 오늘에야 비로소 남편다운 남편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모두들 어깨를 들썩이며 시원스레 웃었다.

《실장동지, 정말 잘 왔습니다.》

창혁의 뜻밖의 말에 실장이 어리둥절하였다.

《그건 무슨 소리요?》

《실장동지가 우리 실에 온게 종단 말입니다.》

시 초

# 칠 보 산 아!

김 정 삼

## 칠 보 산 아 ! ( 1 )

한이로다 이제야 내 여기 찾았음이  
동방의 제일경치 여직 못 보고  
이 강산 아름다움 내 노래해왔었구나

삼봉이암 저 기묘한 돌기둥에 덮인 이끼  
유구한 역사를 전해주는듯  
천길절벽아래 일어서는 거센 파도  
이 나라 인민들의 의기를 형용하도다

내 바이 건줄데 몰라라  
끝마다 한껏 타는 일만단풍은  
불길인듯 불꽃인듯 선풍에 나뭇기고  
지하동계곡의 내리쬐는 폭포수는  
구슬깨미 풀어헤쳐 허공에 휘뿌리도다

어디에 눈길주랴 눈길 머물라

끝은 끝마다 바위는 바위마다  
선조의 모습 그려주고  
흐르는 물결도 전설의 자랑이요

오 위대한 령장의 축복내려  
만년의 잠을 깨며 신비를 뿜는 칠보산아!  
장군님 오르신 그 애국의 절정에  
어서 오라 인민을 불러들이며  
세계의 명산으로 네가 우뚝 솟았구나

새벽기운 서리운 해망대에 올라서니  
예서 천하는 내 발밑에 누웠도다  
아득한 창과우에 뚫어오르는 태양과  
애국의 일념으로 더운 가슴 마주하고  
내 이 나라의 타오르는 아침과  
목메인 상봉의 인사를 나누도다

## 여 기 가 학 원 이 로 다

백학의 무리 훨훨  
춤을 추며 내렸는가  
궁궐같은 문화주택  
땅속에서 솟았는가

침침 칠보절경  
병풍처럼 두르고  
꽃속에  
파일나무 열매속에 웃는 동네

예가 집자랑 약수, 온천자랑에  
휴양객들 구름처럼 밀려든다는 황진마을  
천길땅속의 그 진귀한 보약물이  
집집의 수도마다 팔팔 흘러내린다는...

풍치좋은 야외욕탕 온천물이 하도 좋아  
선경마을 처녀들 하나같이 선녀같나

약밤나무숲속의 약수가 하 좋아  
이 고장 사내들 선남같고 장수같나

온 가족이 사랑의 텔레비존앞에 앉아  
강성부흥 조국의 모습 기쁨속에 안아보고  
월락봉의 등근달 축등인양 밝을 때면  
온 마을이 무도장인듯 지화자 춤판 들썩—

래년쯤엔 이곳에 메기공장 서고  
종합식당 봉사기지 번듯하게 솟는다는  
료양소 젊은 소장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뜨거움에 축축히 젖는구나

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무릉도원 꾸려주신 장군님은덕  
박달령너머 등기당당 노래 전하는 황진마을  
칠보산에 솟아난 사회주의락원이여!

## 쇠 물 빛 단 풍 아

반가워라 내칠보의 아름다운 단풍이여  
내 끓이던 쇠물이 펼쳐졌는가  
정가로운 바람결에 억만잎새 나뭇기며

어서 오라 용해공을 반겨주누나

끝까지 맑은 물에 황황 타는 붉은빛

일어일어 구름걸린 산상을 쪽 덮으니  
태양아래 타오르는 불노을인가  
좌- 설레임소리 골안에 명동하니  
흡사 거대한 쇠물바단가

어허 쇠장대 들고싶어라  
쇠물냄새 물씬 풍겨오는듯

조국을 받드는 용해공의 자부가  
명산의 단풍되어 세상앞에 펼쳐진듯

좋아라 유정한 저 하늘빛  
좋아라 새들이 지저귀는 록음도  
그러나 용해공이 사랑하는 붉은빛  
그 빛으로 한껏 타는 단풍은 더욱 고와

## 해 칠 보의 붓바위를 보며

그 누가 던졌는가 저 바다에  
어인 일로 던졌는가 붓 한자루

아마도 그 옛날 어느 한 서생  
칠보의 노래 지으려고 이곳을 찾았다가  
절승의 황홀경 정녕 못 담아  
무재를 한탄하며 내던진 저 붓이리

물보라 일으키며 바위를 치는 파도는

못 이룬 그 선비의 몸부림을 안았는가  
수수천년 기슭으로 밀려오는 물결은  
그날의 탄식을 지금도 실었는가

돌벼루가 구멍난들 어찌 다 그려내랴  
칠보산의 아름다움 이 신비를  
인민의 명승지로 그 절경 더욱 빛나  
나도 선뜻 붓들기 저어하노라  
저 바다에 또 하나 붓바위 생겨날라

## 내 이 세상에 태어나

여기서는 거치른 돌 한그루의 로송도  
신비한 광채를 누리에 뽐는다  
여기서는 단풍잎새 조잘대는 물소리도  
정다운 가락이 되어 온 세상을 부른다

칠보산아 너의 찬란한 아름다움앞에  
내 살아온 서른여섯해를 세워보나니  
자부심높은 이 사나이 머리숙여지는구나

무심한 청산과 록수조차도  
조선을 떨치는 자랑으로 솟았나니

오, 성스러운 혁명에 바치는 나의 삶이  
더욱 억세고 더욱 불타라고  
천험의 산악들이 웨치고있구나  
내 이 세상에 태어나  
저 청산과 록수앞에 부끄럼없게 살리라!

## 칠 보 산 아 ! ( 2 )

다시 한번 안아보자 축복받은 명산이여!  
다시 한번 불러보자 아 조선아!

눈부신 해 머리우에 밝게 비치는  
칠보의 산정우에 금지높이 내 섰노니  
동서남북 눈길주는 그 어데나 안겨오는  
아 선군시대의 천하절승이여

희한한 삼지연거리 밀림속의 대언제...  
전변의 새 절경 백두산은 자랑하고  
이글거리는 해돋이노을속에 휘감기여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가 환희에 넘쳐 키쫓구네

행복의 미소 방실 어려 단풍은 더욱 곱나  
황해의 명승 구월산이 손저어 부르고  
서편에선 변을 만나 더 예뻐진듯 더 장해진듯  
묘향산의 이선남폭포 그 춤물결 흥이로다

세월흘러 가꾸어진 산천의 선경인가  
인민이 있구야 명산도 있고  
인민의 향유물이 될 때  
일만경치도 그 가치 더욱 빛난다는  
우리 장군님 이민위천 그 높은 뜻 어려있어

나날이 아름다와지고 더 아름다와지는  
내 조국 그 어느 명산에 가보아도  
인민이 당당한 행복의 향유자되어  
사회주의 부귀영화 땀땀 누려가나니

칠보산아 종각봉 큰 울림 한껏 터쳐  
이 시대의 영광을 길이길이 전하여라  
인류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의 최절정에서  
선군령장이 반들어올린  
우리 인민이 웃고있다고!



## 김상오와 시집 《나의 조국》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시인 김상오는 생애의 전기간 시집 《나의 조국》을 비롯하여 여러권의 시집들을 내놓은것과 함께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해방후 시 《그대들의 피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로 시창작을 시작한 그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 《광장》〔주체39(1950)년〕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해방된 새시대에 사는 새형의 작가로 태어난 자신의 기쁨과 환희를 노래한 시집 《우리의 날》〔주체39(1950)년〕을 내놓을수 있었다.

물론 시인은 해방전에 《작품속에서》를 비롯한 몇편의 시를 썼으나 그의 진정한 문학창작은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후 그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비친 시집 《증오의 불길》〔주체41(1952)년〕을 내놓아 전시문학창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인은 전후복구건설의 장엄한 행진곡이 울려 퍼져 가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노래한 시집 《아름다운 기슭》〔주체48(1959)년〕등을 발표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시집 《나의 조국》〔주체77(1988)년〕등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러권의 시집을 남긴 그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시 《축원》과 시초 《성스러운 탄생》, 시 《축하를 받으시라 최고사령관동지》등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시집 《나의 조국》을 보면 시인의 시적재능과 창작적개성을 잘 알수 있다.

시집에는 우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노래한 수많은 송가작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정시 《나의 소원》〔주체66(1977)년〕, 《위대한 사랑》〔주체66(1977)년〕, 《그날, 그 순간》〔주체66(1977)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말씀》〔주체66(1977)년〕, 시초 《성스러운 탄생》〔주체81(1992)년〕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시초 《성스러운 탄생》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받들어올리던 2월의 그날이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모든것이 승엄한 정적속에 잠기고 밀림은 바람 소리마저 숨죽이고 산들은 자세를 가다듬고 떨지어 서있다. 계곡은 깊은 신비속에 밝아오고있으며 강물은 얼음장을 떠밀며 유유히 바다로 흐르고 대지는 서서히 겨울을 벗으며 씨앗을 기다리고있다. 사람들은 눈을 빗내이며 별을 찾아나서고 때이른 철새도 줄지어 날아들고 강산은 행복한 예감을 안고 봄우뢰의 메아리인양 슬렁이고있다.

친애하는 그이의 탄생을 알리며 노을을 향해 큰 수리 한마리 나래펴고 날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기다려 하들도 땅도 산천초목도 우러러 다함없는 만민의 흠모를 담아 환희를 뿌리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손들어 백두산을 가리키시며 높이 아드님을 안아올리셨을 때 장엄한 해돋이는 그 영원한 아침이 아로새긴 위대한 장군님의 슬기로운 영상을 보았으리라.

...

손저어 정답게 반기시는 그이앞에  
끝없이 끝없이 펼쳐진것은  
태양의 품에 안겨 소생하는 조국과  
영원히 번영해갈 그 래일이였다

쉬임없는 학구와 사색의 나날에  
탐구의 불길로 불사른 그 많은 밤들을 거쳐  
드디어  
세계를 향해 광명의 화불을 높이 드신  
주체위업의 기수 김정일동지!

...

시초 《성스러운 탄생》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을 장군님을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쁨과 감격, 행복과 영광의 감정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감정, 환희와 랑만에 넘친 서정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시집에는 또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들이 있다.

이 시집에는 서정시 《나의 조국》〔주체68(1979)년〕, 서정시 《참된 삶이 탄생하는 집》〔주체69(1980)년〕, 《첫인사》〔주체72(1983)년〕, 《거리를 거닐며》〔주체72(19

83)년], 《내가 살던 집》 [주체72(1983)년], 《작별 인사》 [주체72(1983)년] 등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곧 조국이라는 철학적인 사상감정을 노래한 시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 〈나의 조국〉은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언어로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시적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하였습니다.》

시집에 들어있는 시 《나의 조국》은 시인의 대표작이다.

진정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시인의 사색속에 펼쳐진 고향마을 정든 집과 동구밖 오리나무숲의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마을을 감도는 여울물소리가 대답한다. 그리고 다심하신 고향어머니와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논벌에서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이 대답한다.

조국을 위해 피로써 눈보라 수만리길을 헤쳐왔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한치의 조국땅을 위해 웃으며 꽃처럼 진 애어린 청춘들, 한줌 흙속에 조국을 싸안고 간 투사들, 한떨기 진 달래꽃향기에 눈감고 조국을 그려본 녀대원 또 조국을 위해 어머니품을 떠나간 수많은 아들딸들이 대답한다.

...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서정시 《나의 조국》에 충만된 사상감정은 조국이라는 그 평범하나 위대한 존재에 대한 심장으로부터의 느낌이며 열렬한 사랑이다.

조국에 대하여 느끼는 모든 아름답고 숭고한 감

정을 토로하면서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이 시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하여 느끼는 새로운 감정, 조국의 귀중함과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시집에는 또한 기적과 창조로 들끓는 사회주의 현실을 노래한 시 《비날론공장건설장에서》 [주체49(1960)년], 《천리마동상에》 [주체49(1960)년], 《지하철도에서》 [주체73(1984)년], 가사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주체48(1959)년],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주체48(1959)년] 등이 들어있다.

시집 《나의 조국》에 수록된 시작품들은 현실에 대한 사색적이며 진지한 태도, 철학적사색의 깊이와 지성의 높이가 보장된 시적묘사로 일관되어 있다.

시인의 창작적개성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뜨거운 열정과 지성적인 분석력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철학성과 서정을 확대심화하는 연속적인 침투력이다. 문체적전지에서도 그의 시는 열정의 분출이라기보다 사색의 깊이로 특징지어진다.

시인은 자기 시집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기발한 형식이나 아름다운 문체는… 흥미가 없었으며… 다만 소재와 정황과 주제가 요구하는 그리고 거기에 야기되는 감정과 서정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담을수 있는 형식을 모색》했을뿐이다.

이로부터 시인의 시에서는 특별히 기지있는 표현, 재치있는 형용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말투도 때로는 보통사람들의 산문적인 말투를 그대로 쓴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역시 그에게만 고유한 형식과 문체가 있다. 그것은 시적계기에서 환기된 서정을 연속적인 자문자답으로 부정하고 긍정하고 또 부정하면서 집요하게 미지의 철학세계, 미의 세계에로 육박해들어가는 열정과 사색의 끊임없는 확대심화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제에 걸쳐 다양한 양상적특성을 보여주면서도 생활정서의 풍만성과 깊은 사색, 높은 지성도를 보장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 누구나가 다 아는 시인으로 자라난 김상오는 오늘날도 우리 시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구나 살기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우리 조국을 뜨겁게, 소리높이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있다.

허 룡

# 주 소

## 오 해 심

주소는 사람의 위치와 행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소를 모르고 사람을 찾는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이다.

나역시 주소를 모르고 사촌동생을 찾아헤매느라고 술한 고생을 한 체험이 있다.

1년전에 나는 길가에서 뜻밖에 사촌동생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만수대거리 살림집건설장에서 일한다고 하였는데 바쁘다며 총총히 사라져버린 그를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생길줄이야...

만수대거리는 이미 1년전에 준공되었으니 어디 가서 그를 찾을가.

나의 머리속에는 다행하게도 인차 향만루식당개건공사에 참가하게 될것 같다고 했던 동생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향만루식당을 찾은 나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새 말끔히 새옷을 갈아입은 식당건물이 나를 맞아주었던것이다.

마침 주변에서 정리작업을 하고있는 한 청년의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동생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을것이다.

《글쎄, 또 어느 건설장에 가있겠지요.》

나는 건설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철수한 날자에 비추어 자기판의 판단을 가지고 평양 시내의 1~2층까지 올라간 건설장들을 거의다 찾아보았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평양지하철도 봉화역정문을 나서던 나는 기중기의 힘찬 동음소리에 눈길이 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해방산거리 살림집건설장이었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자!》라는 구호가 확 안겨왔다.

혹시 여기에?!...

마감단계에 이른 건설장입구를 향해 나는 자신 없는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로동안전원》 완장을 낀 아바이에게 제잡담 물었다.

《송학이라고 작업반장을 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아바인 모르십니까?》

아바이는 뜻밖에도 빙긋 웃더니 손을 들어 한창 마감전제작업을 하고있는 10층살림집을 가리켜보였다.

《있네, 송학반장은 지금 저기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내 찾아주지.》

나는 생각지 않게 그를 찾게 된 기쁨에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번 하였다.

한참만에 아래로 내려온 동생에게 나는 말했다.

《그렇게 주소도 알리지 않고 사라지면 난 어떻게 널 찾으라니? 널 따라다니느라 혼이 났다.》

《참 누이두, 지금은 모든것이 새로운 평양속도로 창조되고있어요. 건설속도도 그 질도 지어 모양과 형태까지도 최상의 수준에서 지은 살림집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솟아나는 10만세대살림집건설장인데 왜 그렇지 않겠나요.》

우린 선군시대 평양번영기를 펼쳐가는 수도건설자들인데 언제 주소를 남길새가 있어요?》

뜨거운 감동으로 가슴이 더워났다.

그리고 모든것이 새로왔다.

지금껏 동생을 찾아 뛰어다니던 그 모든 건설장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전날의 낡은 모습들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 모습으로 일떠서는 수도의 거리거리들...

그렇다, 그것은 정녕 또 하나의 새로운 살림집 구역, 새로운 거리들이었다.

모든 살림집건설장들이 불과 몇달사이에 절반계선을 넘어섰다.

10만세대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린 때로부터 1년 남짓한 사이에 그토록 변모된 수도의 새 모습!

저기 북방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며 희천속도가 창조될 때 여기서는 지난날의 모든 건설속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우리 시대—선군시대!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자신의 무던 판단력이 부끄러웠다.

소리치며 잘살게 될 그날을 향해 뛰고 또 뛰는 조국의 벽찬 숨결과 우리 건설자들의 힘찬 발걸음을 감수하지 못하고 시대밖에서 살아온것 같은 생

# 평양은 건설한다

## 리 광 선

아득히 뻗어간 행복의 거리거리에 이어  
하늘높이 처든 처마와 처마를 잇대며  
오늘도 평양은 건설로 들끓는다  
한낮에도 별처럼 빛뿌리는 용점의 불보라  
기증기며 혼합기들이 용쓰는 소리...

건설한다 평양은  
저기 웃음신고 달리는 궤도전차에  
더 큰 웃음을 멀리 실어보내려고  
푸르른 공원속의 거리거리에  
더 큰 행복을 엮어주기 위해  
평양은 건설한다

대동강물결위에 꿈나라를 펼치고  
춤추는 분수가에서 사진을 찍는 신랑신부들  
멀지 않아 그들의 품에 안길 아기들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날  
더 훌륭한 요람을 건설한다

겹쌓이는 고난과 시련을 박차며  
원썬들이 몰아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창조의 동음으로 짓누르며  
강의하고 영웅적인 숨결높이  
보란듯이 평양은 건설한다

이 땅, 그 어디 머나먼 두메에서도  
평양번영기의 숨결로 호흡하고  
위대한 창조의 그 메아리  
신심과 랑만의 산울림으로 울려가나니  
승리에 더 큰 승리를 부르며  
행복의 창조로 약속하는  
조선의 심장 평양

우리가 어째서 총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총대가 어째서 서슬푸른지  
우리가 부르는 건설의 노래속에  
얼마나 격렬한 결전의 노래가 울리고있는지  
원썬들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  
평양은 건설한다

건설하고 또 건설하라 평양이어  
일떠세우는 그 모든것에서  
평양맛이 나게  
우리가 살아갈 강성대국의 큰집이  
어떤것인가를 펼쳐라  
눈부시게 광희롭게

여기 색블록 한장한장이  
원썬의 눈통을 짓조기는 된주먹이 되게  
저 꽃나무들 그 가지 하나하나가  
놈들의 정수리를 후려치는 채찍이 되게  
이 거리거리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원썬들의 아성이 밀뿌리채 흔들리게

평양은 건설한다  
영광으로 빛내여온 선군의 총대로  
자랑찬 오늘을 건설한다  
희망찬 미래를 건설한다  
영원한 승리를 건설한다

세상에 이름높은 수도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는 끝이 없으랴  
천만년 길이길이 부강번영할  
강성대국의 무궁한 세월을 위해  
오 진정 평양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세계앞에 펼치고있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락원의 모습을 건설한다

~~~~~  
각이 심장을 쳤다.

무한한 감동과 자책감에 잠겨 동생과 헤어지던  
나는 급히 되돌아섰다. 그리고 물었다.

《다음번엔 널 어디서 찾을가?》

작업장을 향해 성큼성큼 바쁜 걸음을 놓던 동생  
은 어느새 저만치 멀리에서 소리쳐 대답했다.

《신문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다,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에 따라 련이어  
창조되는 새라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매일매일 빠  
짐없이 소개되는 신문.

그 신문에야말로 2012년을 향해 달리는 선군시  
대 건설자들의 참다운 주소가 있는것이다!

나는 동생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  
달리는 천만군민의 대고조진군의 앞장에 자랑스럽  
게 서있는, 선군시대의 평양번영기를 펼쳐가고있  
는 우리 시대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다함없는 경  
례였다.

# 건설장의 달밤에 외 1편

리 호

또 한층  
쌓아올린 새 층막우에 올라서니  
어허라 저 기중기팔에 덩실 앉아  
나를 반겨주는 둥근달아

한밤을 불보라로 태우며  
남먼저 층막조립 끝냈다고  
너도 축등되어 떠올랐느냐  
그 유정한 빛을 실실이 풀어  
은테프로 이 몸을 감싸주느냐

내 전호를 지켜선 그밤엔  
소나무우듬지우에 등실 떠올라  
남모르는 수호자의 그 보람  
밤깊도록 다정히 속삭여주더니

천리행군 야밤엔  
고향집어머니 그 눈빛 실었나  
내딛는 걸음걸음 정겹게 비쳐주며  
훈련길의 길동무되어  
말없이 새힘도 안겨주던 둥근달

종구나 달아  
오늘은 내 평양의 10만세대  
새 거리건설장에  
혁신의 구슬땀 함뿍 뿌리고  
너를 맞이하는 호뜻한 이 감개  
이게 진정 달밤의 서정 아닌가

명상에 잠기고싶구나  
눈부실 패일의 거리  
환한 인민의 웃음  
쟁반같은 네속에서 그려보며  
바치는 보람의 참된 진미  
너와 함께 속삭이고 또 속삭이며

달이여 은은한 정서속에  
더욱 뜨겁게 간직되는  
병사— 건설자의 이 긍지  
내 생의 먼먼 앞길에  
끝없이 맛보고 또 맛보리  
언제나 조국위해 한몸 다 바치며

## 그 날 에 사 는 마 음

지금은 여기저기서  
키돋움하며 일떠서는  
벽체들과 층막들  
건설장은 백병전마냥 들끓는데

왜서인가  
내 마음속에는 벌써  
열쇠가 절렁거린다  
완공의 그날  
인민에게 안겨줄 새집들의 열쇠가

그러면 절로 흥그러워지는 이 마음  
눈부신 거리를 누비며  
끝없이 이어질 이사집행렬  
새집들이 경사를 펼칠  
행복의 음향이 들려온다

얼마나 좋아하랴  
그리도 번듯하고 멋있어  
이방저방 오고가며 흥성일 모습들

어루쓸며 어루만지며  
그윽히 넘쳐날 녀인들의 웃음

아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초상화 정히 모신 새집에  
복된 살림을 펼쳐가며  
잠 못이를 그밤 싣고 명멸할 무수한 불빛들

그날은 정녕 그날은  
내 조국이 강성대국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뜻깊은 2012년  
번영의 큰길로 거리는 뻗고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새집들은 솟으리

그럴수록 환희로와  
오늘에 바치는 구슬땀 진함을 모르는  
이 병사  
궁지높이 넘겨줄  
행복의 열쇠 만복의 열쇠  
고마운 사랑담아 마련해가노라



# 눈보라사나온 밤에

김택룡

그림 김광석

우— 우—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을 때마다 창유리가 켑르켑르 울리곤 했다.

책상에 마주앉아 하루사업을 돌이켜보던 제3작업반장 전덕준은 그럴 때마다 걱정어린 눈길로 창문쪽을 돌아보곤 했다.

《흐음— 이놈의 날씨가 일을 치겠군.》

혼자소리처럼 뇌이며 눈송이가 달라붙어 기묘한 무늬를 그린 창문쪽을 이윽도록 지켜보던 전덕준은 눈보라소리가 더욱 잦아지자 안되겠다는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책상위의 사업일지며 문건들을 주섬주섬 거두고 난 전덕준은 작업반전실실을 나섰다.

《이크!—》

그는 허궁 날리려는 재빛토끼털모자를 두손으로 움켜잡았다. 잔뜩 기회를 엿보다가 불의에 달려드는듯 한 맵짠 눈보라가 그의 온몸을 돌개바람처럼 휘감았다. 뽀얗게 타래쳐올랐던 눈가루는 경비실창문에서 내비치는 불빛을 받아 은가루인양 반짝이며 사르르사르르 내려앉았다. 목덜미가 산뜻산뜻했다. 그랜선지 채 낫지 않은 독감기침이 또 돌연히 터져나왔다.

오후부터 숨뭉치같은 함박눈이 하늘을 메우며 대중없이 쏟아지더니 어느새 종아리가 문히게 쌓였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눈은 멎었으나 대신 세찬 눈보라가 터졌다. 겨울의 마지막고비로서는 전례가 없는 무서운 눈보라였다.

기침이 가라앉자 전덕준은 검은 인조털을 덧댄 솜옷깃을 일으켜세우고 솜신 끈을 꼼꼼히 졸라맨 다음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말끔히 닦아낸 희디흰 접시같은 달이 세찬 눈보라속에서 오돌오돌 떨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밝아오는 새벽처럼 주위는 흰했다. 하지만 사방은 싸늘한 흰눈뿐이고 길들도 죄다 눈에 덮인 데다 심술궂은 눈보라가 만들어놓은 눈무지들이 봉긋봉긋 솟아있어 어림짐작으로 발을 더듬어가며 걸어야 했다.

덕준의 뒤로는 바지가랭이를 푹푹 잠그며 눈을 헤쳐나간 두갈래의 움푹움푹한 발자국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발자국들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마다 순식간에 다리미질을 한듯이 메꿔지곤 했다.

마을로 들어가는 갈림길목에 다달은 덕준은 한 동안 불밝은 마을쪽과 광주령쪽으로 뻗어간 길을 번갈아보며 머뭇거렸다.

(아마... 니란캐기전투장에선 모두들 한사코 봉희분조장을 붙잡았을테지, 하루밤 묵어가라고... 날씨가 보통 사납질 않으니까. ...)

마을쪽으로 몇걸음 옮기던 덕준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돌아서서 눈보라속에서 거뭇하게 바라보이는 광주령쪽을 지켜보던 덕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야. 봉희 꼭 돌아올거다. 고 이악쟁이가 하루밤인들 묵어올수가 없지. 암, 무조건 오구말구...)

긴숨을 후— 내쉬고난 덕준은 광주령쪽으로 뻗은 길로 걸음을 내짚었다.

그는 두다리에 꺾꺾 힘을 주며 걸었다. 빠그극, 빠그극 눈발치는 소리가 푸릿한 어둠속에서 유난스레 울렸다.

...오늘 아침이었다. 청년분조장 송봉희가 선전실에 들어섰다. 원래 자그마한 키인데다 솜옷을 입은탓에 물독처럼 몸매가 실해보였다. 약간 작을사한 두눈이 상냥하면서도 깔끔하게 느껴지는 올해 스물두살 잡힌 농장직으로 제일 나이 어린 분조장이다.

유난히 새하얀 겨울머리수건을 벗어든 그는 자기를 갑자기 부른 까닭을 몰라서인지 꽤 긴장한 빛이었다.

《분조장동무, 니탄캐기전투장엘 가봤소?》

순간 처녀의 얼굴이 빨갛해졌다.

《아직…》

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를 만드느라 광주령너머 진펄에서 매해 겨울 한철 니탄캐기전투를 벌리곤 했다. 올해에도 작업반마다에서 선발한 젊은 사람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었다. 거기에 봉희네 청년분조원들 셋이 들어있었다.

전덕준은 봉희로 하여금 몇명 되지는 않아도 집을 떠나 멀리에서 수고하는 자기네 분조원들을 두고 늘 관심을 돌려야 함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를 불렀던 것이다.

《찾아가보오. 그래야 외판데서 일하는 제집식구들의 사정을 알수가 있거든. 안 그렇소?》

《네.》

《하지만 분조장동무, 오늘중으로 꼭 돌아서야 하오. 래일은 농기구품평회가 있거든. 품평회 준비가 어떻소? 지금까지 청년분조는 무슨 일에서나 첫자리를 양보한적이 없는데 자신있소?》

그러자 봉희의 얼굴에서는 긴장한 빛이 홀연 사라지고 야무진 활기가 떠올랐다.

《문제없습니다. 우리 분조야 반장동지가 마련해준 물통까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분조들의 농기구창고들을 돌아보다가 청년분조창고에 물통이 변변치 않아보이기에 물통 몇개를 구해다준것을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였다.

《물통이 전부가 아니요. 엇그제 동무네 농기구창고엘 또 들러봤소. 아무래두 바줄이 모자랄것 같더군. 저기 한통구리 마련해놨는데…》

전덕준은 선전실구석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어마나!—》

봉희는 가벼운 탄성을 내지르더니 재빨리 바줄 있는데로 다가갔다. 새하얀 바줄통구리를 어루쓸어보던 봉희는 머리를 깎듯이 숙였다.

《반장동지, 정말 고…》

그는 어쭙은 미소와 함께 말꼬리를 꼰삼켜버렸다.

전덕준은 이런 때는 여불없이 웅석등이손녀처럼 여겨지는 송봉희의 기뻐하는 모양을 보며 빙그레 웃고있었다. 허나 속마음은 달랐다.

(허, 이거 내가 봉희한테 의존심을 자래워주는게 아닌가. … 제발로 걸어가는게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는 버릇을 키워줄수 있어. …)

덕준은 짐짓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니탄캐기전투장에 갔다오다가 들려서 가져가라구.》

그는 바줄통구리결에 놓여있는 큼직한 장갑묶음

을 들어 봉희에게 내밀었다.

《이걸 가져다주오. 빈손으로야 갈수 없지 않나. 그러구…》

《!…》

장갑묶음을 받아드는 봉희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다.

《반장동진 정말…》

봉희는 집에 들러 뭘 좀 준비해가지고 가겠노라며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총총히 멀어져가는 봉희를 바라보는 덕준의 얼굴에는 다 자란 자식을 보는 부모의 흐뭇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

그런데 뜻밖에도 예상치 않은 폭설이 내린데다 눈보라까지 터진것이다.

덕준은 불안했다. 날이 어둡도록 봉희가 나타나지 않자 공연히 그를 떠밀어보냈구나 하는 후회마저 들었다.

이런 날씨에 봉희가 꽤 돌아올수 있을가, 분조장이라고는 하지만 스물두살 어린 처녀가 아닌가, 게다가 광주령길이 오죽이나 외지고 험한가, 더우기 이런 날씨엔 호랑이도 길을 잃고 헤맸다고 했다.

지금으로부터 서른두해전 제대배낭을 멘 전덕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신통히 오늘처럼 눈보라가 사납게 갈개치는 날 밤에 광주령을 넘어왔었다. 그날 눈보라속에서 길을 잃고 외진 곳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이지 않았던가.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덕준은 더는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어 길을 떠난것이다.

…덕준은 헉— 헉— 가쁜숨을 내쉬며 경사급한령길을 뚫아올랐다. 장판지가 뻗뻗하고 등골이 축축해났다. 판자노리에도 후끈후끈 땀발이 섰다.

사나운 눈보라는 잣을줄 모르고 계속 휘몰아쳤다. 소소리높이 자란 소나무들이 몸부림치고 눈속에 반나마 묻힌 떨기나무들이 한쪽으로 나누우며 더는 못 견디겠다는듯 앙칼진 소리를 질러댄다. 온 산이 통채로 몸을 떨며 신음하는듯싶었다.

이 산을 넘으면 한쪽으로 넓은 진펄이 펼쳐진다. 바로 그곳에 니탄캐기전투장이 있다.

전덕준이 한창 룡선을 따라 난 길을 오르는데 잠시 너누룩해졌던 눈보라가 우— 우— 평음을 내지르며 살맞은 맹수마냥 또다시 급작스레 덮쳐들었다. 그를 한줄에 와락 거머쥐고 어둡속 막막한 공간으로 휩 내동댕이칠것만 같은 험악한 기세였다.

휘익— 휘익—

거뭇거뭇한 소나무아지들이 맹렬히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눈에 묻혀 가느다란 웃초리만 올려민 개암나무들이 날카로운 휘파람소리를 내지르며 바르르 떨고있었다. 연약한 그것들은 횡포한 눈보라의 광란속에서 모지름을 쓰며 용케도 지탱

해내고있었다.

휘익－ 휘익－

우－ 우－

어둠속에 잠긴 무연한 공간은 울부짖는 눈보라 소리와 나무들이 뒤설레이는 소리로 꽉 찼다.

휘말려오른 눈가루때문에 좀처럼 앞을 분간할수가 없었다. 예리한 바늘끝으로 찢러대는듯 얼굴이 얼얼해났다.

감각을 잃은듯 뻗뻗해나는 불편을 두툼한 손바닥으로 썉썉 문지르며 걸음을 다우치던 덕준은 이상한 예감에 멈춰섰다. 희끄무레한 하늘과 눈덮인 대지가 맞붙어 마치 수평선처럼 보이는 앞쪽둔덕 위에서 거물거물 무엇인가 움직이는것 같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펄럭이는 커다란 백포와도 같은 눈보라속에 사라졌다가는 다시 드러나곤 하는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다.

(봉희분조장인가?... 혹 다른 사람일수도 있지. 어쨌든 대단해. 담이 보통 아니군. 이런 날씨에 령을 넘어오다니...)

덕준은 감탄어린 눈길로 희끄무레한 어둠속에서 점점 가까와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왜선지 덕준에게는 그 모습이 봉희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봉희일것만 같은 예감이 아니, 꼭 봉희일것이라는 믿음이 덕준의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하긴 봉희가 아니고는 이 밤중에 령길을 넘어올 사람이 없지. 여간한 이악쟁이가 아니니까.)

전덕준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몇년전 중학교운동장에서 진행된 달리기경기광경이 얼른거렸다.

사실 봉희가 한마을 대추나무집 막내딸임을 모르는 않았으나 덕준이 그를 남다른 눈으로 여겨보게 된것은 그 운동회때부터였다.

...봄가을을 맞으며 해마다 진행되는 학교운동회였다. 덕준은 벌어지는 경기종목마다를 사뭇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한창 운동회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1500메터여자달리기경기가 진행되었다. 운동장을 여러바퀴 돌아야 하는 힘든 경기였다.

생김도 차림도 각각인 8명의 처녀애들이 패기만만하여 출발선을 박차고 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서로 앞서려고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리었다.

헌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달리는 선수는 키도 체격도 자그마한 처녀였다. 그가 다름아닌 대추나무집 막내 봉희였다.

모두들 봉희의 이름을 소리쳐부르며 응원하였다. 어느덧 마지막 한바퀴가 남았다. 봉희가 우승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어찌된셈인지

봉희가 갑자기 어푸러졌던것이다. 관중들속에서는 아－ 하는 아쉬움의 웨침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넘어진 봉희를 지나 다른 선수들이 저만치 앞서나갔다. 봉희는 얼른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순간의 실수로 봉희는 맨앞자리로부터 맨뒤자리로 떨어졌던것이다. 이제는 회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봉희는 입술을 옥물고 앞선 선수를 따라잡으려고 달리고 또 달리었다. 땀이 그의 얼굴에서 비물처럼 줄줄이 흘러내렸다.

어느덧 직선주로에 들어섰다. 이제는 승부가 명백해졌다. 봉희는 마지막 여덟번째였다.

하지만 봉희는 줄기차게 결승선을 향해 내달리었다. 그에게는 승부가 문제가 아니라 기어이 앞선 선수를 따라잡겠다는 생각만이 있는듯 했다.

운동장에 꼭 들어찬 사람들이 모두 봉희를 응원했다. 덕준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희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장하다, 장해! 봉희야! 조금만 채라!》

그 응원소리에 떠받들려 봉희는 결승선 두어메터앞에서 앞선 선수 한명을 따라잡고야말았다. 결국 일곱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섰다.

와!－ 함성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나가 봉희를 얼싸안고 돌아갔다. 마치 그가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선듯 했다.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바라보던 덕준은 속으로 감탄해마지않았다.

(허, 작아도 고추알이라더니... 키는 작아도 보통이악쟁이가 아닌걸.)

그 봉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으로 진출하는 학급동무들속에 섞여 청년분조원이 되었다. ...

(누굴가?... 아니, 분명 봉희분조장일게다. 다른 사람일수가 없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어둠속에서 점점 가까와지는 형체를 향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전덕준은 굵기가 뒤아름 실히 되는 큰 소나무결에서 무춤 서버렸다.

암청색밤하늘을 배경으로 유묘하게 보이는 흰목도리, 자그마한 키... 틀림없는 봉희였다.

덕준의 두툼한 입술이 절로 빙싯하니 벌어졌다.

(허!－ 글썄 봉희가 어떤 애라구. 내가 그 엘 잘못 보진 않았군.)

덕준은 자기가 봉희를 잘못 보지 않았다는, 그를 농장의 기둥으로 키우려는 자기 결심이 옳았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뻐근해졌다.

...지난해 모내기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농장원들은 모두 마을로 들어갔으나 전덕준은 철길안쪽 청년분조의 논판으로 향했다. 작업반의 어느 포전이든 모내기뒤에는 그



의 간간한 후열이 반드시 따르는 법이었다.

작업반의 눈은 모두 철길쪽 바깥으로 드넓게 펼쳐져있었는데 청년분조의 눈 두정보만은 철길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있었다. 방금 청년분조원들이 오전중에 두정보 모내기를 완전히 끝낸 뒤여서 논벌은 조용했다.

모내기가 끝난 논배미들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매끈하게 물매질한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던 전덕준은 우뚝 멈춰섰다.

저쪽논구석에서 누군가 구뿔거리며 열심히 모를 쫓는것이 보였던것이다. 빨간 머리수건을 쓴것을 보아 청년분조원이 분명했다.

누굴까? 점심시간인데 어째서 혼자서 모를 쫓는 걸까?

가까이 다가간 덕준은 그가 다름아닌 송봉희임을 알아보았다.

《동문 점심식사를 안하오?》

돌연히 울리는 덕준의 목소리에 처녀는 깜짝 놀라는것 같았다. 봉희는 해변에 그늘고 땀이 질퍽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수집은 미소를 짓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덕준은 신을 벗고 논에 들어섰다.

《젊은이들인지라 배고픔을 참기 어려웠던게지. 허허, 봉희만 내놓고 다들 들어간걸 보니. 자, 우리 함께 제척 끝내고 들어가기요.》

논두렁우에는 알뜰하게 묶은 벼모춤이 수북하니 쌓여있었다. 덕준이 모춤을 하나 집어드는데 봉희가 생글 웃으며 다급히 막아섰다.

《반장동지, 그런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오? 빨리 쫓아야지.》

봉희는 가슴앞으로 드리운 빨간 수건 끄트머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여기... 이 귀잡이가 좀 높아져서 그렇니다. 그냥 두어두면 벼모가 마르겠길래 논판을 다시 고른 다음 모를 쫓으려고...》

《엉?!》

덕준의 눈이 둥그래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덜퐁한 녀석이 씨레질을 했는지 논바닥이 고르롭지 못해 두어평쯤 되게 두드러져있었다. 그런 경우 벼모가 마르고 모살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웅근 소출을 바랄수 없다.

그러니 봉희는 논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 이미 쫓은 벼모를 다시 뽑고있었던것이였다. 그런것을 덕준은 벼모를 쫓고있는것으로 잘못 본것이였다.

얼마나 세심하고 책임적이고 기특한 마음씨를 지닌 처녀인가! 면적은 비록 그닥 넓지 않아도 그 땅에서 맺힐 알찬 열매를 위해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덕준은 정다운 눈길로 봉희를 바라보았다. 그저

이악한 처녀인줄로만 알았더니...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일을 혼자서 하나?》

봉희는 얼굴이 빨개서 대답하였다.

《사실은 모운반이 팔려서 점심전에 한탕만 더 하느라 여기로 왔다가 이런 포전을 보게 되니... 반장동지, 바쁘시겠는데 어서 가보십시오. 저 혼자서도 잠깐이면 됩니다.》

《!...》

처녀는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나서 삽자루를 거머쥐고 생땅이 드러난 곳을 파서 두렁우에다 떠올리기 시작하였다.

《같이 하자구. 아무래도 삽질이야 내가 낫겠지.》

덕준은 우격으로 삽을 뺏아들었다.

그들은 부지런히 논판을 반듯하게 고른 다음 모를 다시 쫓아나갔다. 전덕준은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봉희의 동작을 가끔 넘겨다보곤 했다. 처녀의 손길이 어찌나 빠른지 진짜 재봉바늘 한가지였다.

《속도가 여간아니구만. 봉희가 달리기만 잘하는줄 알았더니 모내기두 1등선수구만!》

《어마나... 아닙니다. 저보다 쟁쟁 동무들이 얼마나 많게요. 전 모보장밖에는 못하는데요 뭐, 호호...》

사실 분조마다에서 제일 민첩하고 믿음직한 로력으로 모운반조를 꾸린다는걸 덕준은 잘 알고있었다.

그날의 인상이 전덕준의 머리속에는 유난히 깊이 새겨지였다. 그래서 이전 청년분조장이 대학추천을 받아 떠난 뒤 후임을 고르게 되었을 때 전덕준은 선뜻 송봉희를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몇몇사람들이 봉희가 착실한 처녀이긴 하지만 아직 한개 분조를 책임지우기에는 농사경험이 어리다고 머리를 기웃거렸으나 전덕준은 리당위원회에 제기하여 옮겨올부터 그에게 청년분조장임무를 맡겼다. 정작 분조를 책임지우고보니 항상 마음이 썩여지는 전덕준이였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도와주고 앞으로 농장을 떠메고갈 일군으로 키우기 위해 은근히 원심을 썼다.

해마다 이맘때면 농장에서는 영농기를 앞두고 부림소품평회와 농기구품평회를 벌리곤 했다. 이 품평회에서 첫자리를 차지해야 그해 농사에서 장훈을 부른다고 분조, 작업반들에서는 승벽내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덕준은 이 품평회에서 봉희네 청년분조가 뒤질가봐 여러가지로 도와주었다.

래일은 품평회날, 그래서 봉희는 사나운 눈보라속을 헤치며 밤눈길을 걷고있는것이다.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봉희의 모습을 바라보는 전덕준은 다리아픔도 피곤도 일시에 사라지는것만

갈았다. 사랑하는 자식이 첫걸음마를 뗄 때처럼 그지없이 즐겁고 대견했다. 한달음에 달려나가 청년분조장과 보조를 맞춰서 신나게 씨엉씨엉 걸어가고싶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몇발자국을 내짚었다. 허나 다음 순간 그는 불시로 굳어졌다. 그의 머리속을 번개 같은 환영이 편뚝 스쳤다.

…그가 사관장직무를 맡아 수행하던 군사복무시절이었다.

늘쌍 군대들을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도와주는 주변농장마을의 옆으로는 퍼그나 넓은 개울이 흐르고있었다. 그런데 인심 후한 그 마을사람들이 철도역으로 가자면 20리 먼길을 에돌아 큰 다리를 건너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덕준은 곧 부대에다 보고를 했다. 즉시로 지휘관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나서 온 중대, 온 대대가 펼쳐나 짧은 시일안에 간편한 쇠바줄허궁다리(몇년후에는 세멘트다리로 되었지만)를 번듯하게 개울을 가로질러 세워주었다.

쇠바줄허궁다리가 완공된지 며칠후였다.

임무수행을 위해 나선 전덕준이 개울을 건너려고 다리를 찾아갔을 때였다.

다리중간쯤에서는 웬 소녀애가 어름어름 건느고 있었다. 소녀는 다리가 흔들리는데로 자꾸 비틀거리며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전덕준은 빙그레 웃음을 짓고 유심히 소녀를 지켜보았다.

가볍게 물결치듯 하는 쇠바줄허궁다리에 익숙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과 애들이 처음 한동안은 몸가누기가 힘들어하기때문이었다.

한걸음, 한걸음을 힘겹게 옮기는 소녀애를 웃으며 바라보던 덕준은 그 애가 놀랄가봐 소리를 죽여 소리쳤다.

《애야,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구 곧추 걸어라. 물은 보지 말구 앞을 보면서 자신심을 가지구—》

소녀가 피끗 그를 돌아보았다. 덕준은 빙긋 웃으며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의 손시늉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녀애는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갈 대신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고마는것이였다.

아연해진 전덕준은 황황히 다리에 뛰쳐올랐다. 그리고 뽀짝달짝을 못하는 소녀의 두손을 잡고 한결음한결음을 부촉해 건네주었다.

다리를 다 건넌 다음 헤어질 때 소녀는 생글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야참, 군대아저씨같은 사람들을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만났으면 좋겠네.》

《그럼 넌 혼자서는 다리를 건느지 못하냐?》

《건널수 있지요 뭐. 그렇지만 혼자서 건느려면 막 무섭구 진땀이 나니깐요. 난 어른들의 손을 잡고 건느는게 더 좋아요, 해해해…》

전덕준은 허거프게 웃었으나 왜선지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났다.

(내가 이 애를 진정으로 도와준걸까? 끝까지 제 힘으로 건느도록 해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 애가 앞으로도 계속 남에게 매달리려 한다면…)

…오래전에 있는 그 일이 이 시각 왜 갑자기 떠오르는것인지… 그때 해죽이 웃던 이름모를 소녀애의 모습에 오늘 아침 바줄통구리를 놓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던 봉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왜선지 그때처럼 가슴이 뜨끔해났다.

이제 봉희는 나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기뻐 막 뽀박질을 할것이다. 하지만 내가 자기를 걱정해 예까지 마중나온걸 알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반장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

나는 봉희를 분조장으로 추천할 때 작업반장 아니, 관리위원장이 된 그의 앞날을 그려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가 작업반장이 되고 관리위원장이 되어서도 계속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에 의존해 일하려고 한다면…

덕준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는건 봉희를 진정으로 도와주는게 못돼. …

어느 사이언가 기승을 부리며 몰아치던 눈보라가 한결 기세를 숙였다. 끝없이 술렁이며 설레이던 숲속도 조용해지기 시작하였다. 차가운 달빛이 숲속을 희미하게 비쳐주고있었다.

빠그르빠그르 봉희의 눈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로 다가들었다.

전덕준은 소리를 죽여가며 뒤로 물러나 소나무 밑으로 슬그머니 들어서서 터실터실한 껍질에다 지그시 몸을 기대었다. 신선한 송진냄새가 살살 코안으로 풍겨들었다.

반장의 앞을 지나는데 알리 없는 봉희는 잠간사이에 그곳을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고개를 약간 숙일사 하고 총총히 걸군 하던 평시의 걸음걸이와는 달랐다. 어지간히 지치고 피로한듯 해보이고 무릎이 아픈지 다리도 약간 절름거리리는것 같았다.

(힘이 들테지. … 그래, 보통길이 아니니까.)

줄곧 봉희의 거동을 지켜살피며 전덕준은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그는 저도 모르게 한걸음 불쑥 내짚었다.

(아니?!…)

봉희가 갑자기 모재비로 넘어져 한고패 허양나뎅굴었던것이다. 경사지에서 발을 헛디딘 모양이다. 황급히 봉희의 결으로 달려나가려던 전덕준은 다시금 두다리를 벌디디며 멈춰섰다.

넘어졌던 봉희가 다시 몸을 일으켜세웠다. 장갑을 벗어 눈범벅이 된 옷자락을 분주히 털고나서 두발을 탕탕 굴러댔다. 이어 흰 목도리 한끝을 풀었다가 어깨너머로 뺨 돌려감았다.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상한데는 없는것 같았다.

일순간 심장이 꿈틀했던 전덕준은 후-우 안도의 숨을 내불었다. 그는 소나무뒤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봉희분조장, 기운을 내라구. 조금만 더...)

채 떨어지지 않은 눈이 떼가루처럼 묻어 얼룩무늬처럼 보이는, 원래는 연한 밤색이나 지금은 거뭇게 보이는 봉희의 솜옷잔등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전덕준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밀어 주었다. 그리고는 멀찍이 사이를 두고 느릿느릿 따라걸었다.

(아무렴 험치가 않아, 이런 길을 혼자서 간다는게... 사실말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에,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에 무슨 난관인들 없을까, 무슨 난관인들... 하지만 기어쿠 제힘으로 뚫고나가야 해, 기어쿠 제힘으로...)

생각에 흠뻑 젖어 있던 전덕준은 무엇에 발이 걸리어 갑자기 폭 꼬꾸라질뻔 했다. 그리하여 그가 몸을 바로잡느라 안간힘을 쓴탓인지 불시로 목안에서 기침이 터져나왔다. 자기의 기침소리에 덴겁한 전덕준은 손바닥으로 입을 짹 막았다. 봉희가 난데없는 기침소리를 들으면 야단이 아닌가. 깊은 밤에 더우기 외진 산길에서 별안간 인기척을 느낀다면 누구나 오싹하는 놀람과 동시에 더럭 겁부터 먹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봉희는 전덕준의 폭발적인 몇마디 기침소리를 못 들은것 같았다.

무춤 멈춰서는것 같더니만 내쳐 걸음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전덕준은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먹으로 툭툭 두드렸다.

(헛참- 하마트면 큰 랑패를 볼뻔 했군. ... 나이 탓이지. ... 이젠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된거야. 그러게 젊은 지휘관들을 지금부터 옹바르게 키워야지. 그래야 그들에게 떼떽하게 대를 물려줄수 있지.)

전덕준은 털모자를 벗어 이마에 흥건히 내뺐 땀을 대충 문질러대고는 다시 발자국을 떼었다. 입으로 단김을 훔훔 내뿜으며 그는 두터운 생눈을 우썃우썃 밟으며 걸어갔다.

(...그래, 저 봉희같은 젊은이들앞에 떼떽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할텐데.

할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선 유기농법의 요구대로 거름을 많이 내서 알곡 정보당소출을 부쩍 높여서 올해는 군적으로 으뜸이 돼야지. 아니, 왜 군뿐이겠는가. 도적으로 소문을 크게 내야지. 그러구 파수원도 여라문정보 더 조성하구...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메탄가스화도 완성해야지.

정말 할일은 많고많은데 나이는 한해두해 먹어 가니. 헛참, 그렇다구 가는 세월을 붙들어서 세워둘수는 없는거구.

그러니 더 노력해야지. 시간을 짜내구 조직사업

을 짜고들구...

한데 우리한테 경쟁을 건 2반장 그 사람 승벽이 보통 아니거던. 나이는 젊은데 벌써 잡도리부러가 달라. 벌써 우리를 앞설 기미가 보인단 말이야.

역시 새 교육을 받은 새 세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것도 그렇구 일하는 방법도 그렇구 모든게 나 이먹은 우리같은것들하구는 다르거던.

우리 작업반도 그런 끝끝한 젊은이들한테 대를 물려주어야 할텐데... 하긴 우리 작업반에도 그렇게 어엿한 젊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앞에서 가는 봉희분조장만 봐도 그렇지. 이악하고 착실하구 또 똑똑하구...

그런 젊은 일꾼들을 더 잘 키워야지. 뭐니뭐니해도 그게 진짜 내가 할 일이야. 아무렴, 그렇구 말구. 내가 한생껏 쌓은 경험도 다 물려주구...

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농사짓는 방법에서도 변혁이 일어날텐데 내 경험이 무슨 도움이 될가, 허허...

아니, 경험이야 넓아져도 정신이야 넓아질텐가. 한생토록 땅에 발을 붙이구 알곡생산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그 정신을 물려주어야지. 대를 물리는데서는 그게 기본이거던, 아무렴...

(정말 좋은 밤이야. ...)

잠시 수그러들었던 눈보라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허공중에 날아오른 눈가루가 눈앞을 가리워 한치 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우- 우- 눈보라가 울부짖고 쇠- 쇠- 수림이 세차게 술렁거렸다. 우람한 산이 통채로 몸을 떠는상싶었다.

하지만 전덕준은 기운이 솟구쳐올라 털모자를 벗어 움켜쥐고 억척스레 눈길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밋밋한 마감언덕우에 올라섰다. 운무에 잠긴듯이 어슴푸레한 공간속에서 환한 불빛이 다문다문 널리기도 하고 무리를 짓기도 한 마을이 눈앞에 바라보였다. 쾅, 쾅 개짖는 소리가 멀리서 반겨주었다.

마음이 거뻗해진 덕준은 봉희한테로 눈길을 옮겼다. 어느새 내리막을 벗어나 넓고 평평한 길에 들어선 봉희분조장의 조그만 형체가 파랗한 달빛아래 또렷하게 드러나보였다.

(파연 빠르기도 하군. ...)

한데 웬일인가. 봉희는 한자리에 머물러선채 더는 움직이지 않는것이다. 이제는 청년분조합숙이 멀지 않다고 다리쉽을 하는것인가. ...

그런데 멈춰섰던 봉희는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돌파서 전덕준이쪽으로 곧바로 마주오고있지는는가.

(나를 알아보고?... 그럴수가 없지. 아직도 거리가 얼마나 멀다구.)

어쨌든 험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왔다는 생각으

로 덕준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반—장—동—지—》

돌연히 봉희의 여무진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의 부름소리와 함께 빠르게 걸음을 옮기느라고 헤엄 버치는 모양도 점차 험해졌다.

《아아 거기 있으라구, 거기. 분조장동무— 내가 가지, 간다는데…》

이렇게 맞받아 소리치며 전덕준이도 허둥허둥 걸음을 재우쳤다. 드디어 봉희가 할딱할딱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덕준의 앞에서 벗어났다.

《아이참, 반장동지!…》

《분조장동무, 수고했소. 정말 수고 했소!》

전덕준은 통장갑을 낀 등실한 손으로 봉희의 어깨를 몇번이나 툭툭 두드렸다.

《아닙니다, 반장동지. 저… 저때문에…》

왜 그런지 봉희는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듯이 자못 주눅이 든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수그렸다.

전덕준의 두툼한 입가에는 벅그레 소리없는 웃음이 실려였다. 그는 혼연하게 슬쩍 화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말ियो, 봉희분조장. 어떻게 날 알 아봤소, 이 밤중에?》

봉희가 얼른 낯을 들었다. 금시에 그의 크지 않은 두눈에는 유난한 영채가 밝게 비끼었다. 동시에 매양 톡톡치 않게 꼭 다물려지곤 하는 입이 미소를 머금으며 방싯이 벌어졌다.

《기침소리를 들었으니깐요. 반장동지의 기침소릴…》

《영?— 기침소릴?! 아니, 난 기침소릴 두어 번밖에, 그것두 썩 약하게 냈는데?》

《호호호… 전 멀리서 나는 작은 기침소리만 들 구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직방 알아맞히는데요 뭐.》

《영? 그렇다면 분조장동무 너무하구만. 진작 난줄 알면서두 혼자 뱉다 앞으로 달아뻘단 말이 아닌가, 허허…》

《용서하십시오, 반장동지. 전 사실… 반장동지가 저같이 사업능력이 어린 초급지휘성원들때문에 늘 걱정을 놓지 못하시는걸 잘 압니다. 오늘 밤에도 저를 넘려해서 이런 험한 눈길을… 그래서 전 반장동지가 앞으로는 제 걱정을 더는 마시라고 일 부러…》

《그러니 우정 모른체 했단 말이군. 허허… 이젠 우리 청년분조장이 다 컸는걸. 정말 엉큼하거든. 그런줄도 모르구 난… 하하하.》

《아이참, 그건…》

흰 목도리에 둘러싸인 얼굴에 점직해하는 빛이 살짝 비끼는 봉희의 모양은 진정으로 귀염성스럽고 미더웠다. 해선지 처녀의 다기찬 몸에서는 청초하고 발랄한 생기만이 끊임없이 넘쳐나는것만

같았다. 맥이 진한듯 한 기색이란 가뭇 찾을수가 없었다. 봉희의 속마음이 이처럼 깊고도 엉뚱한줄을 몰랐던 전덕준이어서 무던히도 흐뭇했다.

《아무튼 됐소, 분조장동무. 천천히 가면서… 걸으면서 애길 하자구.》

전덕준이 먼저 걸음을 옮기자 봉희가 바투 그의 뒤를 따랐다.

여적 미친듯이 기승을 부리던 눈보라는 제풀에 숙어들었다. 달빛밝은 싸늘한 겨울밤의 신비스러운 정적이 질게 서려돌았다. 두사람이 저마다 걸싸게 뿌드득뿌드득 눈을 밝는 소리만이 울렸다.

덕준은 넋지시 뒤를 돌아다보면서 말끈을 풀었다.

《그럼 좀 들어보자구. 분조장동무가 니탄케기전투장에 갔던 일에 대한걸 말ियो.》

봉희는 그 말을 기다리고있거나 한듯이 얼른 받았다.

《반장동지, 오늘… 니탄케기전투장에 가길 참 잘했어요. 전 정말 많은걸 느꼈습니다. 반장동지가 어째서 저를 오늘 거기엘… 참, 통장갑은 두말 할것 없고 깡두기김치랑 부식물을 좀 가져간걸 가지고 돌격대원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래서 이젠 죄다 반장동지가 보내신거라고 말했습니다, 호호…》

《아니, 내가 언제 그런것들을 보냈게? 허, 이거 분조장동무가 날 난처하게 만든다?!》

전덕준이 능청스레 필쩍 놀라자 봉희의 나지막 하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좀해 드러나지 않는 그의 순진한 명랑성이 은연중 새어나 온것이다.

《호호… 반장동지가 통장갑통구리를 내놓으며 니탄케기전투장에 가보라고 일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반장동지가 직접 보내주신거나 다름이 없지요 뭐, 호호…》

《그래두 사실은 사실대루 말해야지 꾸며내는건 좋지 않아. 음, 청년분조장.》

《어마나— 저도 꾸며내는건 딱 질색인데요 뭐, 학교때부터.》

자못 억울해하는 봉희의 어조에 전덕준은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덕준의 심중은 저으기 훈훈해났다.

(어쨌든 이만저만 여물지 않았어. 하나를 깨우치면 둘, 셋을 제격제격 내짚을줄 알거던.)

덕준은 흐뭇한 심정에 잠겨 물었다.

《그런데 분조장동무, 무슨 일로 이렇게 늦었나? 내 얼마나 걱정할줄 아나?》

《반장동지, 정말 미안합니다. 저때문에 반장동지가 이렇게 밤길을 걷게 해서…》

봉희는 목도리 꼬트머리를 입가로 가져가며 말끝을 흐렸다.

《허허, 내가 밤길을 좀 걷는거야 뭐라나. 이제 다 내가 할 일이지.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한동안 주뭉거리던 봉희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덕준의 옆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반장동지, 내 하나 물어보랍니까?》

《물어보라구.》

덕준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장동진 물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응, 무... 무어라구?!》

덕준은 어마지무 놀라며 되물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봉희는 자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목도리를 성급히 풀어헤쳤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귀한게 펄펄 뛰는 물고기 이지요?》

덕준은 더욱 영문을 알수 없어 허거픈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바다 먼 우리 산골농장에서 펄펄 뛰는 물고기만큼 귀한게 어디 있겠나.》

하기는 여기 산골마을에서는 펄펄 뛰는 물고기가 제일로 그리웠다. 기껏 개울에서 잡아내는 산천어나 모래무치가 고작이었다.

봉희는 덕준의 옆에 더 바싹 다가붙으며 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펄펄 뛰는 물고기를 매일 잡숫게 해드리겠어요.》

덕준은 그 자리에 멈추어서며 짐짓 노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라구 분조장, 늙은이를 너무 놀리는건 좋지 않아.》

봉희는 웃음을 거두고 정색해서 말했다.

《반장동지, 관리위원회에 한가지 제기해주시시오.》

《?!...》

《니탄캐기전투장에 로력을 더 보충해주자고 말입니다. 매 작업반에서 두세명씩이면 될것 같습니다.》

《?!...》

봉희는 어둠속에서 생긋 웃었다.

《제가 니탄을 캐는 진펄을 좀 돌아보았는데 정말 땅이 아깝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양어장을 건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어장을?!...》

《니탄을 캐낸 진펄을 좀 정리하고 석축만 하면 그대로 훌륭한 양어장이 되겠더라 말입니다.

우에선 골짜기를 따라 맑은 개울물이 흘러내리지, 주변에는 풍치좋은 수림이 우거졌지 정말 멋

들어진 양어장이 될겁니다.

거기에는 계단식으로 양어장을 건설하고 백련어, 칠색송어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기르면 우리 농장도 별방 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을겁니다.》

《뭘, 칠색송어까지?!...》

덕준은 환성을 지르다싶이 했다. 어쩌면 봉희가 이렇듯 기특하고 훌륭한 생각을 해냈단 말인가. 사실 덕준이 자신도 한두번만 니탄캐기전투장에를 다녀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다 양어장을 건설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동무들과 의논을 좀 해보았는데 모두들 적극 찬성해나섰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양어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규모있게 니탄을 캐내자구 하면서 로력을 조금만 보충해주면 주변산에서 돌을 채취해서 석축까지 해서 올해 봄부터는 물고기를 넣어 기르자고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2~3년후부터는 우리도 펄펄 뛰는 물고기를 먹을수 있다면서...》

덕준은 너무도 기뻐 마음이 봉 뜨는것만 같았다. 봉희의 말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썩먹고 알먹는 격이다. 니탄을 캐내어 유기질거름원천도 확보하고 쓸모없던 진펄을 양어장으로 전변시키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제 초급일군의 첫 자국을 떴나어린 봉희가 이렇듯 신통한 궁냥을 해낸것이 더없이 대견했다.

《봉희분조장은 어떻게 되어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해냈나?》

덕준은 저으기 감동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봉희는 부끄러운듯 고개를 다소곳이 숙였다.

《훌륭하기야 뭘... 그저 이 진펄도 다 우리 조국땅의 한부분인데 쓸모없이 내버려둘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구 또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우리 농장, 우리 마을에도 현실로 꽃피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준은 가슴이 찢르르해났다. 나이는 어려도 너의 마음속에는 그런 크나큰것이 자리잡고있었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제 나 서자란 고향땅, 자기 사는 농장과 마을에 현실로 펼쳐가려는 뜨거운 마음이.

봉희는 덕준의 곁에 바투 붙어 걸으며 자기의 푸른 꿈을 펼쳐나갔다. 젊은 사람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공부시키는 문제, 농장의 경영활동을 컴퓨터화하는 문제, 새로운 생물농약을 받아들이는 문제... 더 좋은 앞날, 더 훌륭한 미래를 그려보며 펼쳐가는 그의 리상과 포부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덕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마음을 감

추지 못했다.

(아직 어리다고만 보아온 봉희가 이렇듯 자라다니.)

허참, 지금껏 내가 봉희분조장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키워준다고 생각해왔었는데 그들은 어느새 나를 앞서 멀리로 내닫고있구나.

암, 그래야지. 그들이 어떤 젊은이들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당에서 키워낸 젊은 새 세대들이 아닌가. 그러니 궁냥이 하늘만큼 커야지.

내가 공연한 로파심으로 뒤를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했지, 허허.)

덕준은 봉희가 펼치는 농장의 희한한 앞날을 그려보며 흥분 기분으로 씨익씨익 걸었다. 곁에서는 봉희가 벗어나서 한손에 감아쥔 목도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며 따라왔다.

봉희가 끝없이 펼쳐가는 공상에 취해있던 덕준은 갑자기 한쪽발이 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비칠했다. 봉희가 쩍새게 한쪽팔을 잡아주었으니 망정이지 하마트면 눈속에 나뭇그라질뻔 했다.

《반장동지,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봉희가 걱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덕준은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허허, 아니, 팬찮소. 어서 가지요. 이거 내가 도리어 분조장동무한테 짐이 되는것 같다.》

《반장동지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호호.》

봉희의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가 멀리로 울려 퍼져갔다.

그들은 어느덧 마을길에 들어섰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이 그들을 따듯하게 감싸주었다.

갑자기 덕준이 놀란듯 사방을 둘러보더니 무춤 멈춰섰다.

《청년분조장, 이거 길을 헛갈렸구만.》

《예?!》

《동무가 길을 더 왔단 말이요.》

《아이참, 반장동지두, 아닙니다.》

《아니라니, 청년분조합숙으로 갈라지는 길목은 이미 지나왔는데두? 여기야 작업반전전실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둘 다 이야기에만 정신을 팔다니, 썩썩…》

전덕준은 짐짓 허를 차며 지나온 길을 가리켜보였다. 했으나 봉희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흠어져내린 이마우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올렸다.

《오, 그러니 내가 걱정이 돼서…

이거 내가 늙긴 늙은가보다. 청년분조장이 벌써 이 반장걱정을 다 하는걸 보니…》

덕준의 노여운듯 한 목소리에 봉희가 다급히 손

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그럼 왜서?》

《반장동지가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니란캐기전투장에 갔다오다가 방에 들어서 바줄통구리를 가져가라구 말입니다.》

《아차— 그랬지! 이 정신 좀 바라.》

덕준은 자기의 머리를 털모자로 가볍게 두들겼다.

《내 그 말을 한다는게 그만… 분조장동무가 저녁늦게까지 오질 않길래 청년분조쪽으로 가는 인편에 그 바줄통구리를 지워보냈소.》

《어마나, 그래요! 그런걸 전 또, 호호… 반장동지, 정말 고…》

말꼬리를 삼켜버린 봉희는 덕준의 손을 꼭 붙잡고 흔들었다. 푸르스름한 달빛에 기쁨으로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서 정기도는 두눈과 새하얀 이가 유난히 반짝였다.

봉희는 전덕준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고는 자기네 합숙쪽으로 생눈길을 헤치며 걸음을 재우쳐갔다. 전덕준은 빙그레 웃음을 띠고 하냥 정겨운 눈길로 그의 뒤모습을 바라왔다.

바로 그때 고즈넉한 밤의 대기를 흔들며 나지막한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갱생의 본래

장군님 가리키는 길따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

불현듯 덕준의 눈앞에는 활기에 넘쳐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눈길을 헤쳐가는 봉희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 젊은 새 세대들의 손에서 몰라보게 변모될 농장의 밝은 앞날, 황홀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다.

…일매지게 펼쳐진 규격포전들마다에서 물결치며 설레이는 알찬 이삭들, 시기별에 따르는 영농작업을 컴퓨터로 지휘하는 모습들이며 그에 따라 논밭을 누벼가는 현대적인 농기계들, 양어장에서 물을 부글부글 끓이는듯 하며 펄펄 뛰는 물고기들, 과일나무가지들마다에 주렁진 향기로운 열매들,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농장원들… 참으로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의 모습이였다.

덕준은 그 휘황한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 그 앞날이 바로 다름아닌 봉희와 같은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새 세대 청년들에 의해 반드시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 약속하노라

조 광 철

약속하노라...

능금알처럼 뺨이 붉은 귀여운 내 딸과  
이제 크면 금메달만 따오리라는  
꿈많은 미래의 축구선수를 위해  
이 아버지 멋진 공을 꼭 사다주리라고

오는 일요일 개선청년공원의 유희장에 가자고  
슬그머니 안해의 귀가에 속삭이며  
나는 약속하노라 어머니의 생일에는  
비날론저고리 한벌 새로 지어드리자고

서른살 그 나이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젊은이  
내 누이동생과 나란히 세우고 싶어  
나는 또 약속하노라 인민대학습당  
서로 만나 사랑을 약속할 시간이며 장소까지도

시를 쓰겠노라고, 좋은 시를... 더 좋은 시를  
철의 도시 용해공 만형의 편지를 보며  
그가 꿰이는 주체철용광로의 사품치는 쇠물같은  
열정의 시를 쓰겠노라 정성껏 회답도 하며

내가 사는 만수대거리 단란한 가정에는  
언제나 화목이 샘처럼 마르지 말기를  
그래서 누구나 우리 집을 부러워하며  
나처럼 다정한 약속 더 많이 주고받으라고

약속하노라

나처럼 약속을 즐기는 사람들은  
병사라면 조국앞에 안녕이 깃든 밤의 고요를  
일하는 사람은 더 아름답고 눈부신 재부를  
지식있는 사람은 더 높은 최첨단돌파를

약속하며 사노라 아이들마저도  
심는 나무 한그루의 자그마한 실뿌리와도  
그 뿌리 이 땅을 더 깊이 그려안고

덕준은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짚으며 관리위원회  
로 향했다. 청춘의 활기가 되살아난듯, 젊은 시절  
로 되돌아간듯 고개를 높이 쳐들고 활개를 저으며  
걸어가는 그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절로 흘러나  
왔다.

애국으로 심장이 불타면

어서 자라 탐스런 열매 주렁지게 하리라고

땅! 그 깊은 지심과도 약속하노라  
무진한 힘, 슬기론 지혜로 천년잠을 흔들어깨워  
가지가지 은금보화... 그 모든 자원들이  
밝은 해빛, 싱싱한 공기속에 맘껏 숨쉬게 할  
것을

약속하노라 분분초초 변이 나는 내 나라에는  
천만복이 차고넘쳐 기쁜 일만 있기를  
그래서 온 세상이 사회주의 이 강산을  
정말로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라고

약속하노라

우리의 리상! 세세년년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현실로 펼쳐질 강성대국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못다 지킨 약속 그 어느 한가지라도  
절대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일 없을것을

오직 한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만나시는 병사들과 인민들... 그리고 아이들과도  
그처럼 약속을 많이 하시는분  
그처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분을 위하여

약속하노라 모든 사람들과 나는 약속을 위하여  
나는 의무를 리행하기에 더 성실하겠음을  
약속하노라 하는 말처럼 쓰는 글처럼  
나의 인생이 더 참되고 진실하고 열렬할것을

진정 강철과 같고 기발과 같고 폭풍과 같이  
삶이 불타게 하고 투쟁하게 하고 창조하게 하는  
오 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은 오직 하나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 우리 장군님을 위하여  
살자

약속하노라!...

점령 못할 침단은 없어야  
...

덕준의 뒤로는 휘영청 밝은 달빛아래 두줄기의  
큼직큼직한 발자욱들이 곧추 이어지며 우묵우  
묵하니 새겨졌다. 정갈한 흰눈우에 깊고 뚜렷  
하게...

# 선군시대 참된 애국자의 형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

— 장편소설 《대양으로》를 읽고 —

장 정 춘

오늘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혁명의 무기로 그 위용을 나날이 더욱 자랑스럽게 떨치고있다. 그런 작품들 가운데는 우리 나라 해운업발전의 생활을 취급한 장편소설 《대양으로》(석남진 작)도 들어 있다.

소설은 서해의 어느 한 배수리공장 도크건설장에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어떤 인간이 오늘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인간이며 참된 애국자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비교적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해명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인간형상을 창조하는 예술이며 인간형상은 문학의 얼굴이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면모가 규정되며 그 사상예술적가치가 결정된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주인공 최성무가 서있다. 그의 성격형상에서 본질적특징은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한 인간의 전형으로 그려지고있는데 있다. 애국심은 그의 성격의 근본특성이며 핵이다. 그것은 그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는 2호도크건설과정에서 가장 높이 발현된다.

사람에 따라 애국심을 보여주는 양상과 표현형태는 다양하다. 그의 가슴에 간직된 애국심의 특징은 그것이 선군조국에 대한 사랑,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오늘의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있는 애국심이라는데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분야들에서 큰몫을 맡아 하나씩 제껴나갈수 있는 그런 참된 인간, 자연과 사회를 선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는 그런 새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한 사상미학적요구의 높이에 우리의 주인공 최성무가 서있다.

선군의 드넓은 길을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그의 애국의 마음에 비껴있다. 그것이 소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 생활이 제김식물문형식의 선택과 제작이라는 그 생활이다. 그는 2호도크건설에서 초인간적정열과 완강성,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성된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 않았다. 본래 최성무는 선장출신이다보니 건설과 설계에는 깊은 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는 처음 도크설계에 개입하지 않는 립장에 서있었고 그 분야에서는 안명균에 비할수 없을 정도의 문외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로 하여금 물문의 형식과 제작문제가 도크건설의 현대화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대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문제만이 아니라 사상문제 즉 애국이나, 보신이나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임을 간파하고 그에 등한시할수 없게 하였다.

소설에서 안명균은 기술적면에서 본다면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만큼 공인된 권위를 지니고있었으며 공훈설계가이며 1급설계가라는 후광에 싸여있었다. 그는 성무와의 론쟁의 적수였으며 동시에 그의 오랜 친구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 곡절도 파동도 없이 친우관계를 유지하여왔었다. 그러나 애국의 분기점에서 그들의 우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성무는 서툰짜리 우정을 참된 애국과 바꾸지 않았으며 가슴아픈 친우관계와의 결별을 체험하면서도 그전 우정과 의리의 포로로 되지 않았다.

성무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로 나갈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끝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그에 깃든 숭고한 애국의 뜻이었다. 성무는 이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늘 생각했으며 일했고 생활하였다. 여기에 선군시대 애국자로서의 그의 참모습이 있으며 오늘의 시대, 선군시대 애국자의 특징이 있는것이다.

선군시대 애국자의 형상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불굴의 정신력과 담력과 배짱이다.

성무가 지닌 이 성격적특징은 강성대국건설시대 인간들이 지닌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적특징을 대변하고있다. 엄청난 투자와 방대한 건설력량을 동원해야 하는 공사를 룡해운선 단독으로 해낼것을 발기하고 달라붙은것자체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또한 건설과정에 최성무는 수많은 정신육체적난관을 이겨내야만 하였다. 평양과 남포 두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걱정거리들도 있었고 괴로움이 모진 시련과 더불어 그를 쓰러뜨리려 하기도 하였다. 가정적으로는 불상사가 이미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고 인간



관계에서는 우정이 그를 결별하고 떠나가버렸다. 그는 자기 아들의 생명의 구원자인 동시에 그 아들을 불구자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일시적이나마 쓰디쓴 참패가 그에게 들이닥쳤을 때 그는 신혁민의 표현에 의하면 《금시 강에 몸을 던질 사람》 같아보였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좌절감을 느끼는 때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의 강의한 정신의 힘이, 육체보다 강한 그 정신력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애국의 의미는 인간의 강의한 정신력의 승리와 그 크나큰 생활력과 결부될 때에만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줄수 있음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이 오늘 선군시대 애국자의 전형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것이다.

소설에서는 룡해운성당위원회 책임비서인 신혁민, 공사지휘부 참모장인 김정관의 형상도 최성무 못지 않게 큰 비중을 두고 형상하고있다. 최성무와 신혁민, 김정관은 처음부터 2호도크건설공사와 운명을 같이한 기본인물들이며 소설에서 주제사상의 해명을 힘있게 떠밀고나간 삼두마차이다. 소설의 많은 부분이 이 세명의 일군들의 이야기로 되어있으며 이 인물들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형상과제들이 지워져있다.

소설에서 신혁민은 로숙하고 세련된 당일군의 풍모를 지니고 매 사람들 한명 한명에 대한 깊은 룡해와 충분한 파악을 가지고있는 인물이다. 공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귀중한 일군들이 병원침대에 누워있을 때, 협의회들에서 론쟁이 치렬해질 때, 뜻하지 않은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주저앉아있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당일군인 그가 항상 그들옆에 있어준다. 그의 위로의 말 한마디, 그의 배포유한 웃음소리 하나가 그들을 일떠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것이다.

김정관은 이 소설에서 성무의 대리인으로서 또 지휘부 참모장으로 공사전반에 대한 지휘를 맡고있는 인물이다. 2호도크공사의 많은 부분이 그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항만 구조물건설문제도 잘 알고 통솔력과 내밀성이 있는 일군으로서 일을 제낄 때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다. 일에만 전심하다보니 가정생활이란 거의 잊다싶이 하면서 자기 몸을 송두리채 일에 바친다.

때로는 병원침대에서 뛰쳐나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 2호도크건설을 위해 늘 사색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공사에 큰 도움을 주는 인간, 그는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도 고요한 집 방안이나 침대가 아니라 공사장에서 산 60나이가 이미 지난 로인이었다.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애국자의 형상이다.

부정인물의 형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기로 하자.

새로운 시대는 부정인물형상에서도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당정책을 반대해나서는 그런 인물은 없다.

소설에서 기본부정인물은 박태일과 안명균인데 부정을 부정으로만 그리지 말고 긍정으로 둔갑한 부정으로 그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데 그들의 형상의 의미가 있다. 안명균은 처음부터 성무의 제깍식물문의 제작을 반대하는 립장에 선것은 아니었다. 그는 최성무의 립장에 불만을 품고있는 박태일을 반대하여 제깍식물문안을 지지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타고난 영웅이 없고 타고난 애국자가 없듯이 타고난 부정인물도 없다.

신념이 부족할 때 그들은 그런 길로 가는것이다. 천평에 올라있는 명균의 신념은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기울어질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의 깊이와 무게는 확고하고 드림없는것이 못되었다. 바로 그때문에 처음 긍정적으로 나왔던 그가 부정인물이라는 저울추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안명균의 형상은 부정이란 처음부터 정해져있지 않다는것, 중간에 변할수 있다는것, 또 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수도 있다는것 등을 보여준다. 바로 그때문에 박태일과 같은 립장에 섰던 안명균은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그를 반대하는 립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온다.

장편소설 《대양으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공지와 자랑안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 조선속담

### 욕심, 리기, 립색

- 같이 우물파고 혼자 먹는다
- 공것이라면 써도 달다 한다
- 굶은 개 부엌 들여다보듯
- 도적개 살 안 찐다
- 잘 걷던 놈도 말만 보면 타고가련다
- 줄수록 남남

- 공술에 술 배운다
- 남의 아이 떡 주라는 소리는 내 아이 떡 주라는 소리(이다)
- 남의 염병(전염병)이 내 고뿔(감기)만 못하다
- 고기 만진 손 국술에 씻으라
- 한푼 아끼다 백냥 잃는다
- 손님(나그네) 보내고 점심한다

## 사과 풍경

한영실

우리 생활에서 레사로이 보아오던 결혼식장에서 오늘의 시대를 느낀 뜻밖의 계기가 나에게 있었다.

그날은 사촌동생 영순의 결혼식날이었다.

방에 들어서던 나는 결혼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온통 빨강고 노란 탐스러운 사과알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쌓여있고 그 둘레로 사과단물, 사과단묵 등 깨끗이 포장된 사과가공품들이 청신한 꽃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영순이가 하도 사과를 좋아하다나니 이런 특이한 상을 차렸는가 지레짐작을 하던 나에게 문득 그 애와 사과를 놓고 이러니저러니하며 《사과론》을 정립하던 일이 생각났다.

사과는 온갖 과일들가운데서 으뜸인 백과의 왕이라는것, 왜냐면 빨강고 노란 색깔에 보기에도 탐스러운 외적미, 새콤달달한 맛과 그윽한 향기 등 감각적으로 제일일뿐아니라 영양가에서도 엄지손가락에 꼽힌다나...

(아무리 그러기로서니 어떻게 결혼식상까지 사과로 온통...)

《고모, 상차림이 아주 특색있군요. 어쩔 이런 생각을 다...》

《이 상차림은 우리 사위가 생각해낸거야.》

《어마, 신랑이 무얼 하는 사람이세요?》

《사과총각이란다.》

《사과총각이라는건?...》

처음 듣는 소리다.

《사과총각이 사과총각이지 뭐겠니? 과학원 사과연구사야.》

여기에 이 사과들이 모두 영순이네 중대원들이 애써 가꾼 그 대동강파수종합농장 사과들이다.》

새로운 감동이 더해지는 말이였다.

나는 다시 결혼식상을 바라보았다.

탐스러운 사과를 보느라니 마치도 알알이 무슨 얘기를 하는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원하여 원홍땅에 달려나간 영순이가 지난 봄날 사과꽃바다에 대하여 흥분에 넘쳐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레년에 없이 지속되는 추위에 짓눌려 못꽃들도 서둘러 피기 저어하던 봄날. ...

사과나무를 불안고 영순이와 그의 동무들은 사과꽃이 피어나기를 손꼽아기다리며 속을 태웠다.

그들의 애라는 마음에 감심한듯 드디어 하나둘 망울을 터치며 하얗게 꽃바다가 펼쳐질 때 영순이는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못꽃들은 피고지만 원홍땅의 사과꽃은 단순히 꽃의 생리만을 따르지 않는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지난해말 원홍땅을 찾으시여 이제 여기에 사과꽃이 피면 볼만 할것이라고, 정방산에 가서 꽃구경을 할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사과꽃구경을 하면 될것이라고 하시며 그날에 벌써 인민들에게 오늘과 같은 황홀한 사과꽃풍경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진정에 의해 망울을 터친 사과꽃들이 그이를 모시고싶은 돌격대원들의 간절한 소원에 떠받들려 말그대로 장관인 꽃의 바다를 이루지 않았던가.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엔 아버지장군님께 기어 이 아지가 휘게 주렁주렁 열린 탐스러운 사과바다를 펼쳐드리리라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고 그루그루 땀과 함께 정성을 쏟아부고 알알이 진정을 고여온 영순이, 그래서 일생의 길동무도 사과연구사총각을 택한것이 아닌가.

땀과 열정, 소원이 담긴, 그래서 더 소중한 창조의 열매, 그것을 더 아름답게 빛내이려는 지향으로 맺어진 사랑의 열매를 마주하고 웃는 영순이가 무척 행복스러웠다.

저도 모르게 영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영순아,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어.》

《언니, 고마와요. 사과를 놓고 말씨름하던 그때가 생각나요?》

난 이 손으로 직접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또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들이면서 창조의 보람이 깃들고 사랑의 언약이 담겨진 사과의 진미를 알게 되었어요.

백과중의 으뜸이 사과라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집약되어있는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사과야말로 사과의 으뜸이라는 것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어요.

# 첫 사과

리 동 수

하얀 꽃구름 과원을 덮던  
그 봄날이 어제같은데  
옥이는 사과를 판다  
아지마다 주렁저 향기 풍기는  
탐스러운 열매

바람조차 향기로운 과원의 바다  
넘치는 기쁨에 가슴들먹이며  
옥이는 판다  
잘 익은 사과 두손에 받쳐들어  
사과빛에 붉게 물든 볼에 꼭 대어본다

순간 마음에 사무치는 파스함  
가슴을 적시는 달디단 향기속에  
어려와라  
한해전 잊지 못할 그날이

간절한 소원담아  
장군님께 삼가 드렸던 첫 사과  
인민들이 맛보기 전엔  
한알도 단 한알도 안된다고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

아 우리에게 행복만 안겨주시려

한평생 다 바치시는 인민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 강산엔  
날마다 대정사의 기쁨  
사과처럼 무르익어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알의 사과조차 사양하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으로 안겨주시고도  
작게만 여기시는 끝없는 사랑이어

옥이는 판다  
날마다 커가는 인민의 행복인양  
사과는 상자마다 가득 넘치고  
가슴속엔 풀지 못한 그날의 소원안고  
한알 또 한알 사과를 판다

이 과원에 넉넉이  
열매는 무르익어  
강성대국락원에서 만복을 누릴 때에도  
그날에 못 드린 첫 사과  
이 땅에 남아 이 세월에 남아  
영원한 사랑의 백과로 주렁지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의 사과나무를 더 잘 가  
꾸자고 약속을 하고 상도 이렇게...》  
웁은 말이였다.

그저 맛있고 향기로운 사과라고 평범히 대할수  
없다.

그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고생도 락으  
로 달게 여기시며 눈보라 몰아치는 정초부터 삼복  
의 피약별도 비바람도 가림이 없이, 명절날, 휴식  
날 따로없이 온 한해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낳은 또 하나의 결정체인것  
이다.

위성이 우주를 날으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주체철, 주체솜,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CNC기계바다가 펼쳐지는 변이 나고 만수대거  
리와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철갑상어, 자라, 타조료리 등 희귀한 명료리와 개  
선청년공원의 눈부신 야경이 인민들을 기다리는  
흥이 나는 이 세월 사과바다 역시 새 풍경의 하

나가 아닐가.

신선한 사과를 실은 자동차들이 네거리를 줄지  
어 누비며 달리고 최첨단기술로 가공되고 저장된  
사과가공품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판매되는  
이채로운 상점매대,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자주 들  
리워 식탁과 원죽길에 올라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기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사과풍경인것  
이다.

겨울날에 펼쳐진 영순의 결혼식상도 그러한 사  
과풍경의 축도인것이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

행복에 겨운 신랑신부의 노래와 함께 울리는 우  
리의 합창은 하늘가득 넘치며 멀리멀리 온 강산을  
뒤덮는것만 같다.

# 영원한 사랑의 집

송 재 하

눈곱 축축히 젖어들고  
가슴뜨거이 달아오르는것은  
첫 손자를 본 그것때문이나  
해빛이 무리져 쏟아져내리는  
아 평양산원이여

내 첫딸을 본 그날도  
해빛이 아낌없이 쏟아져내리더니  
오늘도 그날처럼  
분수대엔 쌍분수가 솟구치고  
공원엔 장미가 빨갛게 타고...

변하지 않았구나  
파아란 하늘가로 자유로이 오가는  
비둘기떼의 환희로운 날음도  
아기를 안고 나오는  
어머니들의 밝은 얼굴도

대륙너머 백만장자들의  
초고층주택들은 더 높이 솟구치고  
초호화주택들은 더욱 번쩍거려도  
서른해전 우리 당이 세워준  
어서 오라 두팔벌린 산원보다  
더 밝고  
더 황홀하지 못하거니

세월이 흐른다고 변함있으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의 젖줄기를 물려주고

가 사

한생 품안아  
자주적인간의 권리 마음껏 누리게 하는  
우리 당의 그 사랑에는

그 사랑으로 젖어드는 눈길로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나는 지금 보고있다  
이제 또 서른해 세월이 흘러  
아니 아득히 세월이 흘러  
여기서 태어날 아기들의 모습을

그날도 오늘처럼  
해빛은 아낌없이 쏟아져내리리  
아기들의 살오른 두볼에도  
어서 오라 두팔벌린  
산원의 무수한 창가에도...

사랑이란 그 뜻 아직 알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들도  
어머니품에 안겨 보고 또 보는  
공원의 한송이꽃도  
우리 당의 사랑으로 한껏 불타는

아, 평양산원이여  
우리 당의 영원한 인간사랑으로  
먼 세월의 한끝에 가도 우뚝 빛나는 집  
위대한 인간찬가로 번영하고 무궁한  
아 아, 어머니 나의 조국이어!

## 무릉도원에 과일 향기 넘치네

리 진 목

아지마다 휘여지게 사과알이 무르익어  
풍겨오는 향기에 내 마음 흥겨워라  
장군님의 그 사랑 열매마다 깃들어  
선경마을 과원에 향기 넘쳐흐르네  
아 사랑의 향기 넘쳐흐르네

화창한 봄날의 꽃향기도 좋지만  
가을바람 실어오는 사과향기 더 좋아  
장군님의 그 사랑 열매로 무르익어

무릉도원 사과풍년 향기 넘쳐흐르네  
아 사랑의 향기 넘쳐흐르네

무르녹는 사과향기 이 가슴에 스며들어  
아버이사랑에 고마움의 인사드리네  
장군님의 평생소원 향기에 깃들어  
세세년년 사과풍년 행복의 노래되리  
아 사랑의 향기 넘쳐흐르네



# 기대

리 순 호

작업반 초급일군선거가 끝난 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으나 원인식이만은 굳어진듯 한자리에 앉아있었다. 본시 시커먼 그의 얼굴은 더욱 컴컴해지고 우람진 몸집조차도 이 순간에는 한줌으로 줄아든듯싶었다.

《왜 그러오? 5분조장동무!》

작업반장 장정판이 묻는 말이였다.

원인식은 귀에 선 그 부름에 언뜻 고개를 돌렸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방금전에 5분조장으로 선거받았음을 상기했다.

원인식은 몹시 걱정되였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3년동안 농업전문학교를 나왔을뿐 농사경험이란 별로 없는 그였다. 농사를 지었어야 기껏 2년... 그런데도 나이가 많아 일손을 놓는 전 분조장은 자기 후임으로 원인식을 추천했고 분조원들은 손을 들어 지지한것이였다.

믿음과 기대어린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던 분조원들의 눈길이 지금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랜 농사군으로서 농사경험이 많은 서길녀아주머니며 말투와 행동거지까지도 자기가 관리하는 부림소처럼 느릿느릿한 소관리공 탁용철, 농업전문학교를 나오고 무엇을 연구한다며 돌아치는 신철남이, 분조의 팔랭이처녀 리춘금이... 그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손을 들었을까?...

원인식의 이런 심정을 짐작한다는듯 장정판이 사람좋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5분조장동무, 동무의 심정은 알만 하오. 어깨가 무겁겠지. 분조장동무에 대한 분조원들의 믿음과 기대가 크다는걸 자각하면 되오.

동무도 알겠지만 우리 작업반은 일이 그닥 잘된다고 말할수는 없소. 농사작황에서도 아직 앞선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고있고 또 여러가지 걸린 문제들이 많소. 지금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이 급선무가 아니겠소. 그런데 우리 아직...

하긴 이만큼한 정도에 올라선것만도 괜찮다고 봐야지, 허허...》

장정판은 담배를 붙여물고나서 말을 이었다.

《5분조장동무, 내 여담삼아 충고를 하나 할가. 우리 초급일군들한테서 제일 중요한게 무엇인것 같소? 능란한 사업수완? 아니면 자기 분조나 작업반에 대한 높은 책임성? 농사군다운 부지런한 일 솜씨?... 물론 다 중요하지.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건 분조원들에 대한 사랑이요. 따뜻한 인정미란 말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것이 다 해결된다는걸 명심하오.》

원인식은 무겁게 숨을 내그었다.

장정판반장은 인정미가 많은 사람이다. 반원들은 반장을 잘 만나 작업반농사도 그만하면 괜찮게 되고 작업반일도 편인다고 너도나도 말한다.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 분조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할수 있을까? 장담할수 없는 일 이였다.

원인식은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으로 무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작업반실을 나섰다.

립춘무렵이였다. 하루일을 끝내고 작업반초급일군모임까지 마친 원인식이 집에 들어서니 할머니가 언제나와 같이 반겨맞아주었다.

《인제야 들어오냐? 원, 날씨도... 불이 다 시퍼래졌구나.》

할머니는 분조장이 된 지금에 와서도 손자를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원인식의 손을 치마폭으로 감싸며 아래목으로 이끄는것이였다. 하긴 어릴 때나 다 자란 지금이나 할머니에게는 언제나 귀여운 손주인것이다.

이런 할머니를 대하느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지고 치마폭에 감겨들며 어리광을 부리고싶기도 한 원인식이였다.

《할머니, 저건 뭐예요?》

원인식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래목에 앉

으며 웃목의 범랑남비를 가리켜보였다.

《오, 저것 말이나? 물엿이다. 네가 분조장일을 할라니 오죽이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 할미가 옛날솜씨를 보인게다.》

《하하하...》

원인식은 그만에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웃었다. 코등이 매워났다. 마를줄 모르는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할머니두 참, 너무 걱정마세요.》

《어디 걱정 안하게 됐니. 나두 한뼉 농사를 지어봐서 안다만 분조장일이라는게 어디 말처럼 쉽나. 오죽하면 분조장이라구 하겠냐. 10여명 분조원들의 마음을 맞추어나가기가 험치 않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던. 하긴 너야 군대때 사관장까지 했으니 어련하겠나만. 그래도 여긴 〈차렷〉, 〈앞으로 갓〉 하고 구령만 내리면 척척 움직이는 군대하군 다르단다.》

할머니는 제법 목청을 돋구어 구령치는 흥내까지 내었다. 그 모양이 우스워 인식은 또다시 허리를 불안고 한바탕 웃어대었다.

할머니도 제풀에 웃으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얼마후 저녁식사를 마친 원인식은 책상에 마주앉아 농업과학기술잡지를 펼쳐들었다. 그런데 글줄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글줄우에 서길녀의 얼굴모습이 겹쳐들었던것이다.

...《분조장, 이 거친 퇴비들도 박박 긁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묻는 말이다.

그러자 대뜸 소관리공 탁용철이 반박해나섰다.

《채 썩지도 않은 이런 검부레기같은걸 내다간똥에 쓴다는거요. 거름을 많이 썼다는 말만 들었지. 몇년전엔가 우리 반장이 이런것까지 몽땅 눈에 실어냈다가 비판받던 일을 벌써 잊었소? 우리 농장원들이 반장을 잘 도와줘야 한다구요.》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었다.

분조는 며칠째 개인집 퇴적장의 퇴비로 흙보산비료를 만들고있었다. 원인식은 잘 썩지 않은 웃부분은 따로 제껴놓고 질좋은 퇴비로 흙보산비료를 만들게 했다. 분조원들의 말에 의하면 땀감으로도 쓸수 있을 정도인 거친 퇴비들은 비경지에 모아쌓고 충분히 썩여 다음해에 내군 했다는것이었다.

헌데 서길녀는 이미전부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새 분조장에게 제기했다가 통을 맞은것이였다.

원인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리춘금이 쪽을 돌아보았다. 그만은 좋은 조언을 주리라 믿었기때문이었다. 헌데 왜선지 리춘금은 원인식의 시선을 피하는것이였다. 뜻밖이었다. 어릴 때부터 앞뒤집에서 살면서 자기를 친오빠처럼 따르던 춘금이였다.

분조장으로 선거받던 날 잔뜩 근심에 싸여있는 자기에게 《전 인식오빠가 분조장사업을 우리 분조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리라 믿어요.》 하고 명랑한 어조로 말하고는 깔깔거리며 달아나던 그였다. 그런데...

마침 장정관반장이 나타나는 통에 두사람의 언쟁이 중단되였다.

장정관은 자전거에서 마대를 내리웠다. 아구리를 풀어헤치니 끝에 노란 싹이 돋은 생신한 무우가 나졌다.

《오늘 읍에서 꺼냈는데 겨울사과못지 않더라니 허허... 그래서 가져왔소.》

그는 다른 분조에도 가져다줘야 한다면 서둘러 자전거에 올랐다. 그러는 장정관에게 원인식은 거친 퇴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한쪽에 모아놓은 거친 퇴비들과 그옆에 잔뜩 부르튼 얼굴로 서있는 서길녀를 쳐다본 장정관은 짐작이 간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좋은 웃음을 지었다.

《서길녀아주머니, 종전처럼 더미를 따로 만들었다가 래년에 쓰도록 하자구요. 퇴비갈지도 않은걸 내가지고 눈속임할수야 없지 않소, 허허...》

듣기 좋게 설득시키고난 장정관은 따르릉거리며 바빠 자전거를 몰아갔다.

원인식은 생신한 무우를 놓고서도 먼저 반원들을 생각하는 장정관의 인정미에 코등이 시큰해났다. 이런 반장을 누가 따르지 않으랴.

분조원들은 모여앉아 무우추렴을 하면서 사과보다 더 달고 시원하다는등, 우리 반장이 제일이라는등 하며 반장을 칭찬했다.

하지만 원인식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어째선지 서길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비록 얼마안되는것이긴 하지만 채 썩지 않았다고 해서 1년동안이나 묵여둔다는것이 내키지 않았다. 서길녀아주머니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터인데... 이러다간 내가 반장한테 오해라도 사지 않을까. 반장을 따르는 분조원들이 날더러 맥도 모르면서 침통 빼든다고 비난할지 뉘 알랴. ...

오늘 있는 일을 되새겨보며 잡지를 뒤적이던 원인식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길녀를 만나보려는 심산에서였다. 그러면서도 리춘금의 처사에 대해서는 섭섭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모판에서 씨뿌리기준비를 서두르던 분조원들은 10정보틀에서 꾸역꾸역 솟구치는 연기를 발견했다. 퇴비더미에서 나는 연기였다. 쇠스랑이며 걸이대며 삽이며를 들고 달려간 분조원들은 불붙는 퇴비더미를 사방으로 헤집어놓았다.

서길녀의 의견대로 눈에 온돌을 놓고 거친 퇴비를 실어내다가 물거름에 채워 더미를 만들고 온돌

을 덩혀 속성퇴비를 만드는중이었다. 헌데 온돌을 잘못 놓았는지 퇴비더미에서 불이 난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달려온 장정판이가 쓴입을 다시더니 원인식이 한테로 돌아섰다.

《이만하기도 다행이군. 내 뭐랬소. 분조원의 의견이라고 다 듣는게 아니지. 분조장이라는게 제 주견도 좀 있어야지. 하긴 처음 해보는 일이니...》

듣기 좋게 충고를 주고난 장정판은 거친 퇴비를 도로 실어들이라고 지시했다.

반장이 돌아가자 신철남이 불이 부어 두덜거렸다.

《체, 도로 실어들어갈바에야 왜 내왔는지...》

《반장동지 말이 옳지 뭐야.》

퇴비를 모으던 소관리공이 주는 핀잔이다.

원인식은 낮이 뜨뜻해지는것을 느꼈다. 탁용철의 말은 자기에 대한 로골적인 비난인것이다.

신철남은 자기대로 오통해서 대들었다.

《반장동진 맹탕 종단 말이에요.》

《이녀석, 버릇없어.》

농장실정에 맞는 비료심층시비기를 만든다면 서 농장 수리분조를 찾아다니다가 말은 일을 뜨꺼 먹고 반장한테 말을 들은적 있는 신철남이었다. 그는 농업전문학교졸업생인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는것이 맛갓잖다는거다. 이전에는 눈에 뿌리던 비료를 벼포기밑에 깊숙이 묻어주면 그 효과를 배이상으로 높일수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벼포기들밑에 하나하나 비료를 묻어주자니 로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애를 먹었다. 그것을 기계로 해 보겠다고 철남이 나섰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있었다. 그런데도 반장이 도와줄대신 뒤다리를 잡는다고 철남이는 노상 찌뿌둥해서 다니는것이다.

《체, 나이가 일을 하나, 지식이 일을 하지. 그래도 난...》

반장한테 말을 들은 날 뒤돌아서서 내던진 신철남의 말이다. 그때 원인식은 엄하게 책망했다.

《철남이, 건달을 부리자구 지식이 필요한게 아니야.》

《건달이라구요? 분조장형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철남은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씩씩거렸다.

그런 신철남이니 지금 반장이나 분조장의 처사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것이다.

원인식은 그를 탓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분조원들을 둘러보았다.

《포전에 내온 퇴비를 도로 실어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온돌을 다시 잘 놓고 속성퇴비를 만들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잘 썩지 않았다고 해서 1년이나 묵이면서도 아까운줄 모르는 관념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거름더미는 곧 썰더미라는것을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까. 서길녀아주머니는 바로 그래서 속성퇴비생각을 해낸겁니다. 앞으로 불을 때지 않고도 속성퇴비를 만들수 있는 첨가제는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인 신철남동무가 만들어낼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온돌신세를 저야 하겠습니다.》

원인식의 말에 사람들은 눈이 커다래져서 신철남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과 함께 일하고있는 신철남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한 모양이었다. 신철남의 낮이 익은 감빛으로 되어버렸다.

《아니, 그건...》

원인식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철남동무, 나이가 아니라 지식이 일을 하지. 비료심층시비기를 만들고나선 속성퇴비첨가제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자구. 나도 도와주겠소.》

신철남은 고개를 외로 틀며 부르튼 소리를 내뱉었다.

《난 못해요.》

결에 섰던 서길녀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예구, 재세하긴. 우리 철남이는 너무 웅졸해. 차라리 저 춘금이하구 치마를 바꾸어입고말지.》

《어마나, 성호 어머니 아무 말이나 탕탕...》

말이 끝나기 바쁘게 달려든 리춘금은 서길녀의 잔등을 주먹으로 쿵쿵 두들겨대며 원인식이쪽을 결눈으로 살짝 스쳐보았다. 왜선지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여졌다.

《아이구야, 심장 떨어지겠구나. 춘금인 분조장이 범보다 더 무서운게지? 분조장눈치부터 볼 땐...》

리춘금은 낮이 아예 짜리빔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다.

《성호 어머니 정말...》

《흐하하...》

《흐흐흐...》

폭소가 터졌다. 원인식은 저도 모르게 부자연스러워지는 몸가짐을 가까스로 바로잡으며 상기도 한자세로 똑해 서있는 신철남에게 오금을 박듯 강조했다.

《비료심층시비를 하면 적은 량의 비료를 가지고 고서도 그 효과를 배로 높일수 있지 않소. 그런데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단 말이요. 그러니 철남동무가 만드는 비료심층시비기가 얼마나 중요하오. 그게 다 우리 농장을 위한 일이고 우리 분조원들 일이고 동무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게 아니겠소. 그러니 신철남동무는 오늘부터 비료심층시비기를 만드는데 전심해야겠소. 다른 동무들도 분조농사를 위해 무언가 한가지씩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머리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온돌을 제격 다시 놓읍시다.》

모판씨뿌리기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모판의 비

널박막속에서는 벼모들이 뽀족뽀족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원인식은 모판관리공인 리춘금이와 함께 모판의 물온도를 재보고있었다.

원인식은 며칠째 날씨가 나빠 물온도가 떨어져 모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걱정하며 온도계의 빨간 수은주를 들여다보는 리춘금을 이윽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길녀가 거친 퇴비도 포전에 내가야 한다고 제기하던 날 자기의 시선을 피하던 까닭을 알고싶었다. 언제부터 물어본다는것이 선뜻 입을 떼게 되지 않았다. 춘금이와 단둘이 있게 되는 때면 별스레 자세가 흐트러지고 입안이 말라드는것이 이상했다.

젠장, 이건 뭐야? 제대군인이라는데... 하고 자기에게 화를 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춘금의 진속을 가늠하고싶은 마음이 더 강렬했다.

《춘금동무.》

《예.》 하고 돌아보던 리춘금은 원인식의 심상치 않은 눈빛을 대하자 흠칫 놀라며 하마트면 온도계를 땔굴번 했다.

이때 신철남이가 논두렁의 묵은 풀을 툭툭 걷어차며 심드렁해서 다가왔다.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아직 만들지 못하다니, 왜?!》

신철남은 잔뜩 찌프린 기색으로 내뱉듯이 대답했다. 농장 수리분조에서 모내기철을 앞두고 트랙트르며 모내는기계 수리정비때문에 짬을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는것이였다.

《아 그 꼭자같은 수리분조장아바이가 어디 말을 들어줘야 어찌지요. 치차같은건 한것이면 깎을 수 있겠는데... 내 참.》

두덜거리는 신철남의 말을 원인식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한테 말겨만 놓고 방임했던 자기 잘못이 컸다.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제 힘으로 해내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건데...

원인식은 무겁게 말했다.

《10정보틀로 나가라구.》

얼마후 원인식이도 10정보틀로 나갔다.

갓 봄같이 한 들에서는 우유틈물안개가 피고있었다. 연보라빛으로 채색된 기름기 번들거리는 들 한가운데서 가래질하는 분조원들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물안개우로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원인식은 왜서인지 쓴입을 다시며 걸어오는 반장과 마주쳤다.

《5분조장동무, 신철남이한테 비료심층시비기를 만들라는 과업을 주었소?》

《예.》

《허, 그전에도 그런걸 들구다니면서 건달을 피우길래 걷어치우라고 했는데...》

장정관은 언짢은듯 입을 다시였다. 원인식은 반장과 벗어나는 일만 생기는것이 미안스러웠다.

《분조원들을 밀어주는건 좋은 일이지만 건달을 조장시켜서야 안되지. 뭐니뭐니해도 흙을 많이 주물려야 실농군이 되는게 아니겠소. 신철남인 아직 먹은 나이가 적어. 일하기 싫으니까 기계창안이요 뭐요 하면서 건달을 피운단 말이요. 분조원들을 단단히 틀어쥐어야겠소. 어서 작업장에 가보오.》

원인식은 반박하고싶은 말이 혀끝까지 물어올라왔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어 입밖에 낼수가 없었다.

그와 헤어져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반장의 지적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신철남은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았던것이다. 속이 울컥거리며 참을수가 없었다.

신철남이대신 자기가 가래장부를 쥐었다. 성나면 보리방아를 더 잘 찧는다고 웃동을 벗어던지고 옥옥거리며 가래질을 했다. 신철남은 한참만에야 나타났다.

《늦어서 안됐어요. 제가 하겠어요.》

가래질을 멈춘 원인식은 측은한 눈빛으로 신철남을 마주 바라보았다.

《철남이, 사내라는게 부끄럽지도 않아?》

《예?》

신철남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하여 화독처럼 달아올랐다. 가래장부를 넘겨준 분조장이 다른 작업조가 있는 곳으로 가버리자 신철남은 기분이 좋지 않아 씨근거렸다.

《체, 심층시비긴지 뭔지 싹 집어던지고말아 야지.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모두 원 눈으로만 보려고드니...》

지난해 품이 많이 드는 비료심층시비를 인력으로 해보고나서 심층시비기를 만들 공냥을 했던 그였다. 제판에는 큰 욕망을 품고 달라붙었는데 오히려 건달군짜지가 붙을줄이야... 새 분조장까지도...

《철남인 왜 그리 울상이야? 도면이랑 완성했다면서.》

서길녀의 말에 신철남은 미간을 찌프렸다.

《그럼 뭘해요. 용접을 할줄 모르니... 실은 수리분조장과 사업을 좀 하려고 물목에다 메기그물을 치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분조장형님은 괜히...》

신철남은 입이 한발이나 나와 두덜거렸다.

점심참에 서길녀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었을 때 원인식은 심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웃방에 꾸러놓은 우렁이서식장으로 들어가 농장온실에서 얻어온 배추를 먹이감으로 놓아주던 인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우렁이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받고 도에 있는 농업과학원 분원에서 가져온 우렁이들이다. 요즘은 우렁이로 논김을 잡는것이 추세라고 하면서 우리도 한번 도입해보는것이 어떠냐고 하는 아버지



의 말을 듣고 여러번 걸음을 해서 가져온것인데 이 고장 기후풍토에 적응시키자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아버지는 작업반에서 세 포비서를 한다. 원인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어려워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장이라도 타면 대견함을 감추지 못하고 액틀에 넣어 벽에 걸어놓곤 했지만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가 없었다. 때로는 회초리도 들었다. 아버지는 늘 좋은 일 하기과제를 주고 꼭꼭 받아내곤 하였는데 원인식은 아버지한테서 칭찬받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좋은 일을 찾아내며 제손으로 해제끼기를 즐겨했다. 그것이 이제는 굳어진 습관으로 되었다.

그런데 신철남이는 왜 그 모양일까? 농사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열정은 좋은데 누가 한마디 하면 시끄해서 엇드레질을 하고... 왜 그럴까? 성격탓일까? 아니면 반장 말따마나 먹은 나이가 적어서일까?... 어떻게 해서든 그를 잘 도와주어 비료심충시비기를 자기 손으로 끝까지 완성하도록 해야 할텐데... 헌데 왜 자꾸 엇서나갈까?

문득 분조장으로 선거받던 날 하던 장정관반장의 말이 귀전을 울렸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건 분조원들에 대한 사랑이요. 따뜻한 인정미란 말이요.》

그러니 나에겐 아직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 사랑, 신철남은 대체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가?

얼마후 아래방으로 내려오니 아버지가 근엄한 낯빛으로 바라보았다.

《요즘 분조원들속에서 너에 대한 의견이 많다 더구나. 어떻게 된거냐?》

원인식은 대답을 못했다.

《아무래도 네가 분조장사업을 잘못하는것 같다.》

준절하게 꾸짖는 아버지였다. 이때 부엌에서 올라오던 할머니가 손주편역을 들었다.

《아에비야, 처음 분조장을 해볼라니 무슨 말인들 안 듣겠냐. 저걸 보렴, 불이 다 꺼칠해진걸. 쫓쫓...》

원인식은 무거워지는 심정으로 점심상을 마주했다.

다음날 새벽 일찍 모판포전을 돌아보던 원인식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채 홍알이 풀어져 코노래를 부르며 물목쪽에서 들어오는 신철남이와 맞다들었다. 그의 손에는 팔뚝같은 메기 두마리가 들려있었다.

원인식의 질은 눈섭이 꿈틀했다.

《그건 뭐요?》

《수리분조장과 사업을 해서 용접을 도움받으려고...》

원인식의 눈섭이 아예 맞붙어버렸다.

그의 사나운 눈총에 철남이 해석은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아니, 분조장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런걸 들고다닐 시간이면 용접을 배워서라도 자체로 해냈을거요.》

신철남은 시끄둥해서 분조장을 외면했다.

《난... 모르겠어요. 농장에 수리분조가 있는데 왜 꼭 내 손으로 용접까지 해야 하는가 말이에요.》

《그만두라구.》

원인식은 격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을 모르는 그따위 절름발이 지식은 쓸모가 없소. 최첨단시대에 맞는 과학농사를 짓자면 누구나가 다 지식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어야 할텐데 웅석발이 막내동이처럼 짹하면 엇드레질이니... 그래 내가 철남동무를 믿고 일을 맡긴게 잘못이요?》

신철남은 고개를 외로 틀고 먼산만 시끄해서 바라보았다.

《난 그래도 철남동무를 믿었소. 언제인가는 자기자신을 깨닫고 분조의 기둥, 농장의 기둥으로 되리라고 말ियो. 과학과 지식을 배운 철남동무같은 사람들이 바로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게 아니겠소. 그런데도 동문...》

원인식은 한결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저녁부터 나와 함께 수리분조로 올라가자구.》

《...》

《가서 용접을 배워서라도 비료심충시비기를 만 들어야 해. 철남동무의 힘으로 말ियो.》

신철남은 한숨만 풀 내쉴뿐이었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수리분조로 올라갔다. 눈에 피발이 서고 신발이며 바지가랭이에 불구멍이 송송해지도록 때고 불이며 용접을 배웠다. 그들의 열성에 감심한 수리분조장도 적극 도와나섰다.

어느날 일이 있어 리춘금이네 집에 들렀던 원인식은 뜻밖에도 우렁이서식장을 보게 되었다. 그는 눈이 커졌다.

《이건 우렁이가 아니요?》

《네, 옳아요.》

《헌데...》

《아이참, 보고도 모르는걸 대준다고 알겠어요?》

리춘금은 분조장이 놀라는것이 재미있다는듯 상글거렸다.

《그러니 우렁이로 김을 잡자는거겠지?》

《그렇잖구요. 농업과학원에선 실험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나요. 아직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는데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뭐.》

당돌하게 말하는 리춘금이었다.

실험적으로 성공했다지만 현실에 도입하려면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우렁이를 믿다가 김을 묵이기라도 하면 큰 야단이다. 현대 처녀인 리춘금이 어쩔이 크게 우렁이로 김을 매자고 나선 것이었다.

원인식은 리춘금이 모판판리의 잠시간에 풀을 뜯는것을 여러번 보았었다. 그때는 토끼풀을 하는 가부다 하고 무심히 여겼었는데 이제 보니 우렁이를 서식시키고있었다. 그런 생각을 한 리춘금이 돋보였다.

《어떻게 우렁이생각을 다해냈소?》

리춘금의 얼굴이 발가우리 상기되었다.

《그건... 인식오빠를 믿었기때문이에요. 기뻐하리라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면 그전처럼 오빠라고 부르는 리춘금이었다. 원인식은 속이 뭉클해났다. 자기를 믿었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울려줄줄은 몰랐다. 고마웠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싶었다. 우렁이들을 지켜보는 원인식의 눈에서는 감동의 불꽃이 일고있었다.

모내기가 끝나자 비료대용으로 벼포기밑에 청풀 깔아주기작업을 했다. 분조원들은 저마끔 손달구지를 끌고 나왔다. 수로에서 베어낸 청풀을 포전으로 날라가려는 것이었다.

원인식도 손달구지를 끌고나왔다. 온통 때고 붙여서 불품없이 태버린 손달구지였다.

분조원들이 오구작작 떠들며 손달구지주위에 모여들었다. 5분조에 나왔던 장정판이도 눈이 커져서 손달구지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 손달구지는 왜 이 모양이요?》

그러는 장정판에게 서길녀가 속살거렸다.

《우리 철남이 소행이래요.》

《뭐? 철남이 소행?》

《아유 참, 반장은 아직도 모르시우? 우리 분조장이 철남이 용접기술전습을 시키느라고 자기네 손달구지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질 않아요. 글썄 이만큼 큰 돌을 싣고 강도시험이라는걸 했더니요. 비료심층시비기는 또 얼마나 썩하다구요. 덕분에 우리 5분조는 올해엔 호강하게 됐수다, 호호호...》

《체, 체, 거 희떠운 소리일랑 말구 날래 청풀이나 나르자구요.》

신철남이 어깨가 으쓱해서 손달구지를 수로쪽으로 끌고가자 다시금 웃음이 일었다.

서길녀는 저쪽에서 낫을 갈고있는 원인식에게 소리쳤다.

《분조장동무, 속성퇴비를 낸 10정보틀의 벼뿌리 개수를 세어보았더니 글썄 작년 이맘때보다 열개나 더 많아요. 아지도 석대나 더 컸구요.》

궁지감에 넘친 서길녀의 말에 원인식은 흐드

러지게 웃었다.

《그게 바로 속성퇴비덕이라는겁니다. 서길녀아 주머니가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하하하...》

사람들은 긍정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쓸모없다던 거친 퇴비가 예상외의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장정판은 낮이 붉어짐을 느끼며 원인식을 한쪽으로 불렀다.

《5분조장동무, 김경학이네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 해산을 했는지?》

《예, 그래서 경학동무를 병원에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던 장정판은 자전거바구니에서 꾸레미를 내리었다.

《이안에 산꿀이랑 닭알이랑 있는데 가져다주라우.》

《!...》

《참 말을 들으니 춘금이 집에서 우렁이를 서식시키고있다던데 동무가 파업을 준전 아닐테지?》

《예, 춘금동무가 자체로...》

원인식은 얼결에 대답하였다.

《알겠소. 정말 철들이 없거던. 아직 파악이 없는걸 서빨리 손댔다가 무슨 일을 치자구.》

《반장동지, 그런게 아니라...》

원인식은 반장이 잘못 이해하는것 같아서 성급히 말꼭지를 뺐다. 허나 장정판은 벌써 자전거에 오르며 손을 내저었다.

《그 일은 나한테 맡기라우.》

원인식은 멀어져가는 장정판의 뒤모습을 이윽히 지켜보다가 손에 들려있는 꾸레미에 시선을 떨구었다. 분조원들의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자기를 제때에 일깨워주는 장정판반장이었다. 전번 태양절에 진행한 분조별 요리경연때에 보니 장정판은 때 반원들의 생일뿐아니라 식성까지도 알고있었다.

마치도 다심한 할머니같기도 한 장정판이었다. 그에 비하면 자기는 얼마나 분조원들과 거리를 두고있는가. 반장의 인정미에 대해 매양 감심하게 되는 원인식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구석을 느끼게 되는 그였다. 딱히 짝어 말할수는 없지만 장정판의 반원들에 대한 사랑에는 꼭 있어야 할 무엇이 부족한듯싶어 서운했다. 물론 자기 개인의 감정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후였다. 리춘금이 원인식을 찾아왔다. 그는 입술을 옥물고 원인식을 바라보았다.

《전 인식오빠가 그런 사람인줄 몰랐어요.》

원인식은 눈귀를 치며올렸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시치미를 떼지 마세요. 오빠 반장동지한테 우리 집에서 서식하는 우렁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것이라고 했다면서요?》

깨도가 갔다. 장정관은 필시 그 모가 나지 않는 듣기 좋은 말로 우렁이를 그만두라고 설복했을 것이다. 아까 반장이 자기가 시킨것이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대답한것이 그렇게 번져질줄이야.

원인식이 대답을 못하자 리춘금은 자기대로 해석했다.

《그랬듯군요. 이제 알만 해요. 오빠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요.》

실망으로 하여 꺼져드는 리춘금의 목소리는 원인식의 흥벽을 아프게 긁어내렸다.

리춘금이 표연히 돌아서버리자 원인식은 허거폰 웃음을 웃었다. 일도 참, 오늘 저녁 10정보틀에 우렁이들을 함께 놓아주려 했었는데...

원인식은 저녁무렵에 집에서 깨워낸 우렁이새끼들을 물초롱에 담아지고 홀로 논으로 나갔다. 그는 우렁이들을 여러 포전에 갈라 놓아주었다.

왜서인지 마음이 울적했다. 춘금이와 함께 나오지 못해서만도 아니었다. 벌써 이미전에 원인식은 분조원들에게 우렁이의 우점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지금 리춘금이가 자기 집에서 서식시키고있다고 알려주었었다.

문제는 반장과파의 마찰을 피할수 없다는데 있었다. 그렇게 되면 분조분위기가 뒤숭숭해질수 있었다. 이것이 두려웠다. 그러지 않아도 탁용철은 원인식이 반장과 자주 엮인다고 내놓고 비난인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겼던 그는 등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물지계를 진 리춘금이가 다가오고있었다. 그도 우렁이를 내오는것이였다. 땀발이 선 그의 모습이 은은한 달빛속에 아름답게 안겨들었다. 분조장을 알아보자 리춘금은 오통 췄다. 그도 분조장이 우렁이를 놓아주고있음을 알아본 모양이였다.

《그럼 분조장오빠도 집에서 우렁이를...》

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별안간 매몰차게 소리쳤다.

《그런걸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들고다니겠소.》

《그러니 저같은건 상대도 안된다는거지요?》

리춘금은 옆으로 휙 돌아서서 눈굽을 훔쳤다.

《난, 난 정말 멍뚱이예요.》

그는 원인식이한테로 몸을 돌렸다.

《같이 놓아주자요, 오빠.》

원인식은 눈굽이 찢릿해났다. 이 순간 오빠라는 부름이 왜 이처럼 친근하게 들리는것인지.

비로소 원인식은 춘금에게 품고있던 의문이 풀리는듯싶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춘금이 역시 훌륭하다고 여기고있는 반장에 대해 흠을 내고싶지 않아서 그날 자기의 눈길을 피한것이라. 결국 반장의 인정미는 원칙이 결핍된 인정미, 반원들의 입을 병어리로 만드는 그런 인정미인것이다. 춘금

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원인식이였다.

《춘금이, 고맙소!》

《그건 제가 하고싶은 말이에요.》

두사람은 우렁이초롱을 맞들며 밝게 웃었다. 옅은 구름이 덮인 하늘에서는 초생반달이 두 청춘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방글방글 웃고있었다. 김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원인식은 낮에는 분조원들과 같이 일하고 밤에는 밤대로 수시로 포전에 나와 우렁이들의 생태를 관찰했다. 밤날씨가 차지면 우렁이들한테서 변화가 일어날가봐서였다.

하루는 장정관반장이 5분조 10정보틀로 나왔다. 논김매기상태를 알아본 장정관은 원인식을 불렀다.

《벼의 생육상태는 괜찮구만. 헌데 왜 김매기를 늦잡는거요?》

《인차 매겠습시다.》

《그래야지, 좀더 다그쳐야겠소.》

이러며 벼포기들에 시선을 주던 장정관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아니, 저건 뭐요? 우렁이가 아니요?》

절벽 논에 들어서서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의 불편이 가늘게 떨렸다. 한동안이 지나 허리를 편 장정관은 안타깝다는듯 사방을 둘러보았다.

《분조장동무, 정말 답답하구만, 답답해. 내 그만큼 말했는데 끝내...》

나도 우렁이로 김을 잡으면 품도 적게 들구 여러모로 좋다는걸 모르는게 아니요.

하지만 생각 좀 해보우. 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우렁이들이 이 넓으나넓은 벌의 김을 다 잡아낼것 같소? 더우기 그 우렁이들이 아직은 낮은 온도에랑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데 폭우라도 내려 밤온도가 툭 떨어지면 어쩔려고 그러는가 말ियो?》

장정관은 격해오르는지 손세를 써가며 말했다.

《그러기에 이번해에는 몇정보에만 시험적으로 도입해서 환경에 적응시키자는겁니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도 키워주구요.》

《그 몇정보두 다 국가계획에 들어있는 땅이란 말ियो. 그 땅의 농사를 망치면 나나 분조장동무가 책임을 져야 하구.》

내 전에도 말했지. 분조원들의 의견이라구 듣는게 아니라구. 물론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듣는거야 좋은 일이지. 하지만 분조장은 분조농사를 책임졌기때문에 그걸 가려들구 심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यो.

물론 나도 우렁이를 반대하는건 아니요. 하지만 그것만 믿구 팔짱끼고 앉아있을수는 없소. 난 그걸 받아들여도 다른 곳에서 하는걸 보구 일정하게 파악이 생긴 다음에 하자는거요.

분조장사업을 몇달 해봤으면 이제 어지간하겠는

데 아직도 곧은목이니, 내 참...  
우렁이를 놓아준 논이 얼마요?》

《3정보입니다.》

《두달말구 래일부터 그 논들에 김매기를 붙이시오. 정말 정신들이 없대니까.》

장정관은 더 논의해볼 여지가 없다는듯 한손을 뻗 내리었다. 그는 우렁이를 놓아준 포전들을 돌아보며 연송 입을 짹짹 다시다가 돌아갔다.

리춘금이 달려왔다.

《어떻게 됐어요?》

분조장대신 서길녀가 대답했다.

《당장 김을 매라는구나.》

하긴 마름이라는 김이 눈에 뜨이게 돌아나고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걱정스레 묻는 리춘금이였다.

《걱정마오. 다 잘될테니.》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구름장이 밀려들더니 저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기온이 쑥 내려갔다.

원인식은 속이 철렁해서 리춘금리와 함께 밤새껏 우렁이들을 살폈다. 우렁이들한테서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거두어 실내서식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다행히도 첫날밤은 별일없이 지나갔다. 다음날에도 비는 멎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춘금은 또 밤을 새울 차비였다. 원인식은 빙그레 웃었다.

《첫날밤을 견뎌냈으니 다른 일은 없을거요. 들어가자구.》

《일없을가요?》

《걱정두 참, 래일 김매기도 생각해야지.》

둘은 나란히 마을로 들어왔다. 하지만 저녁술가락을 놓기 바쁘게 원인식은 다시 논으로 나왔다.

리춘금을 안심시켜 들여보내느라고 우정 혼연한 표정을 지었던것이다.

비는 3일동안이나 내렸다. 낮에는 김을 매고 밤에는 밤대로 찬비에 떨며 지새우려니 원인식은 독감에 걸리었다.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려나고 뼈마디가 못 견디게 쭈서났다.

3일째 되는 날 밤에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다. 비내리는 포전에 홀로 있으려니 따뜻한 집이 못내 그리워졌다. 아마도 인정무른 할머니는 지금도 비뿌리는 창박을 내다보며 손주 걱정애 잠 못이루고 있을것이다.

맛갈스러운 음식이나 간식 같은것이 조금 생겨도 자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남겨두었다가 손에 쥐여주곤 하던 할머니였다. 원인식이 맛나게 먹는 양을 대견스레 지켜보며 《이 할미가 암만 곱다구 해야 이담에 커선 제 에미, 애비밖에 모를 녀석》이라고 즐거운 푸념을 늘어놓곤 하던 할머니였다. 이제 들어가면 《녀석두,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날

래 들어오질 않구. 그러다 감기들면 어쩔려구...》하고 허를 차며 따뜻한 아래목에 눕혀줄것이다.

왜서인지 마음이 약해졌다. 집으로 들어가고싶었다. 문득 아버지의 질책어린 눈길이 떠오른다.

《네가 집에 들어온 사이에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어쩔셈이나? 요즘한 비에 주저앉는 네가 무슨 제대군인이구 분조장이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칭찬을 제일 좋아했던 원인식이었다. 잘못을 저질러 종아리를 얻어맞을 때도 있었다. 허나 그것이 자식을 사회와 집단앞에 뻗뻗이 내세워주기 위한 아버지의 꾸밈없는 사랑중의 사랑임을 군사복무기간 가슴쓰겁게 절감한 원인식이었다. 그래서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 애썼다. 그렇다.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해.

마름은 며칠동안에 논판을 매워버리다싶이 자랐다. 원인식은 당장 손김이라도 매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러버렸다. 비가 오늘 밤까지만 내린다니 기다려보자. 이밤, 이밤만 새고나면 해가 뜰것이다.

온도만 올라가면 시련을 이겨낸 새끼우렁이들은 식욕이 왕성해져서 마름을 목표로 일대 섬멸전을 벌릴것이다. 우렁이분비물은 좋은 비료가 되어 벼성장을 촉진시킬것이다.

원인식은 아픔을 참으며 물온도를 재보고 우렁이들을 살펴보았다. 우렁이가 걱정되었던지 리춘금이 날이 밝기도 전에 달려나왔다.

그는 비옷을 쓴채 후줄근해 서있는 원인식을 보자 아연해졌다.

《그러니 오빠 지금껏...》

입술을 감쳐물던 리춘금은 얼굴을 싸쥐고 돌아섰다.

《난 뭐가 되라는거예요. 같이 나와있으면 안되는가요? 오빠만 영웅이 되겠냐 말이에요.》

원인식은 계면쩍은 미소를 짓고 다가섰다.

《춘금이, 내가 잘못했소. 용서하라니까.》

리춘금은 손을 내리었다. 눈물이 함초롬히 고인 눈으로 인식을 올려다보더니 새끼손가락을 불쑥 내밀었다.

《다신 안 그러겠다는것을 맹세하세요.》

《맹세하오.》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마주 내밀던 원인식은 춘금의 손을 부여잡았다.

《춘금이, 우리 우렁이들이 찬비를 이겨냈소. 이겨냈단 말이요.》

《그게 정말이에요요? 어디 보자요, 어디?》

춘금은 벼포기들사이를 헤집으며 천진한 소녀마냥 기뻐서 뛰어돌아갔다.

《이젠 우렁이들이 그 어떤 폭우에도 끄떡없이 견디어낼수 있는 힘을 가졌단 말이요, 하하하...》

원인식의 웃음소리는 젖빛물안개가 뽕얇게 감도는 새벽녘 들판의 운치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원인식은 해가 뜨는줄도 모르고 잤다. 눈을 떠 보니 할머니가 곁에 앉아있었다.

《어이구, 네가 죽자고 혼이 나갔지. 사흘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를 맞으면서 논에서 살다니... 네 꼴이 사람꼴인줄 아냐?》

할머니는 웃고름을 눈가로 가져갔다. 부엌에서는 닭고기 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손자를 위해 톱닭곰을 하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갔다. 창으로 밝은 해빛이 비껴들었다. 눈이 실 지경이었다.

꽃을 찾아 날아드는 꿀벌들의 날개짓소리와 빨래줄에 앉은 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기분을 흥 띄운다. 분조원들이 기뻐하겠구나. 그러자 별안간 눈곱이 축축해졌다.

어서 나가봐야지, 원인식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어지럼증을 참으며 방을 나서려는데 김이 문문 오르는 톱닭곰을 냄비에 담아두고 들어오던 할머니가 눈이 커다래져서 황황히 불러세웠다.

《아니 애야, 그 몸으로 어딜 나가려느냐?》

《인차 돌아올게요.》

《아니, 애 인식아. ...》

원인식은 분조포전으로 나갔다. 10정보틀에 다 탈으니 사람들이 한벌 덮여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우렁이를 놓아준 포전들에서 김매기를 하고있었다. 장정관이 직접 반원들을 이끌고 나온것이였다.

억이 막혔다. 아마도 장정관은 이번 비에 우렁이들이 견뎌내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분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믿지 못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다우치는데 원인식을 알아본 장정관이 마주 다가왔다.

《분조장동무, 어떻게 나왔소? 몹시 앓는다더니... 분조일은 걱정말구 며칠 좀 폭 쉬지 않구.》

원인식은 그 말은 들은듯만듯 열쁜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건 도대체 뭐니까. 당장 논에서 나가십시오.》

김을 매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원인식을 쳐다보기만 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 김에 붙어있는 우렁이가 안 보입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마름에 붙은 우렁이를 들여다보았다.

《이게 뭔가 했더니 김을 잡는다는 그 우렁이인가?》

《난 또 혼한 골뱅이새끼가 했지요.》

《가만가만, 진짜 김을 뜯어먹는구만!》 하고 탄성을 터치는 사람도 있었다.

장정관은 더는 참을수 없었는지 버럭 소리질렀다.

《5분조장, 동문 지금 제정신이요?》

그는 왁살스럽게 물을 건너치며 다가왔다. 그의

발에 채인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튀겨났다. 초여름의 더위가 순간에 쨍 얼어드는듯 했다.

《동문 도대체 농사를 짓자는 사람이요, 말자는 사람이요, 영?》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앓는 몸으로 나온 원인식인지라 간신히 자기 몸을 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노할대로 노한 장정관은 그걸 가려보지 못했다.

《그래 동무 눈엔 이 김이 안 보이오? 이 우렁이를 믿고 앉았다가 농사를 망치자고 그러는가 말이요?!》

《...》

원인식이 미처 대답을 못하자 장정관은 한결 목소리를 낮추었다.

《물론 우렁이로 김을 잡으면 좋다는건 나도 아오. 하지만 아직은 파악이 없단 말이요. 현실적으로 좀 보오. 며칠동안 내린 비에 우렁이들은 움츠러들고 김은 잔뜩 성해지질 않았소. 자칫하다간 온 한해 우리 농장원들이 흘린 땀이 물거품처럼 될수 있다는걸 왜 생각 못하오?》

원인식은 격해지는 자신을 다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반장동진 우렁이로 김을 잡는것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믿지 못해 그러시는겁니다.》

장정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이제 우렁이로 김잡는 때가 오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내야지. 우리 농장원들은 땀을 흘려서라도 농사를 잘 짓는게 자기의 의무고 본분이란 말이요.》

《웁은 말씀입니다.》

원인식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반장동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으며 그날을 위해 농사에 땀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그렇수록 우리 초급일군들은 과학농사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그들의 땀을 아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이 나는 시대에 과학농사로 변을 일으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장동지는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꿈과 마음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어 키워줄 대신 좋은 말로 어루만지고 낡은 경험으로 내리눌러 현상유지나 하면서 그시그시 넘기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원칙이 결핍된 인정이란 사실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성을 마비시키는 함정이나 같다고 봅니다.》

《뭐 -요?》

장정관의 낮은 수수땀빛으로 변해버렸다.

원인식은 무너지듯 눈두렁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분조원들은 놀란 눈길로 원인식을 바라보았다. 움푹 들어간 눈, 열독이 올라 물통구리가 진 입술...

《분조장동무!...》

분조장을 에워싸는 분조원들이었다.

《이 모양이 되도록 우린...》

탁용철이 술뚜껑같은 원인식의 손을 잡아쥐었다.

《분조장, 내가, 내가 돼먹지 못한 놈이였네. 분조장이 반장말을 잘 듣지 않아 공연한 일로 사람들을 들볶는것만 같아서 내가 그만... 지금 와서 보면 퇴비더미두 내가 온돌을 잘못 놔서 불이 난 게 분명하네. 내가 큰 죄를 지었네.》

《아바이!...》

원인식은 탁용철의 손을 뚫잡았다. 속이 썩해났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인가!

탁용철은 눈을 습먹이며 분조원들을 둘러보았다.

문득 서길너가 나서며 흥 뜬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 우리 분조농사는 먹구났수다. 칠남이는 비료심충시비기를 만들어내, 분조장이랑은 우렁이로 김을 잡게 해, 정말이지 우리 분조에 두 번이 낫수다.》

폭소가 터졌다. 그럴듯한 소리라고 저마끔 추어 올렸다. 웃음꽃이 핀 그들의 모습을 장정관은 별거우려한 낮빛으로 지켜보고있었다.

가을이 왔다. 5분조농사작황은 군적으로 손꼽히었다.

어느날 저녁 장정관이 원인식을 찾아왔다.

《내 오늘 할말이 있어 왔네.》

그의 표정은 엄숙해보였다.

《래일 작업반 초급일군선거가 있게 되네. 그래서 난 관리위원회에 반장으로 자네를 제기했네.》

《예?! 아니 그건...》

《내 말을 막지 말아주게. 난 요즘 정말이지 생각이 많았네. 자네를 두구, 또 나를 두구... 나에게 과연 일군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정말 피로왔네.》

하지만 가슴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네.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을 말일세.

요즘이 어떤 때인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일할것을 요구하는 때란 말일세.

헌데 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일하지 못했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인정미를 내들구, 낡은 경험을 휘두르면서 그저 현상유지나 하구 듣기좋은 말루 얼려넘기려만 했던 말일세. 그런데 시대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용납하지 않았거든. 사람들은 과학농사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려구 하는데 난 그걸 적극 내밀어줄 대신... 결국... 사람들의 지향과 꿈을 믿고 적극 계발시켜줄 대신 낡은 경험에 매달려 자기자신만 지키려 했으니...》

심심한 자책이 담긴 장정관의 말이였다. 원인식은 다른 말을 꺼낼수가 없었다.

다음날 작업반실에서는 선거가 진행되였다. 장정관이 일어서서 원인식을 작업반장으로 추천하자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듯싶은 속에서 놀라운 시선으로 장정관을 응시하던 반원들이 천천히 손을 들기 시작했다. 높이 쳐들었다.

자기를 지지하여 한결같이 손을 든 반원들을 둘러보는 원인식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원인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믿음과 기대어린 반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러있었다.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아직은 설익어 뻣은 감처럼 결함많은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내세워주는 반원들이였다.

그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있는가?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주체농법을 꽃피워 과학농사로 이땅에 풍작을 안아오기를 기대하고있을것이다.

내가 과연 그 기대에 보답해낼수 있을까?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임무가 농업전선의 일군들인 우리들에게 지워져있다. 어깨는 무겁다. 그럴수록 마음도 무겁다.

원인식은 무거운 걸음으로 천천히 반원들앞에 나섰다.

반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를 축하해주었다.

## 시 조

### 청 춘 의 1 편

김 철 혁

나이 젊어 청춘인가  
열정이 있어 청춘이지  
검은 머리 백발되어도  
열정에 불탄다면

늙어서 청춘에 산다  
아니하리오

### 인 생

만사에 끝이 있다고  
인생에도 끝이 있을까  
생명의 불꽃은  
꺼질 때 있다 해도  
조국에 빛된다면  
그 삶은 영생하리

# 산속의 광부도시를 찾아

김창림

격변하는 세월이 흐르고있다.

이 나라 방방곡곡의 군대와 인민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강행군의 자욱따라 우리 조국땅에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고있다.

그 세월의 날들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의 천만군민이 창조하여온 기적과 위훈의 이야기 또한 얼마나 무수히 새겨져있는것인가.

그 많고많은 이야기들중에 제힘을 믿고 산악같이 일떠서 기적을 창조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대흥청년영웅광산의 로동계급의 투쟁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렬차를 타고 대흥역에 들어서니 나의 눈앞에 창가로 푸름히 밝아오는 새날의 미명아래 천지개벽한 광부도시의 모습이 홀렸다.

광산중심마을전경을 더욱 부각시키며 특색있게 건설된 대흥국수집과 룽오원, 대흥려판과 시내중심거리를 방불케 하는 학생소년회판과 체육판들이 차창에 비껴들었고 학교들과 광산병원, 조선식합각지붕의 덩지 큰 문화회판과 책방, 도서관, 온실과 체신소, 은행과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아담하게 꾸려져 광산마을이 아니라 산속의 광부도시라는 느낌이 확 안겨졌다.

대흥땅에 들어서니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봐도 높고높은 산이요, 열린것은 하늘뿐이라 마치 쌀함박안에 들어앉은 기분같았고 게다가 해발고 또한 대단히 높아 하늘아래 첫 동네란 바로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일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허나 이런 심산유곡, 대흥땅에 위대한 변혁의 력사가 창조되어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기

적이 솟아났다.

지난해 5월, 대흥청년영웅광산을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적인 내화물공업발전예 크게 이바지한 이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고있다고 하시며 대흥청년광산에 영웅칭호를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가는 사람들!

우리 장군님의 이처럼 값높은 평가, 크나큰 믿음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함남땅의 제일 막바지인 이 대흥땅에 들어서면 멀리 않은 곳에 해발 2 309m의 두류산이 있다.

두류산에서부터 그 흐름의 시작을 땀 북천의 상류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리도 만족하시여 여기가 다 락원지대라고 몇번이고 말씀하신 대흥청년영웅광산이 자리잡고있다.

사무실마당에 도착하니 마침 바빠 나오는 광산일군인 김일동무와 만나게 되었다. 북두봉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차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억 5천만년전에 솟구쳐올라온 용암물질이 오랜 세월 끓다가 내려앉아 형성되었다는 세계굴지의 대흥광체!

여기에 매장되어있는 수십억톤이라는 놀라운 광석매장량에 대해 듣고보니 우리 사는 내 나라, 내 조국땅에 있는 이런 희한한 보물광체야말로 사실 금산이며 돈산이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기제도 첫 시동을 걸기가 힘이 들지만 일단 시작을 땀 다음에는 가속의 속도로, 다시말한다면 운동법칙에 의하여 자기의 능력을 남김없이 최대로 발휘하는 법입니다. 부족한것이 많았고 힘은 들었지만 남을 쳐다보고 기존공식에 매여달린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자기 힘을 믿고 모든것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갔기때문에 대항력광정물잡이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새로운 생산체계도 성공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공식의 타파! 실정에 맞는 주체 확립!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새롭게 드러내보인  
대홍땅의 새 모습이고 자랑스런 결실인것이다.

그 일군은 또한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 지령실의 크지 않은 직판  
판앞에 서시여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  
들어 우리 식의 주체화를 빛나게 실현한 광산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나서  
이 로에 내가 직접 경의를 표시하겠다고 하시며 몸  
소 허리를 굽히시여 경건히 인사를 하시였다는것이  
였다.

너무도 뜻밖에 벌어진 일이어서 수행한 일군들  
은 북받치는 걱정을 담아 오열을 터뜨리며 박  
수만 쳤을뿐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  
을가싶었다.

자동차는 용을 쓰며 북두봉정점을 향해 치달아  
올랐다.

차창으로는 광산마을들과 학교, 갯구와 광산사무  
실들이 계단식으로 들어앉은 모습이 비껴들었다.

드디어 자동차는 북두봉정수리에 있는 6월5일  
분광산 지령실 앞마당에 와서 멎었다.

《저기가 바로 특대형파쇄기가 있는 대형락광정  
입니다.》

때를 같이하여 저 멀리 동녘하늘가를 붉은빛으  
로 물들이며 해가 솟아올랐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다.

아! 해돋이.

이렇게 높고높은 아찔한 산정에까지 우리 장군님  
오르셨었다고 생각하니 뜨거운것이 차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이  
일하는 일터치고는 제일 높은 곳 같다고 하신 북  
두봉, 겨울에 온도가 최고 평하 40°C까지 내려가  
고 5월까지도 눈이 채 녹지 않는 곳, 센바람에는  
콩알만 한 크기의 돌까지 날린다는 변덕스런 날  
씨의 지대, 경사급한 산꼭대기로 굽이굽이 뻗어간  
차길이 20리나 되는 곳으로 주체91(2002)년 6월  
5일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였다고 이  
곳 해설강사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주  
었다.

오직 하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하나의 일념으로 살며 투쟁한 광산의 일군들과 로  
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하여 광산에서는

1호락광정건설, 특대형파쇄장이설공사, 대형압  
축기갱내이설공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사들을 성  
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대홍땅은 성과가 크고 자랑이 많은 곳이라 인심  
또한 후하였다.

북두봉을 내려 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까지 돌  
아본 나를 대홍국수집의 풍성한 식탁이 맞이했다.

대홍의 특산이라 그 솜씨가 평양 옥류관의 랭면  
못지 않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슬슬 돌고 흐뭇해  
지는 쟁반국수에 아릿다운 봉사원처녀들의 인사  
또한 감개하기 그지없다.

언덕우에 번듯하게 지은 이 국수집을 보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아주 잘 지었다고 하셨으니 인  
민의 행복이 더욱더 꽃피날 앞날에 대한 축복  
의 말씀 아니라. 길도 좋고 내용도 좋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진 말씀이어서 국수집의 종업원들  
모두는 질향상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국수집을 나서니 어서 오라 부르는듯 룽오원이  
나를 반겨맞아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대홍땅을 찾아주  
셨던 6월 5일을 못 잊어 그 이름도 룽오원!

목욕탕과 한증간,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나와서  
청량음료를 마시며 웃음과 덕담을 나누는 청량음  
료실, 미용실과 리발실도 잘 꾸려졌지만 그보다  
이채를 띠고 안겨오는것은 실내수영장이다.

마침 물을 다 뽑고 새 물을 갈아넣는 시간이며서  
여기저기 관들에서 물이 팔팔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침전지를 거쳐 정화한 복천의 물을 뿜프장에서  
정상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실내수영장, 깊은 물에  
처음 들어서는 아이들의 편리를 위해 수영장바닥  
도 높고낮게 설계하고 조약대와 물미끄럼대도 새  
맛이 나게 만들었다.

정말 산골땅에서는 보기 드문 이채로운 광경이었다.

산골아이들도 바다가아이들 못지 않게 해염을  
잘 쳐 파도에 끄떡없고 날바다와도 맞서는 당  
당한 인민군해병으로 자랑떨쳤다는 회소식이 여기  
대홍땅으로 전해져오고있다니 룽오원을 건설한 이  
곳 사람들의 자부심은 그것으로 또한 당당하다.

대홍사람들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그췌히 갖춘  
콩우유생산공장도 훌륭히 건설하여 지금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매일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대홍땅의 가는 곳마다에서 보고 듣는것모두가 기  
적과 혁신의 창조물들이고 희한한 소식들뿐이었다.



# 희 천 의 강 행 군 길

김 봉 운

한치 한치  
결사전으로 뚫고가는 길  
한자욱 또 한자욱  
제손으로 열어야만 가는 길

땅우의 행군길이라면  
칼벼랑이 막아서도 단숨에 날아넘고  
깊은 강물이 막아서도 단숨에 헤쳐넘을  
행군길이건만

땅속의 행군길  
싱그러운 풀향기 여기 없고  
푸르른 하늘 달밝은 밤 따로없는  
산허리를 가로질러 땅속을 가는 행군길

천연암반이 가로막고  
때로는 봉락이 포화처럼 쏟아지고  
갈기 사나운 석수가 휘뿌리는 길  
에돌수도 늦출수도 없는 물길굴행군길

오늘의 최전선 희천발전소건설장  
우리가 가는 물길굴구간은

장군님 가리켜주신 길이기에  
착암기를 총대처럼 틀어쥐고  
함마와 정대를 휘두르며  
곧추 곧추 빨리 더 빨리  
땅속을 넓히며 병사들은 가나니

우리 장군님 몸소 찾아오시여  
발파연기 자욱한 막장까지 찾으실 때  
최전선병사들의 가슴에  
천백배로 용솟은 결사의 맹세로 열어가는 길

장군님 념원하신 그 리상  
인민의 행복이 꽃피여날  
강성대국의 넓은 길을 열며  
심장으로 뚫고가는

오, 땅속의 강행군길  
오늘은 그 누가 보는데 없어도  
부강번영할 조국의 큰 길  
행복의 숨결을 미래에로 이어주며  
래일에도 끝없이 이어진  
희천의 물길굴행군길이어!

~~~~~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 남부럽지 않은 지상락원을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로 일관된 대홍사 람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며 일군 들과 로동계급의 생활방식이고 투쟁기풍이다.

그것이 기쁘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광산을 돌아 보시면서 여기가 락원지대라고, 여기가 다 락원지 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것이다.

커다란 감흥을 안고 기업소를 떠나자고 하니 이 곳 로동계급이 사랑한다는 노래의 구절이 새삼스 럽게 떠오른다.

대홍청년영웅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 이 터전을 다지고 우리 식의 주체적인 내화물공업 의 역센 기둥을 세워나갈 때 한결같이 부른 노래, 하나의 생각, 하나의 신념으로 하나의 지붕아래 더욱 굳게 뭉치게 한 노래가 있다.

...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에 지척 남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 모진 광풍이 몰아친대도 우리는 맞받아가리

장군님따라 주체의 한길 신심드높이 가리라

...

신심드높이 가리라!

나는 이 땅에서 힘있게 확신했다.

제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심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도 웃으며 맞받아헤치는 사람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최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해나가는 절 대불변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 고난의 천리를 가 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 닌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 없이 높이 추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나아가 는 길은 오직 승리의 길뿐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내가 만난 사람들, 여운이 짙은 하나하나의 창 조물들, 산속의 광부도시의 밝은 모습을 이 가슴 에 천연비석처럼 새기며 떼여지지 않는 걸음으로 나는 떠났다.

정말 다시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땅, 어제와 오 늘 그리고 래일이 살아있는 광부도시였다.

## 스타인베크와 소설 《분노의 포도》, 《진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인민대중이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다가야 할뿐 아니라 이야기줄거리도 재미나게 엮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의 념원을 일정하게 반영하여 창작된 소설 《분노의 포도》와 《진주》는 작가 스타인베크의 대표작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1930—1940년대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창작한 잔 스타인베크(1902—1968년)는 캘리포니아주의 몬터레이에서 출생하였다. 작가의 아버지는 지방세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소학교 교사였다.

작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스탠포드대학에 진학하여 생물학을 전공하다가 중퇴하였다. 그후에는 뉴욕에서 벽돌운반공, 도장공, 야장공, 신문기자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체험을 쌓았다.

스타인베크는 처녀작 《황금술잔》(1929년)을 발표한데 이어 자기 고향인 몬터레이농민들의 생활을 묘사한 《하늘의 목장》(1932년), 《알려지지 않은 신》(1933년)을 창작하여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후 작가는 계절로동자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인 《승산없는 싸움속에》(1936년), 《쥐와 사람들》(1937년), 《분노의 포도》(1939년)를,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즘을 반대하는 유럽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인 《달은 가라앉는다》(1942년)를, 전후에는 《진주》(1948년)를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들을 취급한 작품들인 《에덴의 동쪽》(1952년), 《불만의 겨울》(1961년) 등을 내놓았다.

이중에서도 장편소설 《분노의 포도》와 《진주》는 작가의 창작적개성과 세계관적제한성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 대표적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30장으로 된 장편소설 《분노의 포도》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문명과 진보라는 이름밑에 부당하게 빼앗긴 1930년대 미국 중남부농민들을 대표하는 죠드일가의 편력의 이야기이며 빈곤과 역경속에서 집단적의식이 싹트고 《못가진자》의 단결과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지주, 은행자본가 등과 농민과의 대립과 증오가 전형적으

로 묘사되고있으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기계문명이 오히려 허다한 농민들을 빈궁으로 몰아넣는 모순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토지소유와 개발로동자들의 이주와 그들에 대한 착취 등 력사적인 화폭속에서 비참한 운명의 수난자들인 죠드일가의 행동과 운명을 통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스타인베크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여러번 이주민들의 천막을 찾아가 실정을 조사하고 자신이 직접 과일따기와 목화따기로동에 종사하였다. 그 과정에 이주민로동자들의 생활과 괴로움과 분노를 자기의것으로 체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작품을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만들지는 못하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이 작품에 맑스주의사상과 리론이 들어오는것을 피하였다. 그것은 그가 사회의 변혁을 호소해서는 안되며 《가진자》와 지배자의 완성과 양보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분노의 포도》라는 제목은 미국의 녀류시인 줄리아 하우(1819—1910년)가 남북전쟁때 인간의 자유와 천성에 대하여 노래한 시 《공화국의 싸움의 송가》에서 나오는 《분노의 포도가 담긴 독을 하느님은 뱉으시고...》라는 시구에서 따것으로서 원래 포악에 대한 시인의 분노의 발현을 의미한다.

소설의 중간장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굶주린자의 눈에는 더해가는 분노가 있다. 사람들의 뒤통에는 분노의 포도가 가득차 무겁게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있다.》

결국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가 포도처럼 매달려 때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이 제목의 의미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문제로서 미국이 과연 《만민복지》의 《부유한》사회인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철학적문제로서 개인이 무슨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작가는 죠드일가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미국이 이제 더는 《꿈의 땅》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대독점자본에 의한 농민들의 파멸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땅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품은 개인의 힘은 무력하며 인간은 반드시 집체적인 생활을 통해서만 자기의 삶을 영위할수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었다.

고향에서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파멸한 원인으로, 톱 죠드가 오랜 생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진리도 개인으로서의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반드시 집체적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집단성을 인간의 사회적본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본성으로 보았다. 때문에 주인공들은 집단생활에 회의적기분을 가지고 피동적으로 대한다. 특히 작가는 개인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데 초점을 두고 집단정신을 고찰했기때문에 사회개조를 위한 투쟁은 제기조차 할수가 없었다.

총적으로 볼 때 작가의 세계관은 개인주의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참다운 집단주의사상에는 도달할수가 없었다.

소설은 가난한 농민 죠드일가의 행동과 생활이 기본을 이루면서 여기에 그들이 놓여진 사회적, 시대적모습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중간장이 밀접히 결합되어 전개된다. 소설의 30장중 이와 같은 중간장은 전부 합하여 18장이나 된다.

소설에서는 기본줄거리와 별도로 설정한 이런 짤막한 장들을 통하여 당대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있으며 묘사의 간결성, 깊은 서정성, 강한 정론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분노의 포도》는 미국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의식의 발전과정을 힘있게 묘사한것으로 하여 현대미국의 진보적문학이 달성한 성과작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이와 함께 스타인베크의 중편소설 《진주》는 남아메리카주의 어느 한 해안도시에 자리잡고있는 토인집단부락의 생활을 통하여 미제의 인종차별정책과 《황금문명》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소설의 중심에는 토인인 키노일가의 생활이 놓여있다.

작품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지만 반영된 내용은 미국에서 감행되는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우선 작가는 토인들을 둘러싸고있는 사회적환경속에서 야수를 찾았다.

토인들을 짐승만큼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한것이 생기자 체나름으로 략탈할 방도를 고안한다. 의사는 어린 생명을 미끼로 리용하며 목사는 키노부부가 혼례식을 하지 못했다는것을 상기한다. 수매원들은 아무래도 돈을 바꾸러 올 키노를 기다리며 계교를 꾸민다. 키노가 자기들의 공손한 태도에 불복하자 이번에는 도적질을 시도한다.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자 총을 들고 로골적인 강도질을 한다.

이것은 단지 키노일가의 불행이라는 하나의 문제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수백년동안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어온 미국의 유색인종들의 수난의 력사가 함축되어있다.

작가는 토인들의 불행을 불공평한 외부적환경에

서만이 아니라 그들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다시한번 굴절시켜 부각시키고있다.

키노에게는 황금에 대한 속물적근성이 전혀 없다. 진주를 손에 넣은 순간 그는 이것으로 자기를 멸시한 황금의 세계에 도전하려 한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내걸면서도 진주를 쥐고 도망치는것이다.

자기의 귀에 악의 선물이 울렸을 때 그는 벌써 다른 토인들처럼 순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만일 그가 안해의 말대로 진주를 내버리었거나 마을사람들의 말대로 1 500배소에 팔아치웠더라면 불행을 면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영킨 증오는 너무도 컸다. 그렇다고 하여 그에게 자기의 원수들과 맞설 계략이 있는것도 아니다. 때문에 진주는 하나의 고체덩어리로밖에는 달리되지 못하는것이다.

결국 순박한 사람으로 남아있을수도 없었지만 성공할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증오와 무지가 키노자신의 죄로는 될수 없다. 그것은 사회의 죄악이었다.

키노일가의 불행은 인종주의를 정책으로 삼아온 미국사회와 력사가 빚어낸 산물이다.

그것은 자기의 세계에 얽매있게 있으려 하지 않는 토인들에게 가한 백인들의 보복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진주를 바다에 다시 집어넣는 키노의 형상은 단순한 《황금문명》비판이 아니다.

토인의 진주는 백인의 황금앞에서 빛없는 돌덩이에 불과한것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마감에 자기의 세계에도 다시 돌아오는 주인공을 형상하였다. 그 세계는 반항의 세계, 투쟁의 세계가 아닌 굴종의 세계, 몽매의 세계였다.

일찍부터 부르쥬아개인주의에 혐오를 느낀 스타인베크는 《분노의 포도》를 비롯한 이전시기 작품들에서 개인의 무력을 보여주고 집단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현실을 파고드는 과정에 작가는 일정한 사회적집단들사이의 모순을 감촉하였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부르쥬아인도주의자인 작가는 투쟁을 회피하고 도덕적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결국 키노는 자기 집단의 세계에도 다시 들어가 순종의 길을 걷게 될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은 작품의 사실주의적폭로정신을 심히 약화시켰다.

이처럼 현대미국 진보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스타인베크의 창작은 작가의 세계관적, 시대적 제한성이 반영된 부족점이 있으나 개인주의적세계관과 《만민복지》라고 떠드는 미국사회의 반동적, 위선적본질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김진향

## 셈 벤 우스만과 단편소설 《칼자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것이 아니며 민족의 력사와 련결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셈벤 우스만은 20세기 중엽 세네갈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이름있는 작가이다.

셈벤 우스만(1923-)은 까만스강기슭에 있는 소도시 지진쇼르의 어부가정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거쳐 미르썸에서 3년제 도자기기술학교를 다녔다.

그는 어린 나이에 수도 다카르에서 자동차수리소의 견습공으로, 건설부문에서 축조공으로 일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인 1941년에는 프랑스군대에 강제징집되어 4년간 복무하였다. 제대된 후에는 프랑스의 마르세이유항구에서 부두로동자로 혹사당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는 계급적으로, 민족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민족적자주를 위한 투쟁, 근로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투쟁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부두로동자들의 투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세네갈이 독립을 쟁취하자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다.

작가의 일련의 작품들은 이미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으며 일부는 영화로 각색되어 국제영화축전에서 여러차례 당선되었다.

오래동안 프랑스에서 부두로동자로 일한 자기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착취사회의 모순과 제국주의 인종주의의 반동적본질을 폭로단죄한 장편소설 《흑인부두로동자》(1956년)를 쓰고 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비판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기초하고있는 그의 창작은 묘사가 생동한것이 특징이다.

초기에 단편소설을 창작한 경험에 기초하여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형식의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창작의 기본주제는 제국주의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이다. 그의 대표적작품들로 독립이전시기 나이지리아의 사회적질곡의 하나인 가부장적경제구조, 농촌생활에 대한 식민지적 도시문명의 침습이 가져다준 비극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장편소설들인 《도시사람들》(1954년), 《자구아나나》(1961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인간, 자주적인 인간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한 장편소설 《열풍》(1964년)을 비롯

하여 《나의 고향, 나의 아름다운 인민이여》(1957년), 《성목지쟁이》(1960년) 등과 영화문학들인 《흑인녀성》(1966년), 《우편송금》(1968년), 《에미파이》(1971년), 《쇠약》(1975년) 등이다.

이밖에 아프리카인들의 통일과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편소설 《아름다운 길》(1963년), 유목민들의 세태생활을 보여준 장편소설들인 《불타는 풀》(1962년), 《평화를 체험하다》(1976년) 등도 발표하였다.

단편소설 《칼자국》(1960년)은 백인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세네갈의 어느 궁벽한 농촌마을에서는 늘 저녁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앉아 자기들의 지나온 생활력사를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한번은 싸에르가 이렇게 질문하였다.

《우리가 몸에 칼자국을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소? 이러한 풍속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것이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서로 달랐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귀한 출신을 표시하는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노예신분을 표시하는것이라고도 했다.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못하자 싸에르는 이 풍속의 배경을 이야기한다.

백인식민주의자들의 노예상선인 《아프리카인》호는 50여명의 흑인노예를 싣고 또다시 흑인을 《사냥》하러 떠났다. 이 노예들속에는 석달전에 백인놈들에게 끌려갔던 작품의 주인공 아무의 딸도 있다. 아무는 애국적인민들과 함께 총, 도끼, 칼로 무장하고 노예상선에 뛰어올라 백인상인놈들과 결사전을 벌려 원수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족쇄에 얹매인 노예들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노예상선은 불태워 바다속에 처넣고말았다.

그다음 마을사람들은 모두 수림속으로 피신하였다. 아무도 귀여운 딸자식을 안고 한달이나 걸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온 아무와 그의 딸 요만을 기쁨의 눈물로 맞이하였다.

마을로인들속에서는 백인식민주의자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규탄하는 분노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한 로인은 《이런 놈의 세상이 도대체 언제나 끝장이 날는지?》 하였고 다른 로인은 《백인놈들은 짐승들보다도 더 잔악하고 악착하네.》라고 하면서 분격에 치를 떨었다.

백인놈들이 또 언제 마을에 기여들지 알수 없었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협의 공포보다는 눈앞의 기쁨과 감격이 더 컸다.

모두가 펄쳐나 발을 깔고 씨를 뿌렸으며 가족우리를 만들고 집집승들을 길렀다.

먹을것이 넉넉하고 사람들도 인정깊고 살기좋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뜻밖에 이곳에 백인놈들이 나타났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미처 피신할 사이가 없었다. 아무는 도끼를 들고 요만을 이끌고 피신처를 찾아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도중에 맞닥뜨린 백인놈을 도끼로 요정내고 그냥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썰 힘이 없었다. 백인놈들은 뒤를 바짝 따라오고있었다. 백인놈들은 노예상인들이었는데 쓸모없는 늙은이들은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트 아무는 별일 없을것이다. 문제는 요만이였다. 요만을 살리는 방법은 한가지가 남아있었다. 요만의 몸에 상처자리를 내는것이였다. 상처자리가 난 아이는 값이 떨어져 잡아가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아무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쥐고 사랑하는 딸의 몸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약초잎으로 상처를 싸매주었다.

요만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상처자리는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이 부족에서는 몸에 칼자리를 내는 풍속이 생겼다.

이 상처는 영원히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표식이다.

작품은 주인공 아무의 형상을 통하여 노예의 운명을 지니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것이 더 영광스럽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아무는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는 세네갈의 평범한 한 농민이다. 그러나 백인놈을 도끼로 처단해버리는 장면이라든가 노예상선에 뛰어올라 백인놈들을 모조리 징벌하고 노예로 불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쥐고 사랑하는 딸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장면들은 백인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세네갈인민의 증오의 감정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다.

작품은 지난날 세네갈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백인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 노예매매의 범죄적인 역사를 폭로하면서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세네갈의 한 농촌가정이 겪는 비극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백인식민주의자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백정들이며 사람의 가족을 쓴 송냥이라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고발하고있다.

작품은 랑립될수 없는 두 극단인 주인공 아무와 백인식민주의자들간의 대립관계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세네갈인민들의 타협없는 투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성격을 뚜렷이 하였다고 볼수 있다. 또한 랑만적이며 자연미가 넘치는것이 특징이다. 주인공의 운명이 아무리 눈물겹다 할지라도 결코 비판적으로 묘사하지 않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희망과 결합시키고있다. 그것은 아무가 요만의 몸에 칼자국을 남기는것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쫓기는 주인공 아무와 추격하는 백인식민주의자들을 교차시켜 숨가쁜 긴장을 조성시키고있으며 섬세하고 재치있는 묘사기교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간결하고도 압축된 극성을 보여주고있다.

쎌벤 우스만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자신이 겪은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얻어진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생동한 묘사, 생활세부를 재치있게 엮어나가는 기교를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의 진보적문학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한 명 근